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 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한국어 의견 말하기 교육 방안 연구 -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양 상(LIANG SHUANG) 한국어 의견 말하기 교육 방안 연구 -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

지도교수 민병곤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양 상 (LIANG SHUANG)

양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4년 6월

위원	원 장	
부위	원장	P
위	원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고급 학습자들이 일대일 인터뷰 담화에서 한국어로 자기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양상을 분석하여, 중국인 고급학습자의 한국어 의견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구안하고자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일차적인 학습 목적은 한국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학습 목표는 모어 화자처럼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며, 여기에서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중 말하기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에서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음성언어보다 문자언어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고, 말하기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다. 본 연구의 대상인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면 대부분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간단한 대화는가능하지만 어떤 주제나 사회 문제 등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의견 말하기의 개념과 교육적인 위상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의견 말하기는 공식적인 장면에서 화자가 일방향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유형의 말하기며, 말하기의 의도나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된 네 가지 유형 중설명하기와 설득하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른 말하기 유형과 구분됨을 밝혔다. 다음으로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공식적인 일방적 의견 말하기 능력의 특징적인 구성 요소를 정리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현황과 학습자들이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 말하기에 대한 이론적인 전제와 중국에서의 말하기 교육의 현황을 바탕으로 III장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양상을 언어 사용, 담화 구성, 전략 사용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언어 사용 층위에서는 어휘 측면

과 문법·문형 측면으로 나누어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나타난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휘 측면에서는 중국식 한자어의 사용, 인칭대명사의 과다 사용과 기초적인 어휘의 반복 사용의 문제를, 문법 및 문형 측면에서는 시제 및 높임법의 오용과 단정적인 표현의 과다 사용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담화 구성 층위에서는 의견 말하기 과제 수행과 내용 조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학습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하여 적당한 내용을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연결하였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략 사용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말하기 준비 단계와 수행 단계에서 전략 활용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4장에서는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양상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과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의견 말하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목표, 내용, 방안을 설계하였다. '의견 말하기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고 다양한 표현 문형을 사용'하여 '논리적이고 완결성 있는 내용을 생성·구조화'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였다. 교육의 내용은 의견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인 언어 사용, 담화 구성과 발화 단계의 전략 사용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선정한 후,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 전략 사용의 습득과 종합적인 연습으로 3단계의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담화인 특정한 담화 유형에서의 일방적인 의견 말하기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 말하기의 일정한 형식, 주어진 상황, 내용적인 구조, 관용적 표현, 활용한 전략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한 점, 한국어 교수·학습 과정에서 언어 지식만을 강조하지 않고, 학습자들이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말하기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실제 발화 단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교육 내용으로 마련하였다는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주요어 : 한국어 교육, 말하기 교육, 의견 말하기, 인터뷰 담화, 일방적 말하기, 표현 문형, 내용 구조 형식, 말하기 준비.

\* 학 번: 2012-22644

# 차 례

Ι	٠ ,	서론	Ĺ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u>-</u>
	3.	연구 대상 및 방법	2
		1) 연구 대상	2
		2) 연구 과정 및 방법	4
II	. ই	한국어 의견 말하기 교육의 이론적 전제 19	)
	1.	의견 말하기의 개념과 위상19	9
		1) 의견 말하기의 개념 19	9
		2) 한국어 교육에서 의견 말하기의 위상2;	3
	2.	의견 말하기 능력의 특성22	7
		1)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22	7
		2) 의견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	1
	3.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의견 말하기 교육	5
		1)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현황	5
		2) 의견 말하기 교육을 위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요구 38	3
Ш	. ?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의견 말하기 양상 분석 44	1
	1.	의견 말하기 양상 분석틀	4
	2.	언어 사용 층위	3
		1) 어휘 측면	3
		(1) 중국식 한자어의 사용46	3
		(2) 인칭대명사의 과다 사용4	9
		(3) 기초적인 어휘의 반복 사용 55	3
		2) 문법 및 문형 측면	3
		(1) 시제 및 높임법의 오용56	3
		(2) 단정적인 표현의 과다 사용	
	3.	담화 구성 층위 ····· 62	2

1) 의견 말하기의 과제 수행 62
(1) 중심 주장의 명확성 부족63
(2) 근거 내용의 합리성 부족68
2) 의견 말하기의 내용 조직 74
4. 전략 사용 층위 83
1) 코드 전환 83
2) 바꿔 말하기91
(1) 풀어서 표현하기91
(2) 예를 들어 설명하기93
(3) 근접한 표현으로 바꿔 말하기 95
3) 준비 메모 활용 97
5. 논의106
${ m IV}$ .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의견 말하기 교육 방안 $108$
1. 의견 말하기 교육의 목표 108
2. 의견 말하기 교육의 내용 110
1) 언어 사용 측면113
(1) 다시 말하기 활동을 통한 어휘·문법의 수정 ································113
(2) 의견 말하기 관련 표현문형의 숙달114
2) 담화 구성 측면117
<ul><li>2) 담화 구성 즉면117</li><li>(1)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117</li></ul>
(1)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117
<ul><li>(1)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 117</li><li>(2) 준비 메모를 바탕으로 한 내용 생성 활동 119</li></ul>
<ul> <li>(1)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li></ul>
<ul> <li>(1)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li></ul>
(1)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
<ul> <li>(1)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li></ul>
(1)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

# <표> 차 례

<丑	I -1>	인터뷰 대상자 정보13
<丑	I -2>	자료 수집의 방법 및 종류14
<翌	I -3>	인터뷰 질문 유형16
<翌	I -4>	질문 유형별 학습자의 담화 수17
<翌	I -5>	전사 기호18
<翌	∐ −1>	말하기의 유형(전은주, 1999: 79)22
<翌	Ⅱ -2>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Canale & Swain, 1980) 28
<翌	Ⅱ -3>	말하기 능력의 평가 범주 연구 정리 30
<翌	∏ −4>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31
<翌	Ⅱ -5>	의견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 35
<丑	Ⅱ -6>	설문 대상자의 정보 38
<丑	∏ −7>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하기 유형
<丑	∏-8>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하기 상황
<丑	∏-9>	중국인 고급 학습자 의견 말하기의 난점40
<丑	∭-1>	질문 유형별 내용 조직 방법 82
<丑	<b>Ⅲ</b> -2>	모국어 전환 현상 빈도 표90
<丑	∭-3>	메모 유형별 구성비104
<丑	<b>Ⅲ</b> -4>	메모 유형별 학습자 분포105
<丑	IV-1>	고급 말하기 평가의 목표 및 내용(강승혜, 2006)109
<丑	IV-2>	의견 말하기의 교육 목표110
<丑	IV - 3 >	의견 말하기의 교육 내용112
<丑	IV-4>	부적절한 어휘·문법 사용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 항목114
< 丑	IV - 5 >	의견 말하기 기능별로 문형의 교육 내용116
< 丑	IV - 6 >	의견 말하기 교육을 위한 읽기 자료 주제의 예시119
< 丑	IV-7>	형식 기능별 문형의 교육 내용: 분석 평가형 질문124

<翌	IV-8>	형식 기	]능별	문형의	교육	내용:	찬반	논의형	질문	•••••	]	125
<翌	IV-9>	형식 기	] 능별	문형의	교육	내용:	해결	백 제시	형 질년	군	]	127
<翌	IV-10>	• 1단계	수업:	기초조	인 지	식의	습득	•••••	•••••	•••••	]	135
<翌	IV-11>	2단계	수업:	전략 /	사용의	습득		•••••	•••••		]	138
< \( \)	W-12>	. 3다계	수업:	<b>조</b> おス	ो व	슼					1	130

# [그림] 차 례

[그림	II-1]	말하기의 형태 결정 요인(전은주, 2008) 21
[그림	Ⅱ-2]	의견 말하기의 개념23
[그림	∭-1]	본 연구의 의견 말하기 분석틀44
[그림	IV-1]	의견 말하기의 내용 구조123
[그림	IV-2]	질문 유형에 따른 구조 형식: 분석 평가형 질문123
[그림	IV-3]	질문 유형에 따른 구조 형식: 찬반 논의형 질문125
[그림	IV-4]	질문 유형에 따른 구조 형식: 해결책 제시형 질문126
[그림	IV-5]	전환 전략의 교육 내용130
[그림	IV-6]	한국어 말하기 교수의 원리(조수진, 2007)131
[그림	IV-7]	한국어 의견 말하기 교육 모형132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중국 4년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고급 학습자<sup>1)</sup>들이 일대일 인터뷰 담화에서 한국어로 자기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양상을 분석하여, 중 국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의견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구 안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일차적인 학습 목적은 한국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학습 목표는 모어 화자처럼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의사소통이며,2) 여기에서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중 말하기의역할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서 체계적인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지금까지 말하기 능력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보다 말하기 능력을 포함하는 '언어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3)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말하기 능력이란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와문화 속에서 목표 언어를 의미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문법적 지식과 언어 사용능력, 사회문화적 요인, 전략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말하기 능력은 발음, 어휘, 문법적 능력 등과 같은 언어 지식과, 담화 유형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의사소통 지식을 아울러, 음성 언어로 자신이 의도한 내용을 표현하는 언어 기능이다.

그러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말하기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말하기 교육 현황은 음성언어보다는 문자언어에 더욱 집중하고 있고, 대부분은 문법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회화 중심<sup>4)</sup>의 의

<sup>1)</sup> 이하 '중국인 고급 학습자'로 약칭하여 부른다.

<sup>2)</sup> 본 논의는 구현정(2001: 304)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의사소통을 위하여 말하기 능력의 향상을 바라고 있고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반영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에 있고 의사소통 중심, 말하기 중심의 교육에 있다'는 주장에 의한 논의이다.

<sup>3)</sup> 커넬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을 기초로 한 커넬(Canale, 1983), 바흐만 (Bachman, 1990), 바흐만과 파머(Bachman & Palmer, 1996)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sup>4)</sup> 중국 대학에서 '말하기'라는 과목을 대신하여 '회화'라고 부른다.

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다(최영, 2012: 6).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면 대부분 한국어를 어느정도 구사할 수 있지만, 격식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말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의사소통하는 데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조리 없이 말하거나 유창성도 떨어져 자연스러운 한국어표현이 아닌 중국식 한국어를 하게 되는 경향도 있다. 즉 간단한 대화의 수준에한하여 어떤 주제나 사회 문제 등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고급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의 4년제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와 구별해야 한다. 대학 과정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문 목적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에는 그들이 처한 환경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학문 활동의 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진숙(1999)에 따르면 대학이라는 '학문적 담화 공동체(academic discourse community)'에서는 학생들에게 배운 지식을 충실하게 소화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탐구하고 논리화하여 그것을 논술문의 형식으로 엮어낼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을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말하기 교육에서도 적용이 된다. 또는 장향실(2006)에 따르면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학과의 고급 단계는 특정한 전문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자가 직접 자신이 사고한 바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단계이고 이는 해당 전문 분야의 표현 방법, 구성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갖춘 말하기 단계라고 서술한 바가 있다. 이것은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말하기 교육에서도 적용이 된다.

의견 말하기란 사회 문제나 어떤 주제에 대하여 화자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완전하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한국에 유학을 가거나 한국계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 한국어로 자 신의 의견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 는 능력과 한국어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의사표현 능력이 함께 요구된다.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목표는 단지 간단한 언어능력 신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의 측면에서 더 다양하고 많은 발전을 기대한다. 모국어 화자처럼 유창하게, 자연 스럽게, 청자의 입장에서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어떻게 더 조리 있게, 잘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유창 하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학습 자가 고급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목표 언어문화 속에서 사는 그 사회 구성원과 같이 발화의 상황과 상대에 맞는 담화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언어 지식뿐만 아니라 담화 유형별로 말하기를 교 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학문적인 한국어 고급 수준과 요구를 참고하여 볼 때,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 수업은 그 내용에 있어서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까지 제시해야 하며 둘째, 사회적, 업무적, 학문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담화 상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는 인터뷰, 스피치, 토론, 등 다양한 담화 유형을 포함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동안 간과된 부분이었던 언어 사용 능력뿐만 아니가 언어 사고능력도 같이 향상시켜야 한다. 즉 말하기 교육에서 교수 또는 학습의 대상이 되는 내용과 함께 이를 풀어나가는 언어와 준비 과정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내용보다는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대부분 문법 중심의 단편적 언어 지식 정리 및 간단한 수업에서의 대화 연습의 말하기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말하기 지도 방법은 언어 사용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지도로서의 말하기 능력과는 연결되기 어렵다. 말하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하여 언어 지식의 숙달도 중요하지만, 말하기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발화에 이르는 과정에도 주목해야 한다. 말하기 행위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과정이며, 말하기 능력은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구체적이며, 단계별로설명하고 말하기를 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격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한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을 지도할 필요가 있고, 이는 학생들의 한국어로 사고하여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능력도 향상으로 이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면대면 인터뷰는 학문적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취하는 방

식이다(김상수 외, 2010).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은 한 가지의 평가 유형으로도 다 양한 범주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인터뷰는 제일 바람직한 유형이다. 김 상수(2010)는 말하기 인터뷰 문항 유형 및 내용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그 중에 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이야기하기'의 내용을 사회·경제·문화 등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5)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특정 현상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것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인터뷰 과제는 의사소통 기능 항목6) 중의 '의견 제시하기, 의견 정당화하기, 선호도 표현 하기, 일반적인 사실정보 제공하기, 현제 상황을 말하기'등 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 고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독백형 일방적 말하기 과제에 근거하여 라자라톤 (Lazaraton, 1996)에서 제안한 반(semi)직접 말하기 평가 방법, 즉 비계획적인 독 백7)의 형태인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인터뷰를 채택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발화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고에서 인터뷰 담화를 분석하 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터뷰란 나중에 하국어 학습자들이 하국에 가서 대 학원에 진학하거나 회사에서 취직할 때 자주 당면할 수 있는 말하기 평가 과제이 기 때문이다. 또한 의견 제시하기, 의견 정당화하기 등 의사소통 기능은 교육적인 적용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인터뷰 담화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의견 말하기 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 1.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2.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인터뷰 담화에서 일방적인 의견 말하기 담화 양상은 어떠한가?

<sup>5)</sup> 문항 유형은: 사진이나 그림보고 이야기하기, 선호하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연속된 그림보고 이야기하기, 도표나 그래프를 보고 이야기하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이야기 하기이다.

<sup>6)</sup> 말하기 평가 문항의 의사소통 기능 점검 항목은 라자라톤(Lazaraton, 2002)에서 제시한 목록을 기반으로 김상수(2010)는 12가지를 정리하였다. 즉 개인적인 사실 정보 제공하기, 일반적인 사실 정보 제공하기, 현재/과거/미래 상황을 말하기, 묘사하기, 비교해서 말하기, 의견 제시하기, 선호도 표현하기, 의견을 정당화하기, 추측해서 말하기, 제안하기이다.

<sup>7)</sup> 누난(Nunan, 1991)에 의하면 구어의 형태는 크게 일방형 말하기인 '독백'과 상호형 말하기인 '대화'로 나뉘는데 '독백'은 다시 연설 등과 같은 계획적인 독백과 즉석 강의 등의 비계획적인 독백으로 나누어지며 '대화'는 사교적 관계 증진을 위한 사교적 대화와 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 교류적 대화로 나누어진다.

- 어휘, 문법, 문형 등 언어적인 사용 양상은 어떠한가?
- 의견 말하기 담화 내용의 구성 양상은 어떠한가?
- 의견 말하기 준비와 발화 단계에서 전략 사용 양상이 어떠한가?
- 3.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 언어 사용 측면에서 의견 말하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방안은 무엇인 가?
  - 담화 내용의 생성과 조직 측면에서 의견 말하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 의견 말하기를 수행할 때 전략 측면에서 의견 말하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 2.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인터뷰 담화에서 의견 말하기의 양상을 분석하여, 중국 대학 한국어 교육의 특정한 환경과 알맞은 의견 말하기 교육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견 말하기에 관한 이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 말하기 능력을 분석할 때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정리하여 학습자들의 담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 먼저 말하기 교육에서의 말하기 유형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둘째로 본 연구의 대상인 '의견 말하기'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말하기 유형에 관한 연구

먼저, 말하기 유형에 대한 연구들이다. 말하기의 유형은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말하기 목적에 따라 분류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리치(Leech, 1974)에 의하면 언어의 기능을 정보 기능 (informational function), 표현 기능(expressive function), 지령 기능(directive

function), 미적 기능(aesthetic function), 친교 기능(phatic function) 등 다섯 가 지로 구분하였고, 할리데이(Halliday, 1976)는 언어의 기능을 도구적, 규정적, 정 보적, 교제적, 인간적, 발견적, 사상적 기능 등 7가지로 분류하였다. 루오마 (Luoma, 2001)에서는 말하기는 개인들이 실행하는 뭔가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고, 전형적인 말하기 상호작용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상호 관심 거리라고 생각하며, 그 상황에 관련되는 대상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가리켰 다. 이러한 말하기의 목적은 시간을 보내는 것, 서로 기분을 맞춰 주는 것, 의견을 공유하거나 어떤 일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언급하였으며 한 번에 여러 가지의 목적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능과 목적의 구 분을 기초로 말하기의 유형을 살펴본 연구로는 전은주(1999), 원희영(2001)과 이 지양(2007)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은주(1999)는 이러한 언어의 기능들을 의사소통과 연관지어 결국 인간은 말하기와 듣기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 고 전달하고, 인간관계를 형성·유지·조정하며, 어떤 행위를 수행하고, 자신의 의지 를 전달하며 감정과 느낌을 표현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원희영(2001)은 의사소 통상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근본 동기인 말하기의 목적을 나누어, 정보를 전달 하는 말하기, 설득하는 말하기, 정서 표현의 말하기, 친교의 말하기이며 설득적 말 하기에 중점을 두고 설득적 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언어 학 습자들은 다양한 말하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면 공식적인 말하기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말하기 유형에 적합한 말하기의 유의점을 알고 활동하 는 것이 좀더 '자신이 원하는 말하기를 위한 말하기 능력 신장'의 목표 달성에 효 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지양(2007)은 언어의 기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에 관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진술하는 공적 말하기를 정보 제공 말하기, 설득 말하기, 유흥 말하기로 구분하여 원희영(2001) 에서의 정서 '표현의 말하기' 와 '친교의 말하기'를 결합하여 '유흥 말하기'라고 제시하였다. 이지양(2007)에 따 르면 정보 제공 말하기와 설득 말하기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특성에 따라 엄격한 구분이라기보다 중점을 두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른 편의상의 구분이라고 한다. 정보 제공 말하기에서도 청중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득을 위 한 여러 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설득 말하기에서도 청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주제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기 때문에 두 말하기 유형은 공통분모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말하기 내용에 따라 사물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 등으로 나눈 구현정·전정미(2001)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분류 중에서 설명은 미지의 사실이나 아직이해되지 않고 있는 사실의 의미를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상세하고 분명하게 밝히어 말하는 것이고, 설득은 화자 자신이 옳다고 믿거나 바라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어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말하기 유형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임지룡(2013)은 말하기 수련의 과정에서 말하기의 유형에 대하여 이해하는 일은, 다양한 말하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수련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말하기의 유형은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말하기 장면의 성격에 따르면 일정한 격식이 없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말하기와 정해진 형식과 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공적인 말하기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말하기 장면에 참여하는 화·청자의 태도와 양 쪽의관계에 따라 일방적 말하기와 쌍방적 말하기로 나눌 수 있다. 또 말하기의 목적과참여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하면 설득하기, 설명하기, 친교 나누기, 정서 표현하기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모국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골고루 다다루어야 하는 반면에 외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중점을 두고 학습하는 유형을 구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하기 유형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말하기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 특히 상호작용이 부족한 비모국어 환경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말을 하는 화자의 측면을 더중요시해야 하므로, 학습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말하기 유형을 다시 정리하여집중적으로 고찰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2) 의견 말하기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의견 말하기'는 어떤 주제나 현상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 주장을 논리적으로 혼자서 길게 말하는 것으로 화자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자기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설명하기, 설득하기' 등을 포함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관련 연구는 크게 말하기 능력 평가, 말하기 교육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의견 말하기의 하위 유형인 설명하는 말하기와 설득하는 말하기 능력의 평가 방법에 관한 논의는 손세모돌(2007), 문선희(2005), 조재윤(2011), 이도영(2010) 등이 있다. 손세모돌(2007)에서는 정보 전달적 말하기에서의 설명 능력평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내용면과 표현면으로 양분하여 다룬 바가 있다. 내용 구성 평가 중 시작과 종결 부분은 전개 부분의 설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므로 전개 부분과 다른 평가 지표가 적용되어야 한다. 전개 부분은 구조의 적절성, 주제와 핵심 부분에 대한 강조, 내용의 체계성, 구체적인 예,청중의 수준에 맞는 설명과 상황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표현면의 평가는 어법과 어휘 및 간결성, 신체언어 등을 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조재윤(2007)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진 말하기 평가 요소 설정 방법을 탐구하고, 말하기 유형에 따른 평가 요소를 설정해 보았다.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 설득하는 말하기, 토론과 토의에서 공통적인 평가 요소로 설정된 것은 말할 내용의생성, 말할 내용의 조직, 말할 내용의 표현, 말하기의 태도였다. 이러한 평가 요소도 말하기 유형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야 된다고 하였으며, 그 외에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에서는 정보 전달의 목적이, 설득하는 말하기에서는 주장의 적절성과근거의 타당성이 다른 말하기 유형과 차이가 있는 요소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연구에서는 평가 요소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평가의 단계적 특성 등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한계점이다.

설득적 말하기 능력 분석을 위한 평가 요소 별로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많지 않으나 설득적 말하기 평가 준거에 대하여 다룬 연구로 문선희(2005)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설득적 말하기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주장이 명료해야 하며 청중의 관심을 끌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설득적말하기 평가 요소를 제7차 교육과정에 명시된 기능과 태도를 포함하여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과 전달, 태도'의 네 가지 범주를 제시하고, 평가 요소는 '풍부성, 논리성, 타당성, 표현성, 유창성, 태도'라는 여섯 가지를 설정하였다.8)

<sup>8)</sup> 말하기 영역 네 가지 하위 범주별로 평가 요소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문선희, 2005: 57).

이도영(2010)은 말하기 평가 목표를 말하기 교육 목표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말하기 평가 요소와 기준을 말하기 모형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말하기 평가 목표는 말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여 '개인적·사회적·윤리적·문화적 측면의 평가 목표'의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도출한 말하기 평가 요소는 '화자, 청자, 상황, 발화/담화 기능·규범, 인지 과정, 표현 및 전달 방식, 잡음, 화자와 청자의 상태 변화'여덟 가지이고 이러한 평가 요소에따라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는 설명하는 말하기와 설득하는 말하기의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정수(2004)에서는 설명하는 말하기를 원인·결과, 대조·비교, 수집, 분석·분류, 시간 순서, 예시, 문제 해결 방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이 교육과정 안에서 어떻게 학습자의 수준별로 관련되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말하기 단계별 프로그램을 방법별로 4-5단계씩 총 35단계를 개발 제시하였는데, 방법별로 본 각 단계의 프로그램 요소는 1)설명적 말하기 개념 익히기 2)도식조직자 전략 익히기 3)단서어 활용 전략 익히기 4)삽화와 매체를 활용한 말하기 상황의 제공 5)다양한 상호관계를 통한 말하기 연습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단계별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게 투입하여 다양한 설명하는 말하기 상황을 마련하였다.

설득하기 위한 담화 유형의 교육에 대한 논의는 박재현(2006), 이은회(2011), 민병곤(2012) 등이 있다. 박재현(2006)에서는 학습자의 설득 말하기 생산 과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설득 담화의 내용 조직'의 원리를 제시하고 담화 조직의 교육적 원형을 선정하여 설득 담화 내용 조직 교육 모형을 구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발화 과정에 주목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있다. 이은희(2011)에서는 설득 담화의 본질 및 특성을 정리하고, 설득 담화의 교수 학습 내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득'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을 고찰하고, 담화 유형이 지닌 본질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설득하는 말하기의 교육 과정을 고찰한 민병곤(2012)에서는 현재

	범 주	평 가 요 소
	내용 생성	풍부성
기 능	내용 조직	논리성, 타당성
	표현과 전달	표현성, 유창성
태 도	태도	태도

교육과정에 제시된 설득 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설득'은 교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그 하위 담화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육 과정을 설계함에 있어 설득적 말하기 능력을 구인하고, 그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 각 하위 담화 유형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설명하는 말하기와 설득하는 말하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국어 영역에서 많이 나왔으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아직은 미흡하 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담화의 내용 생성과 내용 조직에만 초점을 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명하기와 설득하기를 포함한 의견 말하기를 가르칠 때 담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과 전략 사용에서도 다루어야 하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의 담화를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논의가 필 요할 것이다.

#### 3) 중국에서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 관한 연구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이해영(2005), 김순녀(2006, 2011), 박애양(2008), 송향근(2011), 최영(2012) 등이 있다. 이 전에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현윤호(2005)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연구사와 변천사를 기술하면서 그간의 말하기 교육 관련 연구가 듣기나 읽기, 쓰기 교육에 비하여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고 밝히고,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말하기 교육의 발전 양상을 교수법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의 언어 사용과 관련된 한국어 교육 연구가 교육의 내용보다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도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어떻게'에 해당하는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무엇'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이해영(2005)에서는 그간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서 다루어져 왔던 교육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해영(2005)은 한국어 말하기 교육 현장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의 영역이 음소, 억양 등에 대한 학습, 단원 학습 목표인 어휘 및 문법의 학습과 연계된 말하기 활동,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중급 학습자에게는 이러한 내용에

만족을 하나 고급 학습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고 적절한 억양 구사나 담화 표지의 사용, 사회언어학적이고 화용적인 적절한 구사,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을 여전히 어렵게 느끼므로 한국어 말하기 학습 내용의 변화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 대하여 김순녀(2006)는 중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실제 교수 경험을 토대로 한 말하기 교수방법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말하기 교수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대 하여 논하였다. 교수 방법 개혁은 다른 언어교수에서 창조한 좋은 방법들을 배워 야 하는 동시에 어종별 학습자의 실제에 맞는 맞춤형 교수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어 학습자들의 기지의 지식과 문화에 적응되는 한국어 교수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순녀(2011)에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말하기 교수의 실태와 그 원인을 밝히고 말하기 교수의 주요 내용과 절차에 대해 서술하면서 학생들의 한국어로의 사고능력 양성 이 말하기 능력 향상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됨을 제시하였다. 중국인을 대 상으로 하는 말하기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학생들의 소질, 지식, 심리 요인, 그리고 담당 교수들의 요인, 언어 환경으로 나누 어 분석한 후에, 중국에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은 다른 학과목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이용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업 구성은 새로운 단어 학습, 기본 문형 학습, 종합 연습으로, 즉 중국에서 한국어과를 개설한 대학들은 대부분 문법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말하기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형식적인 지식 학습이 중심이다.

최영(2012)은 현재 중국에서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훨씬 효율적인 교수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중국 대학 한국어과의 교원 구성, 개설된 교과목, 말하기 교재, 말하기 수업의 구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부족함과 미흡한 점을 발견하였다. 중국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유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하는 환경이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만이라도 되도록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말하기 수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말하기 유형을 교육하는 연구로서 박애양

(2008)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한 말하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의 토론 담화 자료에서 주로 나타나는 담화표지를 분석하여 토론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담화표지와 표현 문형을 마련하였고, 학습자들의 토론능력 향상을 위한 몇 가지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송향근(2011)은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그 동안 어떤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경향성을 도출함으로써 앞으로의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중국에서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아직은 특정한 담화 유형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말하기 능력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으로 말하기 과정에서 말하기 기능에 따른 특별한 교육 방법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모국어 환경이 없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미흡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하여 특정한 말하기 유형의 특정한 교육 방법이 반영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3. 연구 대상 및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어 인터뷰 상황에서 어떤 이슈나 현황에 대하여 학습자 자신의 주장, 생각을 밝히는 의견 말하기를 연구하고,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는 고급 학습자들이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의견 말하기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고급 학습자의 인터뷰 담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2013년 12월 10일부터 2013년 12월 23일까지 중국 3개 대학에서의 고급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일대일 인터뷰와 중국어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9)

<sup>9)</sup> 본 실험을 하기 전에 예비 조사로 2013년 10월 8일부터 11월 20까지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50명의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 학습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고 의견 말하기 과제를 제시하여 담화 자료를

인터뷰 대상인 학습자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중국 4년제 대학의 고급학습자들이다. 이러한 학습자들은 한국어로의 의사소통 환경이 없는 조건에서 3년이상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며 풍부한 어휘와 문법 지식을 학습하였다. 총 20명으로, 모두는 중국에 있는 세 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학습하고 있는학부 4학년~대학원 2학년의 학생들이다. 연령은 21~25살이며 한국어 학습 기간은 4년~6년 정도가 된다. 성별 분포는 남자 6명, 여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7명은 학부 4학년 학생이고 1명은 석사 1학기이며, 2명은 석사 3학기이다. TOPIK등급 분포는 6급 12명이고 5급 8명이다.

인터뷰 대상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표 I-1>과 같다.

	성 별	나이	학습 과정	학습 기간	TOPIK등급
1	여	22	학사4학년	4	6
2	남	23	학사4학년	4	5
3	여	22	학사4학년	4	5
4	여	24	학사4학년	4	6
5	여	21	학사4학년	4	5
6	여	21	학사4학년	4	5
7	여	22	학사4학년	4	6
8	여	23	학사4학년	4	6
9	남	22	학사4학년	4	6
10	여	23	학사4학년	4	5
11	여	22	학사4학년	4	6
12	남	22	학사4학년	4	5
13	여	21	학사4학년	4	5
14	남	22	학사4학년	4	5
15	여	21	학사4학년	4	6
16	여	25	석사3학기	6	6
17	남	22	학사4학년	4	6
18	남	24	학사4학년	4	6
19	여	24	석사1학기	5	6
20	여	25	석사3학기	6	6

<표 I-1> 인터뷰 대상자 정보

총 21개를 수집하였다. 실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Ⅱ장 3절 내용을 참고한다.

#### 2) 연구 과정 및 방법

본 연구는 아래 <표 I-2>와 같이 한국어 일대일 인터뷰와 중국어 사후 인터뷰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일대일 인터뷰에서는, 학습자의 긴장감을 풀어 보다자연스러운 발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개괄적인 정보에 대하여 '웜업' 질문으로 시작하였다.10)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이래 <표 I-3>과 같은 세 가지유형의 의견 말하기 질문을 유형별로 하나씩, 충 세 개 질문을 받은 후에, 질문마다 각 1-2분 동안의 준비 시간을 갖고 나서 일방적인 말하기를 발화하는 과제를수행하도록 하였다. 말하기를 하기 전에 학습자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말하기를 준비하는 동안 생각을 정리하기 위하여 준비 메모가 허용되었다. 이때 학습자들이 작성한 메모들도 수집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어로 진행된 사후 인터뷰에서 학습자에게 과제 수행과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담화 자료와 같이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I-2>와 같다.

자료	자료의 종류	
취구시 이미시 시미버	의견 말하기 과제 준비	말하기 준비 메모
한국어 일대일 인터뷰	의견 말하기 과제 수행	한국어 담화 자료
중국어	중국어 담화 자료	

<표 I-2> 자료 수집의 방법 및 종류

인터뷰에서는 개인 정보와 같은 짧고 단순한 질의응답에는 준비 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나 주어진 질문에 대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수험자의 문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끌어내어 언어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Fulcher, 2005; Kim, 2006; 김정태, 2008 재인용). 그리고 주어진 주제를 준비하는 동안 노트 필기, 즉 준비 메모도 허용한다. 김정태(2008)에서 말하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작성한 메모가 화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sup>10)</sup> 김정숙 외(2007)에서는 이러한 인터뷰 피평가자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언어 이후의 질문을 계획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을 '웜업'이라고 하였으며, 김정숙 외(2007)에서는 인터뷰 과제가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에게 소개해 보라고 요청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말을 시작하는 부분은 '말 개시'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시험 전에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략적인 구어 사용 수준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고 제시한 바가 있다. 학습자들이 말하기 하는 동안 연구자의 개입을 취소화하고, 학습자가 긴장하여 질문을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두로 질문을 하고 이를 적은 질문지를 학습자가 보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런데 학습 자의 발화 시간이 너무 짧다거나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습자 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연구자가 다시 질문을 하거나 추가 질문도 준비하였다.11)

인터뷰에서의 질문은 개방형 과제로 학습자들이 정해진 답이 없음을 이미 알고수행하는 것으로서 학습자들이 길고 어려운 문장을 산출해 낼 수 있게 하는 데에유리하다(지현숙, 2007). 본 논문에서 제시한 3가지 유형의 질문들은 학습자에게하나의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도록 요구하는 개방형 과제로 학습자가 수행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려는 정도가 덜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과제를수행할 때 학습자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는 것을 요구받음으로써, 그 결과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도록 더 많은 언어를 재사용하여 발화하게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에게 제공한 질문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유형 $^{12}$ 이에서 질문이 여섯 개가 있으며 아래 <표 I-3>과 같다.

	1. 국제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석	3. 홈쇼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형	4. 혼전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 미성년자의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6.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કો મો.	1. 어떤 사람들은 중매결혼보다 연애결혼이 더 좋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				
찬반	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의견을 말해 주세요.				
논의형	2. 요즘 전자제품으로 전자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sup>11)</sup> 이동연(2010)은 독백 형태의 시험에서 만약 학습자의 발화시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에는 교사가 몇 가지의 질문을 던져 학습자의 발화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하다

<sup>12)</sup> 민병곤(2008: 131)에서는 논제의 성격에 따라 기본적으로 분석·평가를 목적으로 한 텍스트, 찬·반 논의를 목적으로 한 텍스트,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텍스트 등으로 텍스트의 하위분류를 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텍스트 범주에 따라 자기의 관점을 밝히는 일방적인 의견 말하기에 관한 과제 주제도 이러한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종이 책이 없어도 된다는 관점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의견을 말해 주세요.

- 3. '인터넷에서는 모든 행위를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의견을 말해 주세요.
- 4. 여자들이 결혼 후에도 일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의견을 말해 주세요.
- 5. 젊은이들이 결혼 후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의견을 말해 주세요.
- 6. 부모들이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는 현상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의견을 말해 주세요.
- 1. 최근 출산율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2.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3.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낮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해결책 제시형

- 4.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개인 정보 노출 문제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5. 법적으로 미성년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미성 년자가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 고 생각하세요?
- 6. 요즘은 중국의 학교나 부모님들이 중국어보다 영어의 중요성을 더 강조 하고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과 현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표 I-3> 인터뷰 질문

인터뷰 상태가 양호하지 않거나,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분석한 인터뷰 자료는 총 20명 학습자의 60개 담화 자료이다. 한국어 일대일 인터뷰에서 인터뷰 대상자인 20명 학습자는 세 가지 질문 유형을 하나씩, 총 세 개 질문을 대답하였다. 질문의 선택은 연구자가 무작위로 미리 정한

것이며 한 질문은  $3\sim4$ 명 학습자에게 분배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 I-4>와 같이 한 질문에 대한 담화  $3\sim4$ 개를 수집하여 인터뷰 담화는 충 60개를 수집하였다. 중국어 사후 인터뷰는 담화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였다.13)

질문 유형	질문	학습자 번호	수집한 담화 수		
	1	1, 5, 12, 19	4		
	2	4, 10, 16	3		
분석 평가형 질문	3	3, 9, 13	3	20	
신 기 경기 경 건 신	4	2, 6, 15, 18	4	20	
	5	20, 7, 14	3		
	6	8, 11, 17	3		
	1	3, 7, 15	3		
	2	4, 10, 14	3	20	60
찬반 논의형 질문	3	6, 12, 19	3		
선단 드여경 근단	4	1, 9, 17, 20	4		
	5	5, 11, 16	3		
	6	2, 8, 13, 18	4		
	1	7, 10, 15	3		
	2	2, 12, 19	3		
해결책 제시형	3	6, 9, 13, 18	4	20	
	4	5, 8, 17	3		
질문	5	4, 11, 16	3		
	6	1, 3, 14, 20	4		

<표 Ⅰ-4> 질문 유형별 학습자의 담화 수

본 연구에서 20명 학습자의 발화는 모두 녹음되어 반복 청취를 통하여 전사되었다. 한 명은 20분 정도이고 인터뷰 담화의 녹음 시간은 총 430분이었다. 인터뷰 담화는 녹화가 아닌 음성 녹음이기 때문에 연구자와 학습자의 비언어적인 요소는 기록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녹음된 담화 중에 연구자와 학습자의 특이한 억양, 자연스럽지 않은 휴지, 웃음 등 본 연구의 목적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는 최대한 전사에 옮기도록 노력하였다. 전사는 발음대로 적지 않고 철자법을 지켜 하

<sup>13)</sup> 중국어 사후 인터뷰에서는 학습자에게 메모를 작성할 때 왜 그렇게 썼는지, 말하기 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자기가 준비했을 때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는지, 자기의 관점을 다 표현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단계로서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단지 의견 말하기 과제 수행 효과를 확인할 때 사용하였다. 따라서 60개 담화자료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는 것을 원칙으로 학습자의 잘못된 발음은 발음 나는 대로 전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사 체계는 제퍼슨(Jefferson, 1974), 진제희(2006), 한상미(2005)의 전사 체계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본 연구의 담화 분석을 위해 전사 기호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기호 표시	기호 표시 의미
R	연구자
S숫자1-숫자2	학습자(숫자1)의 (숫자2)번째 질문에 대한 발화 (예: S11-2
2大小1一大小2	는 11번 학습자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발화이다.)
	자연스러운 역양으로 발화가 끝나는 서술문·명령문·청유문.14)
,	발화 중에 나타나는 초 단위 미만의 짧은 휴지
:::	길게 발음 (: 1초, :: 2초, :::3초)
	질문의 상승 역양
1	질문이 아닌 경우의 상승 역양
7	하강 역양
~	말 끌기
< >	비언어적인 행위
(0.0)	휴지 시간 (초 단위)
(글자)	학습자가 말하는 동안 연구자의 발화
(???)	발화 중간에 잘 들리지 않는 부분
0 0	고유명사 대신 사용

<표 I-5> 전사 기호

Ⅱ장에서는 의견 말하기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을 고찰하고, 중국에서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현황과 학습자들이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난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수집한 담화 자료를 언어 사용측면, 담화 구성 측면 그리고 전략 사용 측면에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특징에 맞는 의견 말하기 교육 목표와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up>14)</sup> 조금 내림, 많이 내림, 약간 올림, 끌면서 내림 등 다양한 억양이 존재한다.

# Ⅱ. 한국어 의견 말하기 교육의 이론적 전제

## 1. 의견 말하기의 개념과 위상

#### 1) 의견 말하기의 개념

말하기는 자신이 의도한 내용을 음성 언어를 통하여 표현하는 언어 기능이다(노명완, 1992: 4). 말하기는 의사소통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말하기의 어려움은 의사소통을 위하여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즉, 혼자서 아무리 잘 준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데 실패한다면 성공적인 말하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말하기란 상대방의 말을 듣고 판단하여 자신의 의도에 맞게 의미의 형태로 정리하여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5)

말하기의 유형은 그 분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우선 말하기 장면의 성격에 따라 사적인 말하기와 공적인 말하기로 나눌 수 있고 말하기 장면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의 태도와 양 쪽의 관계에 따라 일방적 말하 기와 쌍방적 말하기로 나누 수 있다.

말하기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써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말을 한다. 화자는 청자의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자신의 주장을 펴기도 하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질문과 요청을 하기도 한다(김미연, 2004: 12). 따라서 화자는 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말을 한다. 화법이나 말하기 교육을 위하여 이용되는 일반적인 분류는 말하기의 목적이나 참여자의의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임지룡 외(2013)는 말하기의 목적은 정보 전달, 설득, 문제 해결,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실생활과 관련지어 보면, 설명하기, 설득하기, 친교 나누기, 정서 표현하기의 네

<sup>15)</sup> 여기에서 말하기를 이해하려면 우선 말 자체의 특성을 살펴야 하며,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하여 말하기의 과정과 원리를 고찰하여야 한다. 음성언어 자체의 구조적인 특성으로는 음성언어기호의 선조성, 발화음성의 즉시 소멸성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직접 대면성, 음성언어의 제약성을 들 수 있다. (박영목 외, 1995. 김미연, 2004 재인용)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았다. 국어교육에서 말하기 유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말하기의 의도나 목적을 기준으로 정보 전달적인 말하기, 설득적인 말하기, 사회적 상호작용의 말하기, 정서 표현의 말하기로 분류하고 있다. 위에서 목적에 따른 말하기의 유형과 대응하면 정보 전달적인 말하기는 설명하기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말하기는 친교 나누기로 이해할 수 있다.

설명하기는 미지의 사실이나 아직 이해되지 않고 있는 사실의 의미를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상세하고 분명하게 밝히어 말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로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다(구현정·전정미, 2011: 193). 설명하기의 주요한 기능은 상대방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며, 이것은 필수사항이라기 보다는 경향이다(Brewer, 1980). 또한 설명하기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상 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김수형·전희숙, 2012). 정보 전달적인 설명하기의 유형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 사건, 장소에 관하여 그것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는 서술하기와 어떤 이슈나 개념, 혹은 신념에 관하여 왜 그러한지를 밝히는 설명하기가 그것이다(김상희 외,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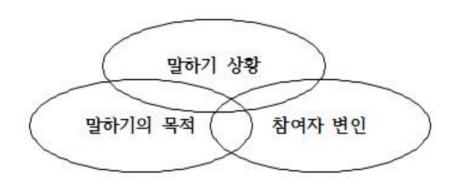
설득하기는 화자 자신이 옳다고 믿거나 바라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어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말하기의 한 유형이다. 설득은 일상적인 대화 상황뿐만 아니라 대중 연설과 같은 공적인 말하기에서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설득의 메시지에는 화자의 주장이 담겨있으며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김상희(2007)에 따라 설득 담화는 청중의 동의를 얻어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태도 변화를 위한 담화와 청중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 촉구를 위한 담화로 나눌 수 있다.

'의견'이란 되풀이 하자면 어떤 일에 대해 '예'인가 '아니오'인가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바람직한가? 어떤 기획을 진행시켜야 하는가? 어떤 사건의 원인은 정말로 그것일까?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와 '아니오'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의견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설명하기와 설득하기의 모든 말하기는, 그 목적과 종류

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설득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청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 혹은 내 생각에 대해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의견 말하기는 내가 가진 정보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더 나아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본질적으로 설득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견 말하기는 어떤 주제나 현상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 주장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화자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자기의 주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말하기 유형이므로 설명하기와 설득하기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의견 말하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화자의 의견, 주장이며,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고 합리적인 논거를 통하여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말하기의 유형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말하기의 목적 외에, 말하기의 상황, 참여자의 참여 방식도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즉 이러한 세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화자의 말하기 내용 $^{16}$ ), 표현 방식, 태도 등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전은주,  $^{2008}$ ). 아래 [그림 II-1]을 보자.



[그림 Ⅱ-1] 말하기의 형태 결정 요인(전은주,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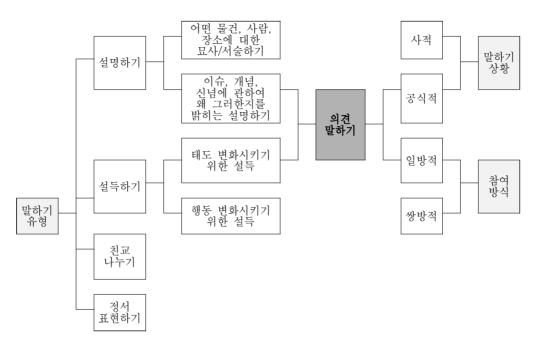
<sup>16)</sup> 물론 말의 내용을 결정짓는 것은 말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화자가 화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화자마다 각자 다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본 연구의 대상이 중국인 대학생이므로 여기서는 일단 말의 내용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배경 지식'부분은 배제하겠다.

그 중에서 말하기의 상황은 격식성의 유무에 따라 공식적과 비공식적 말하기로 분류되며 말하기의 참여 방식은 의사소통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분류된다. 전은주(1999: 79)는 이 세 개 요인이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따라 아래 <표 II-1>과 같은 다양한 담화 유형을 제시하였다.

상황	공식적 말하기		비공식적 말하기	
참여방식 목적	일방적 말하기	쌍방적 말하기	일방적 말하기	쌍방적 말하기
설득	연 <u>설</u> 강의	토의, 토론, 회의, 인터뷰 응하기		
설명(정보전달)				대화
정보수집		인터뷰하기		
친교 및	식사(式辭)	극본대로	독백	
정서표현	구연(口渡)	말하기		

<표 Ⅱ-1> 말하기의 유형(전은주, 1999: 7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학습자의 주된 목적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즉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와 문화의 실제 상황 속에서 목표언어를 의미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문법적 지식과 언어 사용능력, 사회문화적 요인, 전략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발화 맥락에 적절하게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단계별로 중점을 두고 학습하는 말하기 유형이 다르지만 위에서 서술한 네 가지유형은 한국어 학습자들도 학습하게 되는 유형들이다.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의견 말하기는 설명하기나 설득하기를 포함하며, 화자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자기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 말하기의 개념을 도해하면 다음 [그림  $\Pi-2$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Ⅱ-2] 의견 말하기의 개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견 말하기는 인터뷰 담화에서 어떤 주제나 현상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 주장을 논리적으로 혼자서 길게 말하는 것으로, 설명하기(정보 전달하는 말하기)와 설득하기(설득하는 말하기)를 포함하여, 화자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자기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말하기 형태 속에서 차지하는 말하기 유형적 특성을 정리하자면 공식적 말하기이면서 동시에 혼자 말하기(독화 형식)의 범주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즉 일대일의 공식적 의사소통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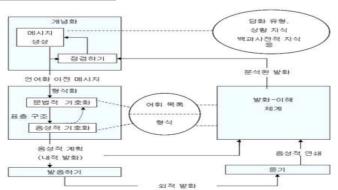
#### 2) 한국어 교육에서 의견 말하기의 위상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외계의 자극을 받은 후에 그것에 대해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는데, 이 욕망이 머릿속에서 사고를 거쳐 한국어로 기호화되고 그것이 다시 음성언어로 발음되는 과정이 바로 말하기의 본질이다. 한국어로

의 의사소통하는 것이란 바로 학습자들이 자기가 말하려는 내용을 한국어로 기호화하고 그것을 음성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르펠트(Levelt, 1989)의 정보처리모형17)은 연속적 모형이나 평행적 사고 작용 모형에 비해 언어 맥락적인 관계에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자 하였다(조수진, 2010). 말하기를 음성언어로 발화하기전에 메시지를 생성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 음성으로 실현되기 전에 머릿속에서 문법적 구조와 음성 기호로 형식화 된 단계를 거치며, 그 다음에 '내적 발화'의단계를 지나 음성으로 실현하는 단계이므로 '발음하기'를 통하여 외적 발화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은 한국어 교육에서 말하기 교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에 적합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인 대학생 고급 학습자들은 모두 성인 학습자인 만큼, 모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기능, 전략 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고려해야 한다. 18)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화법에 대한 지식, 기능, 전략 등을 모두 다룰 필요는 없다(전은주, 2009). 또한 한국어 학습자들은 말할 내용에 대한 개념화 단계가 언어적인 표현을 하는 단계와 구분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쳐 발화할때까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듯이 보이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한국어 학습자들은 각 단계에 따른 능력의 차이가 있다(조수진, 2007).

말하기 교수·학습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은 음성 언어 의사소통에 관한 일



- 17) 르펠트(1989: 9)의 말하기 정보 처리 모형은 발화하는 과정은 내적 발화와 외적 발화로 구분하여 위의 그림과 같다. (조수진, 2007 재인용)
- 18) 성인의 한국어 학습자이지만 구어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기능, 전략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고 있는 학습자는 4년제 대학교 학생들이라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제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반적 지식, 담화의 목적과 유형에 맞게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 특수적인 지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서영진, 2010). 말하기 교육 내용 구성을 유형화함에 있 어 전은주(2007: 409)에서는 '지식 중심형', '담화 중심형', '복합형'으로 구분하였 다. 그 중에서 '담화 중심형'은 특정 담화의 상황과 목적, 종류에 적절한 담화를 생 산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이해하게 한 다음에 담화를 실제적으로 수행하 면서 익히도록 진행하는 교육 내용 구성 유형으로 말하기 교육에 대한 여러 논의 를 통하여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도영(2006)은 말하기의 구성 요소인 '상 황, 참여자, 메시지, 매체, 효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나는 '담화'를 말하기 교육 내용 의 요소로 제시하고 담화 중심으로 내용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병곤(2006ㄱ)에서는 말하기 교육의 중핵적 목표를 음성 언어 장르의 운용 능력 을 신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학습자 특성, 담화의 내용과 형식, 교육 자료의 체 계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담화 유형들을 발굴하고 선정해야 함을 지적하 였다. 이창덕(2007)에서도 담화 유형을 중심으로 담화 유형별 체계에 대한 지식과 점검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담화 유형을 중 심으로 말하기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교육적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 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비모국어 환경의 한국어 교육인 만큼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가 많지 않다. 따라서 4년제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많이 만들고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의미 없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말하기 유형을 익히고 나서야 고급 학습자로서의 말하기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다(원회영, 2001). 이상적인 한국어 학습자는 실제적인 언어 상황에서,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 교육에서 추구하는 실제성은 언어 사용의 맥락에서 실제 세계에서 접해야 하는 다양한 담화상황과 유형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말하기 활동은 어떤말하기 활동을 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그 특정한 담화에서 이루어진 말하기의 내용을 분석해 보고 잘한 부분을 함께 배우고 잘못된 부분은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비모국어 환경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여러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겁 게 말하기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을 익혀야 한다. 1.1에서 제시하였듯이 말하기는 상황에 따라 공식과 비공식으로, 목적에 따라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말하기 유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면 말하기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원희영, 2001). 한국어 말하기에서 일정한 형식, 주어진 상황, 관용적 표현 등은 의도적으로 학습하지 않고서는 익히기가 어렵다. 대학에서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목표가 한국어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이므로 사적 말하기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공적 말하기 교육의 중요성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홍은실, 2014). 즉공식적인 말하기와 사적인 말하기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만약에 한 부분에만 치중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하면 교사가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이처럼 중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대학생 학습자들의 생활 주변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소재로 한 의견 말하기 활동이 학생의 말하기참여도를 높이고, 기초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제일 많이 표현해야 할 말하기 유형 중의 하나는 한국어로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의견 말하기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의견 말하기는 어떤 주제나 현상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 주장을 논리적으로 혼자서 길게 말하는 것으로, 화자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자기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나중에 한국에 유학을 가거나 한국계 회사에서 취직하게 되었을 때, 사적인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능력이 필수불가결하며 다른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담화 유형 중 하나이다. 이 때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능력과 한국어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의사표현 능력이 함께 요구된다.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말하기에서 사적으로는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공적으로는 평가를 받는 것에서 의견 말하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전공으로하는 고급 학습자를 위하여 공식적인 담화 상황에서 한국어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발화하는 능력을 신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알게 된 것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비모국어 성 인 학습자로서 말을 생성하는 개념화 단계가 언어적인 표현을 하는 단계와 구분되 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모국어 환경이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특정한 상황에 서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는 활동이나 과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말하기 유형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습자들은 깊이 있는 사고 활동의 결과로 말할 내용을 생성하는 경우보다 기계적인 반응으로 발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은 간단한 대화의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으며,이에 반하여 완결성 있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능력이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의견 말하기를 말하기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 2. 의견 말하기 능력의 특성

본 논문은 중국 대학 학습자들은 인터뷰 담화에서 일방적인 의견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기하기 위하여, 먼저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양상을 분석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의견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와 기준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 우선 말하기 능력 평가 범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고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를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터뷰 담화에서 일방적인 의견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1)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

말하기 능력, 즉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1979년대 이전까지의 학자들은 언어에 관련된 능력을 언어 능력 (competence)과 언어 수행(performance)으로 나누고 선천적인 언어 습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히려는 데 관심을 쏟고 있었다(이을지, 2007: 23). 그 후부터 언어의 다양한 층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논의가시작되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정의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의사소통 능력 모델을 설정하기 위한 여러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는 커넬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의 분류와 바흐만

(Bachman, 1999)의 분류이다. 커넬과 스웨인(1980)은 실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언어지식과 기술을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법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을 들고 있으며 아래 <표 Ⅱ −2>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언어기호 숙달의 문법적 요소와 둘째, 의사소통이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언어를 사용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사회언어학적 능력, 셋째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화되는 말과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전개함으로써 언어 문법적 형태와 의미를 결합하는 담화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발생하게 되는 변수, 또는 불충분한 언어능력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효과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지식으로 전략적 언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한 사람의 말하기 능력을 형성하게 된다.

구성 요소	내용				
문법적 능력	어휘, 형태, 통사, 의미, 음운 규칙				
사회언어학적 능력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능력				
담화적 능력	담화에 사용된 문장들을 연결하고 연결된 하나의 발화로부터				
	전체 의미를 조합해내는 능력				
	불충분한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 상의 변인으로 인하여				
전략적 능력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하여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				

<표 Ⅱ-2>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Canale & Swain, 1980)

국내에서 지금까지 나온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다수는 말하기 능력의 평가 범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진숙(1992)에서는 커넬과 스웨인(1980)의 연구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을 목표로 발음, 어휘, 형태/통사를 포함한 문법적 언어 능력, 담화적 구성능력(내용, 표현단위, 언어기능, 응집장치, 유창성), 사회 언어학적(상황과 청자, 화자에 맞는 사용)의 세 가지 말하기 능력을 말하기 능력 평가 범주로 삼고, 커넬과스웨인(1980)의 이론에서 포함시킨 전략적 능력은 언어 외적인 특성을 이유로 제외시켰다.

전은주(1997)에서는 문법적 언어능력의 구성 요소를 문법능력, 어휘능력, 발음 능력으로 세분화하여 나누고 담화 구성 능력의 요소로 구성력으로 평가 범주를 나 누었다. 그리고 사회 언어학적 능력, 의사소통적 전략과 과제 수행력 등으로 설명 하였다. 여기서 과제 수행력이란 말하기를 통하여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는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문선희(2005)에서는 말하기 평가 범주는 크게 '지식 범주, 기능 범주, 태도 범주'로 나누고,<sup>19)</sup> '기능' 범주는 발음 및 발성,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과 전달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내용 생성으로 재미있는 화제를 선정하는가, 주제에 맞게 말하는가 등이고, 내용 조직으로 순서를 지키며 대화에 기여하는가,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꾸며서 말하는가 등을 들었다. 표현과 전달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는가, 생각과 느낌을 잘 표현하는가, 문법에 맞게 말하는가 등을 평가하였다.

강승혜(2005)에서는 고급 수준의 말하기 활동이나 이를 평가하는 도구 등의 개 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서 출발하여 언어능력을 평가할 범주인 유창성, 정확성, 다양성, 적절성, 논리성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보고, 발표(일방적 독백)와 상호작용적 대화(좌담회, 토론 등)평가를 위한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 범주를 달 리 구분하여 세부항목도 제시하였다.

김정숙 외(2006)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말하기 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말하기 능력 평가 범주를 과제 수행, 주제, 내용 구성, 어휘/문법, 발음, 유창성, 사회언어적 능력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안하였다. 안미란 (2007)에서는 한국어 숙련도의 범주를 설정하여 각각 척도들에 도달해야 할 수준을 제시하며, 크게는 구어 산출(말하기), 언어적 능력, 구어 상호작용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 말하기 살출 부분에서는 혼자 연속적으로 말하기, 혼자 길게 말하기, 논쟁하기 등의 세부적인 분류를 서술하고, 언어적 능력으로는 어휘 영역, 문법적 정확성을 제안하였다. 전나영 외(2007)는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구성요소를 크게 언어적 능력과 화용적 능력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 언어적 능력은음운론적 능력, 형태론적 차원의 언어적 능력을 제시하였고, 화용적 능력은 담화차원에서의 논리적 구성을 보는 언어적 능력과 기능 수행, 그리고 사회 문화적 능력을 중심으로 범주를 나누었다.

<sup>19)</sup> 문선희(2005)에서는 개념적이고 절차적 지식의 차원의 '지식' 범주의 내용 요소는 말하기 수행 평가의 중요한 준거가 되는 수행성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말하기의 평가 범주 요소를 '기능'범주를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였다.

박광진(2009)에서는 일방적 말하기 활동으로 학문 목적 말하기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 구성 요인을 설정하였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신의생각을 명료하고 조리 있게 전달하는 내용 구성 능력이고, 다음으로는 과제들을최종적으로 얼마나 완성도 있게 수행해 냈는지의 과제 수행력이다. 세 번째 말하기 구성 요소는 적절하고 풍부한 어휘와 문법의 정확한 사용이고, 네 번째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발음과 억양'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설정한 구인은 청중과 이루어진 상호작용이며 자신감 있는 태도, 상황에 적절한 공손한 행동 등을 포함한 말하기 구성 요소이다. 김정숙(2010)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평가 범주로는 과제 수행능력, 언어적 능력, 담화 능력, 사회 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을 세웠고 각각의세부 요소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과제 수행 능력에서는 수행하도록 의도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주제 이해 능력, 적절한 상호작용이 있고, 출제자의 의도와 일치하여 기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토대로 관정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 -3>과 같다.

연구	말하기 능력의 평가 범주				
원진숙(1992)	문법적 언어 능력, 담화 구성 능력, 사회 언어학적 능력				
전은주(1997)	문법적 언어능력, 담화 구성능력, 사회 언어학적 능력, 의사소통적 전략과 상호작용, 과제 수행력				
문선희(2005)	발음 및 발성,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과 전달				
강승혜(2005)	유창성, 정확성(어휘/문법의 정확성, 내용의 명료함), 적절성(어휘/문법의 적절한 선택과 사용, 내용/표현의 적절성 등), 논리성(내용 선정·조직, 내용연결, 논리적 전개 등), 기타(전략 사용, 언어수행 능력 등)				
김정숙 외(2006)	과제 수행, 내용 구성, 어휘/문법, 발음, 유창성, 사회언어적 능력				
안미란(2007)	언어적 능력(어휘 영역, 문법적 정확성), 구어 산출(구두 의사소통 전반, 혼자 연속적으로 말하기, 경험을 서술하기, 혼자 길게 말하기, 논쟁하기, 대중 앞에서 말하기), 구어 상호작용(구두로 하는 상호작용 전반, 모어 화자인 대화 상대자 이해하기, 형식적인 토론과 비평, 정보 교환)				
전나영 외(2007)	언어적 능력(음운, 문법, 어휘, 담화), 화용적 능력(기능, 사회문화 언어적 능력)				
박광진(2009)	발음과 억양, 어휘·문법, 담화 구성, 과제수행력, 상호작용				
김정숙(2010)	김정숙(2010) 과제 수행 능력, 언어적 능력, 담화 능력, 사회 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				

<표 Ⅱ-3> 말하기 능력의 평가 범주 연구 정리

이상의 말하기 능력의 평가 범주에 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면 다음<표 Ⅱ-4>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구성 요소	내용					
시시 기 이 노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발음과 억양					
언어 사용 능력	적절하고 풍부한 어휘와 문법의 정확한 사용					
	과제들을 최종적으로 얼마나 완성도 있게 수행해 냈는지의					
담화 구성 능력	과제수행력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조리 있게 전달하는 내용조직 능력					
기라키 사동기 O	불충분한 언어능력으로 이해 어려움을 만날 때 효과적인 전략의					
전략과 상호작용	사용					
사회언어적 능력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 능력					

<표 Ⅱ-4>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

우선 언어 사용 능력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발음과 억양으로 말하는 능력과, 어휘·문법을 정확하고 적절하며, 더 나아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 뉜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담화 구성 능력이며 주어진 과제를 완결성 있게 잘 수 행하는 과제 수행력과 말하기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내용 조직 능력 으로 나누어진다. 그 다음 설정한 구인은 청중과 이루어진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 능력이다. 마지막으로는 상황과 청자, 화자에 맞는 경어, 높임법, 호 칭 등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사회 언어학적인 능력이다.

## 2) 의견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즉 사상과 감정을 상호작용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습자들은 이미 모국어인 중국어로 말하기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식·기능·전략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학습자들이 일대일 인터뷰에서 한국어로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2.1에서 정리한 말하기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의견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를 설정하고자 한다.

일반 목적의 말하기 능력의 평가와 달리, 학문 목적, 직업 목적 등으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습자의 언어 능력 평가에서는 언어 능력의 모든 측면을 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언어를 사용하게 될 상황을 고려하여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가려내야 한다. 더글라스(Douglas, 2000: 36-40)에서는 외국어 평가의 구인을 결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하위 능력, 전략적 능력, 내용적 지식 등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말하기 능력의 특징은, 학습자들이 목표로 하는 '부분적인 언어 능력'(Council of Europe, 2007:8)이라고 보인다(안미 란, 2008). 서영진(2010)에서는 말하기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은 말하 기에 관한 일반적 지식과 담화의 상황과 목적, 종류에 맞게 말하기를 실제 수행하 는 데 필요한 특수적 지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전은주(2007: 409) 에서는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내용 유형화함에 있어. 일반적 지식 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특수적 지식에 초점을 맞추는 유형으로 나누었다. 홍은실 (2014: 39)에서는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이며 긴밀한 관련성 을 맺고 있기에 경계를 실선으로 긋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말하는 목적이나 언어 습득의 목적에 따라 경계를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밖에 없다고 제시한 듯이, 본 연 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는 특정한 상황, 즉 인터뷰 담화에서의 의견 말하기 담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터뷰의 본질적인 형태 가 일방적인 말하기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한 과제, 목적에 맞도록 말하기 구성 요소들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담화에서의 일방적인 의견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를 설정할 때, 일반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두루 다루는 일반적인 요소와, 특정 담화와 목적-즉 공식적인 일대일 인터뷰 담화에서의 일방적 의견 말하기에 적절한 말하기능력 요소를 결합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다.

'언어 사용 능력'은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때 상황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인터뷰 담화에서 의견 말하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풍부한 어휘와 문법의 정확한 사용은 담화를 생산해 내는 기본 바탕을 이루는 내용이므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국어 수준이 높아질수록 말하기의 자연성 및 유창성에 초점을 맞춘 학습이 필요하며20) 수준이 높지만

<sup>20)</sup> 브럼핏(Brumfit, 1984)은 학습 초기는 교수요목에 근거를 둔 정확성의 신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수업 시간이 많아질수록 유창성 신장을 위한 학습활동이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스럽지 못한 말하기는 청자의 호감도를 떨어뜨린다. 따라서 의견 말하기의 유 창성과, 어휘, 문법, 표현 문형 등의 정확하고 다양한 사용이 인터뷰에서 의견 말 하기 능력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인터뷰에서 의견 말하기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담화 구성 측면에서 의 능력 요소이며, 다시 나누면 과제 수행과 내용 조직이다. 과제 수행은 최종적으 로 과제를 얼마나 완성도 있게 수행해 냈는지, 질문에서 기대하였던 의도와 같이 과제를 완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이고, 내용 조직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 을 명료하고 조리 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주제와 관련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을 긴밀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인터뷰 담화에서의 일방 적 의견 말하기는 학습자의 의견을 밝히는 담화로서 청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 거나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주장을 전달하는 담화에서는 어휘와 표현의 선택도 중요 하지만, 화자 자신이 가진 생각을 청중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하 여 내용 전달의 선정, 순서, 구성 등이 더 중요하다(김상희, 2007). 따라서 의견 말하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면 단순한 문장의 나열이 아니고 내용 구성 측 면에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기 위하여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완결성 있게 수행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와 비슷하지만, 설명하기나 설 득하기의 담화 특성에 따라 주장과 근거를 서술하는 내용적인 특징이 분명히 다른 일반적인 말하기 능력과 다르기 때문에, 의견 말하기 능력의 특정한 구성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커넬과 스웨인(1980)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의사소통 능력 중 언어의 지식과 사용 측면에서 담화적인 요소뿐 만 아니라 전략적인 능력도 중요시해야 한다.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은 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떻게 생산적으로 의미를 전달할지와 연결되어 소통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실질적인 의사소통 말하기 능력을 목표로 함으로써 말하기 교육 관련 연구들은 '언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말하기 전략'에 대한 관심도 확장시켰다. 최정순(2006)에서는 전략적능력은 구체적인 의사소통 행위가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매개체이자 원동력이라고 하였다.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인 말하기에서 전략 능력의 구성 요소로 다루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코드 전환이다. 본고에서 연

구 대상은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고급 학습자이므로 주로 모국어인 중국어로 전환하여 말하기를 완성하는 현상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략 사용 능력을 구성하는 것은 바꿔 말하기 현상이다. 바꿔 말하기란 한국어로 자기의 주장이나 관점을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서술할 때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나 문법, 그리고 문장으로 바꿔서 말하거나 풀어서 말하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견 말하기의 특정한 전략 능력의 구성을 살펴보겠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인터뷰 담화에서 일방적인 의견 말하기를 하기 전에 1~2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주었으며 준비 메모도 허락하였다. 말하 기 과정은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의 생성에서부터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점검하 고 교정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고도의 인지적인 활동 과정이므로(김지연. 2003:19), 두 가지 형태의 지적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준비하기이며, 다른 하나는 준비한 내용을 음성언어로 표출하는 과정이다.21) 그러나 '계획하기'가 전체 말하기 행위에 있어 인지적인 과정이라고 본다면, '준비하기'는 과제에 대한 말하 는 사람의 지식을 조직하고 보완하며, 말하기 목적을 좀 더 완결성 있게 시현하기 위한 보조적 활동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말하기 전략 요소 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말하기를 준비할 때 말하는 목적, 말하기 장소와 시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하고(임지룡, 2013), 의견 말하기가 어떠한 주장을 펼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는 목적을 가질 경우에는 준비 단계에서 타당한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필요한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선정 한 화제를 구체화하여 필요한 내용만 메모하고, 나중에 말하기를 할 때 준비한 내 용을 일관되게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의견 말하 기에서 준비 메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전략 사용 측면에서 구성 요소 중의 하 나라고 설정하겠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견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를 일반적인 말하기 능력의 요소와 의견 말하기 능력의 요소로 나눠질 수 있 고, <표 Ⅱ-4>의 구성 요소 분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Ⅱ-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sup>21)</sup> 여기서 논하고 있는 말하기 준비의 과정은 계획하기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다룬다. 이외에도 준비하기 과정 뒤에서 계획하기, 표현하기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구성 요소	일반적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	의견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		
언어 사용	발음과 억양	의견 말하기와 관련한 정확하고		
	적절하고 풍부한 어휘, 문법 사용	· 다양한 어휘, 문법, 표현 문형의 사용		
담화 구성	크레 스퀘(케O 1471)	명료한 중심 주장과 그에		
	과제 수행(내용 선정)	뒷받침하는 합리한 근거 내용		
	ગોઇ ઝગ/મોમો\	설명하기와 설득하기를 포함한		
	내용 조직(방법)	논리적인 내용 구조		
717b 110	니 m 마구 기	중국어 코드 전환, 바꿔 말하기와		
전략 사용 	바꿔 말하기	준비 메모의 활용		

<표 Ⅱ-5> 의견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

# 3.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의견 말하기 교육

# 1)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현황

언어를 획득하는 기능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어느 한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에서 인간의 선천적인 기능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므로 모국어라고 하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이미 습득한 언어를 기초로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므로 외국어라고 한다(안병호, 2002). 모국어의 획득은 언어 습득이고 언어 학습은 교육을 통하여 모국어 이외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바로 한국어로의 의사소통 환경이 없는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의 현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말하기 교육의 방법이 단순하고 학습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며, 중국인 학습자들의 실제와 특성에 맞는 말하기 교수 방법연구가 깊이 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많은 대학에서의 한국어학과 과목 중 말하기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로의 의사소통 기능을 양성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기초 학과목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김순녀(2011)에 따르면 이 말하기 학과목 교수-수업이 다

른 학과목에 비하여 부진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그 구체적인 표현은 첫째, 학생들이 입을 잘 열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수업시간에 교수와의 호응이 잘 되지 않아수업 분위기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는 학생들의 한국어로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영(2012)에 따르면 중국 각 대학의 한국어 학과 1,2,3 학년에서 보통 교육부 의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개설하는 교양 과목이 한국어 강독 1-3과 한국어 시 청설(視聽說), 한국어 독해 등으로 교과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어 말하 기가 개설된 학교도 있지만 많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에서는 말하기 수업을 따로 개설하지 않으며 기초한국어나 한국어라는 수업에서 말하기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일반 말하기 교재는 구어 교재와 무역과 관련된 전문 지식 말하기 교재로 나누어 있으나 무역과 관련된 전문 지식 말하기 교재는 주로 고학년 학습 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 말하기 교재의 내용 대부분은 날씨, 병원, 쇼 핑하기 등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는 좁은 범위의 주제들이다. 그리고 텍 스트의 뒷부분에 새로운 단어와 문법에 대한 설명 등 언어 지식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특징도 언급하였다. 김순녀(2011)에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학생들의 소 질, 지식, 심리 요인, 그리고 담당교수들의 요인, 언어 환경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에, 중국에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은 다른 학과목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이 용하게 되는 것을 언급하였다. 즉 중국에서 한국어과를 개설한 대학들은 대부분 문법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말하기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형식적인 지식 학습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아직도 여러 방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이면 한국어로 대화 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으나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자기의 생 각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에는 어렵고, 특정한 담화 상황에서 특정한 말하기 기능을 수행할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국 대학의 실제 와 특성에 맞는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독립적인 사고와 인지의 중요성이다. 22)중국에서

<sup>22)</sup> 허친스(Hutchins, 1950: 133)는 대학은 거울이 아니라 횃불이며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명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하였다. 대학의 최상의 정의는 그것이 독립적인 사고의 센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는 좀 크지만 대학에서 독립적인 사고와 인지의 중요성을

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고 수능시험을 거쳐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고, 모국어인 중국어를 능숙한 후에 대학 과정에서 전공으로 한국어를 선택하여 4년 동안 학습하는 것인 만큼, 학습자를 위하여 한국어에 관한 언어 지식도 가르칠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말하기 상황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획득할 수있는 방법과 자기 자신의 지식을 언어 사용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고해야 할것이다. 또한 성인 학습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모국어 즉 중국어로 말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기능, 전략 등은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23)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화법에 대한 지식, 기능, 전략등을 모두 다룰 필요는 없다(전은주, 2009).

중국 4년제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 한국 어학원이나 어학센터에 다니는 일반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아니라는 점과, 대학은 단순히기능을 익히는 곳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력으로 학문 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원진숙(1999)에 따르면 대학이라는 '학문적 담화 공동체(academic discourse community)'에서는 학생들에게 배운 지식을 충실하게 소화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탐구하고 논리화하여 그것을 논술문의 형식으로 엮어낼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을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말하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또는 장향실(2006)에 따르면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학과의 고급 단계는 특정한 전문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자가 직접 자신이 사고한 바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단계이고 이는 해당전문 분야의 표현 방법, 구성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갖춘 말하기 단계이라고 서술한 바가 있다.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대학에서 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습자를 위해 '대학'이라는 큰 환경에 알맞은 교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어를 단지어떤 언어로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인지 등과 함께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 말하기를 수행할 때 학습자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자신의 언어능력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황과 맥락에 맞게 언어를 조작하여야

강조하였다.

<sup>23)</sup> 성인의 한국어 학습자이지만 구어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기능, 전략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고 있는 학습자는 4년제 대학교 학생들이라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제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다. 또한 문법 지식에 대한 교육에 멈추면 안 되고 학습자를 위하여 말하기를 할 기회도 많이 증진시키고 특정한 담화 상황을 만들어서 말하기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교육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 2) 의견 말하기 교육을 위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요구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의견 말하기 교육 내용과 방법을 탐색하려면 먼저 학습자들이 의견을 말할 때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의견을 말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기위하여 예비 조사로 2013.10.08.부터 2013.11.20.까지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50명의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중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이며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이다. 설문 내용은 대상자의 인적 사항,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어 능력시험 등급상황과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등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의견 말하기의 교육 실태와 학습자의 의견 말하기 담화 양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설문조사를 한 후에 학습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고 의견 말하기 과제를 제시하여 담화 자료를 총 21개를 수집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자 50명의 인적사항과 한국어 학습 정보는 아래 <표 II-6>와 같다.

	구별	빈도(명)	빈율(%)	
	21-23세	16	32%	
연령	24-26세	29	58%	
	27이상	5	10%	
서벼	남자	18	36%	
성별	여자	32	64%	
학습 기간	3년	17	34%	
	4년	21	42%	
	5년	7	14%	
	6년	5	10%	
언어 등급	5급	31	62%	
	6급	19	38%	
	계	50	100%	

<표 Ⅱ-6> 설문 대상자의 정보

조사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21-23세가 32%, 24-26%가 58%, 27세 이상이 10%로 나타나 대체로는 24-26세인 대학생들이며, 성별은 남자가 18명으로 36%, 여자 학습자가 32명으로 64%를 차지한다.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한 기간에 대한 조사를 보면 모든 학습자의 학습 기간은 3년 이상이고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5급을 취득한 학습자가 31명으로 62%이고 6급을 취득한 학습자가 19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에비조사에는 말하기 교육의 필요성과 학습자들이 인터뷰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견 말하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각별 학습자에게 의견 말하기 과제와 중국어 인터뷰를 심층적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설문 대상 학습자들에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하기 유형을 순서대로 답하는 항목에 가중치24)를 적용한 결과는 다음 <표 II -7>와 같다.

	말하기 유형	1위(명)	2위(명)	3위(명)	4위(명)	가중치	비율25)(%)
1	의견 말하기	36	9	5	0	181	36.20%
2	묘사/서술하기	9	26	10	5	139	27.80%
3	친교 나누기	5	10	25	10	110	22.00%
4	정서 표현하기	0	5	10	35	70	14.00%
	계	50	50	50	50	500	100%

<표 Ⅱ-7>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하기 유형

학습자들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의견 말하기'를 꼽았고 '묘사/서 술하기'는 두 번째 순위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말하기 상황을 붇는 질문에 대하여 다음 <표 II-8>와 같이 응답하였다.

순	말하기 상황	1위	2위	3위	4위	가중치	비율
서	들아가 경광	(명)	(명)	(명)	(명)		(%)
1	공식적인 일방적 말하기	29	21	0	0	179	35.80%
2	공식적인 쌍방적 말하기	18	19	13	0	155	31.00%
3	사적인 일방적 말하기	3	10	26	11	105	21.00%
4	사적인 쌍방적 말하기		0	11	39	61	12.20%
	계	50	50	50	50	500	100%

<표 Ⅱ-8>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하기 상황

<sup>24)</sup> 가중치=(본 항목을 1위로 선정한 학습자 수)×5(항목수)+(2위로 선정한 학습자 수)×4+...+(5위로 선정한 학습자 수)×1

<sup>25)</sup> 비율=(해당 항목의 가중치)/(가중치의 제)

위에서 <표 Ⅱ-8>와 같이 학습자들은 말하기 상황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공식적인 일방적 말하기'라고 답하고 있다. 이 항목 또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각 순위별의 가중치를 계산해 본 결과는 "공식적인 말하기 > 사적인 말하기', 그리고 '일방적 말하기 > 쌍방적 말하기'의 순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설문 조사에서 대상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로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을 물었을 때, 학습자들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 각 구성 요소의 순서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위에서 2절에서 정리한 말하기 능력 요소를 바탕으로 문법, 어휘, 표현 문형, 의견 내용 생성, 의견내용 구조, 전달 과정 부분 등으로 나누었다. 학습자들이 해당 항목을 몇 순위로 선정하는지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는 다음 <표  $\Pi-9>$ 과 같다.

순	그러 이 시	1위	2위	3위	4위	5위	가중치	비율
서	구성 요소	(명)	(명)	(명)	(명)	(명)	가중시	(%)
1	표현 문형	23	27	0	0	0	223	29.73%
2	문법/어휘	12	23	9	6	0	191	25.47%
3	전달 과정	15	0	23	5	7	161	21.47%
4	내용 구조	0	0	11	39	43	154	20.53%
5	내용 생성	0	0	7	0	0	21	2.80%
	계	50	50	50	50	50	750	100%

<표 Ⅱ-9> 중국인 고급 학습자 의견 말하기의 난점

위의 표와 같이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말하기를 할 때 구절 단위인 '표현 문형'의 사용이고, 말하기를 할 때 '문법과 어휘'의 사용 부분은 두 번째 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에는 '전달 과정'에서 한국어로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이고, 의견 말하기를 하기 위한 내용 구조와 내용 생성 부분은 네 번째와 마지막 다섯 번째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 중의 일곱 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의견 말하기 과제를 시킨 후 사후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사후 인터뷰에서는 한국어 말 하기에서 어렵다고 느낀 것과 의견 말하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지 금까지의 의견 말하기 교육 이수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사후 인터뷰를 통 하여 학습자들이 한국어 고급학습자로서 한국어를 4년 동안 공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체계적으로 한국어로 자신의 의견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 대학이라는 비모국어 환경에서 스스로 말하기 공부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말하기 학습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平常会话课上都是机械性的练习,或者和老师对话,很少能有从头到尾自己说话的机会。对于刚才的那些问题我其实都有自己的想法,但是让我用韩语完整的表达出来很难,找不到丰富的句式还有语气,所以很多想法就果断放弃不说了。"

(보통 말하기 수업에서는 기계적인 말하기 연습만 해요. 아니면 선생 님과 대화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말하기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방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다양한 생각 과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서 많은데, 한국어로 완전하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확하고 다양한 문형이나 말투를 잘 몰라서 아예 저의 하고 싶은 말을 표기했어요.)

*【학습자3-6급】*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의견을 말할 때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표현 문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실수할까봐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자신이 있는 제한된 문형, 문법만 반복적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인터뷰 사례를 살펴보자.

"其实我想说的话比刚才说的能多十倍,只是我还得花时间去想很多的语法,词汇,还有句式和常用句型,所以干脆我就只重复使用一些熟悉的句式了,结果我想表达的想法就不得不受限制了。刚才的那些问题其实不难,我想说的话还有很多来着。"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10배 더 많았어요. 근데 표현이나 문법, 문형을 생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차라리 익숙한 문형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말하는 내용도 좁혔어요. 그런 주제나 내용은 어렵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학습자5-6급】* 

공식적인 일방적 말하기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내용 생성이나 내용 조직 측면에서 어렵지 않고, 언어적인 어려움이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다 말할 수 없다고 대부분 학습자들이 응답하였다.

"口语表达的内容不是问题,内容的结构组织方面也不难,毕竟类似的回答问题模式已经掌握了,就是表达的时候会有不会说的搭配,所以我只有选择另一个固定搭配表达,但意思一般会有差别的。这些语言表达上的局限让我没办法把内心想到的店都告诉你,所以我说话就开始没有条理了。"

(말하기를 할 때 내용 생성과 구성 측면에서는 문제 별로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틀은 다 파악했으니까요. 하지만 표현 단계에서 모르는 문형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다른 문형으로 바뀌서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도 바뀌지겠 지요? 그래서 언어 표현적인 어려움이 저의 생각을 제한적으로 좁히고 조리 없어 보이기도 해요.)

**[**학습자6-5급]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공식적인 일방적 말하기 상황이 가장 어렵 고, 말하기 유형 중에 자신의 의견을 완전하게 말하는 의견 말하기는 가장 어렵다 고 설문 조사의 결과에서 나왔다. 또한 이렇게 공식적인 인터뷰 상황에서 의견을 말할 때 한국어에서 정형화된 표현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응 답하였다. 어떤 일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고 조직하는 과정,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반면에, 어떻게 자기가 준비한 모든 생각과 내용을 효율적으로 한국어로 전환하여 한국어로 적당하게 표현해 낼 수 있 는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법과 어휘의 선택과 상기(想起)도 의견 말하기를 발화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답하였다. 사후 인터뷰에서 어떤 학습자들이 학습하였던 어휘나 문법은 적지 않은데도 말하기를 하면서 생각이 안 난다고 하였고, 말하기를 하기 전에 준비를 했을 때 중요한 키 워드를 미리 적어놓거나 미리 머릿속에서 선택되면, 배웠던 적지 않은 문법과 어 휘는 의견 말하기에서는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달 과정에 대하여 어떤 학습자 는 미리 의도하였던 내용을 갑자기 기억 안 날 때나, 모르는 단어를 만날 때나 익 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있으면 의견 말하기의 과정이 부득이하게 중단된 경우도 많 다고 답하였다.

정리하자면 중국인 대학생인 고급 학습자들이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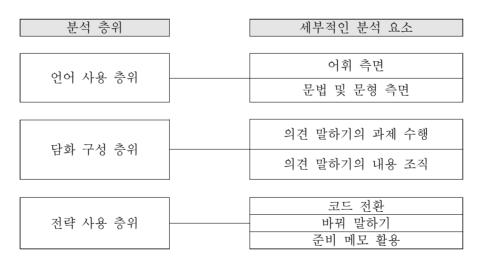
신의 의견을 서술할 때 내용 구성 측면 보다 언어적인 측면과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출발하여, 다음 III장에서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고급 학습자들이 발화한 의견 말하기 담화를 언어 사용, 담화 구성, 그리고 전략 사용 측위에서 분석한 후에, 학습자들이 스스로 느낀 난점과 담화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일치하는지를 분석한 후에 IV장에서 의견 말하기 교육 방안을 구안하도록 할 것이다.

# Ⅲ.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의견 말하기 양상 분석

이 장에서는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고급 학습자들이 인터뷰에서 발화하는 담화를 전사하여 의견 말하기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담화 자료를 2.2에서 제시한 의견 말하기 능력 구성 요소 틀에 따라 언어 사용 능력, 담화 구성 능력 그리고 전략 사용 능력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례를 제시하여 분석할 것이다.

# 1. 의견 말하기 양상 분석틀

2.2에서는 일반적인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와 의견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각 측면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정리하였다.<sup>26)</sup>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의견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의견 말하기 담화를 분석하는 틀을 다음 [그림 Ⅲ-1]과 같이 만들어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언어 사용 층위, 담화 구성 층위와 전략 사용 층위의 의견 말하기 담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Ⅲ-1] 본 연구의 의견 말하기 분석틀

<sup>26)</sup> Ⅱ장에서 <표 Ⅱ-5>참고

언어 사용 층위에서는 먼저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어휘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다. 인터뷰 담화에서 의견 말하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어휘 사용은 담화를 생산해 내는 기본 바탕을 이루는 내용이므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인터뷰 담화에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할 수 있는 어휘는 물론이고, 의견 말하기와 관련이 있는 어휘의 사용이 요구될것이고, 이러한 언어 사용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중국식 한자어의 사용, 인칭대명사의 과다 사용과 기초적인 어휘의 반복 사용 등 양상을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의견 말하기와 관련한 문법과 표현 문형 사용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언어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사용하였는지, 단조롭지 않게 다양하게 활용하였는지를 분석하여 학습자들이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언어 지식적인 사용 양상을 각 담화자료를 제시하여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구체적인발화 자료를 분석하여 문법 및 문형 측면에서 시제 및 높임법의 오용과 단정적인표현의 과다 사용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의견 말하기 담화의 언어 사용적인 층위를 살펴보고 나서 담화 구성 측면인 의견 말하기 과제 수행 결과와 담화 내용 조직 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를 '중심 주장의 명료함'과 '근거 내용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말하기 과제를 수행할 때 문제점을 살펴본다. 내용 조직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조리 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주제와 관련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을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의견 말하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전략 양상을 분석하는 전략 사용 측면이다. 일반적인 말하기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코드 전환 전략, 바꿔 말하기 전략의 활용 양상을 살펴본 후에, 일방적인 의견 말하기의 준비단계에서 작성한 메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메모와 담화를 서로 대비하여 설명하겠다. 그 중에서 코드 전환 전략은 목표어를 말하다가 모국어 또는 다른 외국어로 말하는 전략이며 학습자가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나 제3언어(영어 등)를 한국어의 음운 현상이나 형태에 맞게 단어의 변형 없이 그대로 발화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인터뷰는 중국어 모어 화자인 연구자가 인터뷰어로서 중국인학습자를 인터뷰한 것이기 때문에 수집한 담화 자료에서 나타난 코드 전환은 거의중국어로 진행된다. 바꿔 말하기 전략은 의사소통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제2언어학습자가 목표언어로 발화를 하는 중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거나

설명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일으킨 단어나 발화 부분을 대체하여 말하는 것을 뜻한 다(Ellis, 1994).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 중요한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학습자 의견 담화에서 바꿔 말하기 전략의 사용 양상도 담화 구성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준비 메모 활용 양상은 준비하기 단계에서 학습자가 생각하는 과정, 사고의 맥락 등을 미리 준비하여 메모를 작성하는 것이다. 준비 메모를 작성하는 언어와 내용을 나누어 학습자의 담화 자료와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층위의 의견 말하기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중국 인 고급 학습자의 의견 말하기 담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언어 사용 층위

언어 사용 측위에서의 양상 분석은 인터뷰 담화에서 의견 말하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어휘, 문법 그리고 의견 말하기와 관련한 표현 문형 사용의 정확성, 다양성, 적절성 등에 관한 내용이다.

### 1) 어휘 측면

말하기 수행에서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 터뷰 담화에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 더 믿음직한 내용으로 본인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인터뷰 담화 자료를 분석하면 어휘 사용상의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크게 나누면 중국식 한자어의 사용, 인칭대명사의 과다 사용 그리고 기초적인 어휘의 반복 사용 등 3가지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 (1) 중국식 한자어의 사용

한국어에는 고유어 외에도 한자어와 외래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자어가 한국어 반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에서 사용하는 한자어의 의미에는 차이가 있으며 첨가와 탈락의 과정을 거쳐 원어와 일정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유서천, 2001: 4). 그러므로 동일한 한자문화권이란 점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동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도 발생된다. 본 절에서는 중국인고급 학습자들이 모국어인 중국어의 간섭 때문에 한자어를 오용하거나, 중국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직역으로 한자어처럼 사용하거나, 동사와 명사의 조합이중국어의 습관으로 오용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예시들이 아래와같이 있다.

[S2-2] 저는 찬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왜냐하면:: 한 문제::<u>경정은:</u>:이 제, 너무 <u>열::열합니다</u>. 그래서, 음 우리 학교에, 사회에 있으면::많은 지식,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많은 지식이, 지식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은 명~ 명운을 결정합니다.(생략)

[S11-1] 우선, 음~ 저는 그 원:: 원인이, 저~ 먼저 말하고 싶어요. 먼저, 첫째는, 요즘 직장 <u>압력이 높아서</u>:: 직장 다니는 부부가:: <u>압력이 있어</u> <u>서</u>, 아이가 넣을 수 없다. 그~ 둘째는, 특히 지금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져서::음~그들에게 <u>아이가 넣은 시간이</u> 없어서:: 그래서 음~ 출산율이:: 나~ 낮아졌다.

위에서 [S2-2]는 부모들이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는 현상에 대한 2번째 학습자의 의견을 말하는 담화이다. 지금 이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싶어하고 '경쟁'을 중국어 발음으로 '결정'이라고 잘 못 말하였다. '치열하다'도 중국어의 직역으로 '열하다'로 어색하게 표현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중국어에서는 '知识決定命运'이라는 속담이 있으며 '지식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뜻이다. 이학습자는 '命运'을 중국어의 순서대로 '운명'을 잘못 사용하고 '지식은 명운을 결정한다.'는 어색한 문장을 만들었다. 담화 [S11-1]의 경우에는 중국어의 관습적인표현인 '压力大(스트레스가 많다)', '有压力(스트레스가 있다)'를 중국어의 간접으로 '압력이 높다', '압력이 있다'로 발화하였다. 그 중에서 '压力'를 직역으로 한자어 '압력'으로, 형용사인 '大'와 동사인 '有'도 직역으로 하여 어휘를 잘못한 결합되었다.

한국어에서 한자어가 많이 있는 점이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인 학습자에 게 유리한 조건이 되는 동시에 방해가 될 수 있어 고급 학습자의 말하기임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났다. 또 하나의 예는 아래와 같다.

[S13-1] (생략) 중국의 경우에는, 그 그 부동산, 그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거의 신혼부부들이 거의 <u>애기가 못 낳았어요</u>.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u>우유</u>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전통,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u>애기가 많이 낳지 않았어요</u>. 두 번째는, 아 두 번째는 이런 사회에, 그 사회에, 그 사람들의 그냥 보편적으로의 사상, 의식이 많이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원래는 그 중국의, 중국이든지 한국이든지 다 그런 전통적인 사상 많이 유지하고 있어요.

[S2-1] 그것은 안돼요. 어~왜냐하면::왜냐하면 학교 시대에, 우리::우리 학업이 많습니다. 음~남녀의 사랑::은(3.0) 남녀의 사랑은 학업을 영향합니다. 두 번째, 우리::민족(2.0) 우리는 전통적이 때문에:::한국 많은 사람은::기독교, 기독교를 신양합니다. 그래서 혼전:: 동거, 동거하는 거, 안돼요.

[S13-1]은 출산율이 저하에 대해 평가하라는 질문에 대한 담화이다. 중국에서 분유를 생산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된 적이 있었다. 여기서 이 학습자가 중국어에서 총칭인 '奶'를 '우유'라고 하여 이해할 때 오해를 초래할 수 있어 문제가 되었다. 이 맥락에서 사용해야 하는 어휘는 '분유'이고 '우유'가 아니다. 담화 [S2-1]의 경우에는 '학업이 많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중국어에서 '학업 부담이 중하다'의 뜻으로 '学业多', '学业重'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학습자는 이러한 표현을 한자어로 생각하고 직역을 하였다. 또한 '影响学业(공부에 영향을 준다)'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영향하다'를 동사로 만들어 한자어인 '학업'과 직접적으로 결합시켜 비문이 되었다.

[S11-2] 저는 결혼한 후 부모랑 함께 사는 것은 <u>의견이 없어요</u>. 하지만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랑 함께 사는 것은 반대하는 이유가 아마 여 러 가지 있어:: 음~ 첫째는,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와 생활습관이 달라서:: 어~ 생활 안에. 다소 모순이 생길 것 같아요:: 음~ 이런 때가 생~길 때:: 음~ 서로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 음~그리고::(2.0) 둘째는 아마, 부모랑함께 살면:: 쌀방 부모는, 그~ 아이가 날 시키는 것은, 많이 말하면:: 이것은 젊은 부부들에게, 압력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웃음>어떤, 젊은이들이, 부모랑함께 사는 것은 찬성해요. 그것은 아마 부모랑함께:: 살면서아이가 낳으면, 부모가 도와주~실 것 같아요. 이것은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가::함께 살면, 그들에게 직접 관심을:: 줄 것 같아요.(생략)

[S11-2]는 젊은이들이 결혼 후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 11번째 학습자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창성한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의견이 없어요'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어에서는 '没有意见'는 '이의가 없다, 반대 의견이 없다'는 뜻인데 이 학습자는 직역으로 비문을 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와 같이 살면, 습관이 달라서 생활 속에서 갈등이 생길것이다'는 뜻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중국어의 간섭으로 '生活里'를 '생활 안에'로 잘못 발화하였다. 그리고 '产生矛盾(갈등이 생기다)'도 직역하여 '모순이 생기다'라는 비문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양가 부모'의 뜻인 '双方父母'를 중국어의 직역으로 번역하고 '쌍방 부모'로 오류가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학습자들의 말하기에서 나타나는 어휘 선택이나 어휘 조합 오류의 원인은 모국어인 중국어의 간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를 많이 연습하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부득이 하게 오류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 (2) 인칭대명사의 과다 사용

한국어는 격조사 또는 용언의 어미에 따라 하나의 표현이 주어나 목적어가 될수도 있으며, 문미에 나타나는 접미사는 말의 방향과 의미를 전혀 다른 데로 돌리기도 하여, 청자가 화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경청해야 하는 언어이므로 서술어 중심적 언어라고 한다(손병룡, 2001: 136). 그러나 중국어는 주어를 중심으로 하여그 주어의 양상을 술어가 표현하는 구조로 발전하여, 술어는 계속 변화되지만 주어는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박청희, 2013: 44). 따라서중국어는 주어가 먼저 정립되고 그 다음 주체의 상황을 표현하는 서술어가 뒤에따르고 사실을 안정적으로 서술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이원적인 언어구조이다.

한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는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적다는 것인

데, 이것도 한국어가 서술어 중심 언어로서 구어에서는 대명사의 생략 현상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27) 다시 말하자면 주어의 생략 현상은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주어는 다른 성분에 비해 생략이 많이 되는 성분이다. 그러나 중국어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간섭과 이러한 특징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화 시 인칭 대명사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판단의 주체인 '주어'자체를 부각시키게 되어 자신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초점화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의견을 말할 때 주어를생략하지 않고 과다하게 사용하는 양상이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담화구조에 나타나지 않아도 담화참여자들의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 인칭 대명사가 생략되지 않아 자연스럽지 않은 담화를 발화하고 있었다.

- (1) ㄱ. 저는, 찬성하고 있어요::(중략) 음~<u>제가</u>, 남자와 여자랑 자유롭게 연애결 혼이라는 것을 찬성하는 이유는, 또 <u>제 생각에서는</u>, 사랑은 우리 인생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생각하고 있어요.
  - L. (생략)<u>제가 생각하기에</u>는 사람들은::그~(3.0) 불법률,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2.0)음~그리고 <u>제가 보기에는</u>, 예를 들면 게임이나 홈쇼핑 이런 거::실명제는 없어도 돼요.
  - 리. 제가 보기에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 X선-방사 때문에, 눈이나:::음~ 아무튼 몸을 건강 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자책을 볼 때 그런 느 낌이 없어요. 또::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책으로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그 그냥 그런 성의 있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물론 전자책, 좋은 점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소지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다 볼 수 있어서::편해요. 하지만, 제 개인 생각에는::전자책도 중요해요. 하지만, 종이책::도 없어도 안돼요. (또는?)음~어떻게 말해야 죠?(1.0)그리고::제가 그 종이책, 냄새 좋아요.
- (1つ)에서는 '제가'는 휴지 후에 채운말로 사용하는 담화표지로 볼 수 있고, 이

<sup>27)</sup> 손병룡(2001: 3-6)에 따르면 한국어는 상황의존적 언어이고 화자를 나타내는 인칭대명사, 즉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하는 것이 매우 흔하다. 문장에 따라서는 생략된 요소를 복구하여 쓰는 것이 더어색해지는 경우도 있고, 구어에서의 주어 생략은 거의 보편적이다.

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생각의 주체인 1인칭 대명사 주어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예시이다. (1ㄴ, ㄹ)에서는 '저'라는 주어와 '생각하다, 보다'등의 기본적인 판정동사를 결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중국어에서 '我的想法是, 在我看来, 我个人觉得'등의 관습적 표현을 그대로 직역으로 발화하는 것이고, 한국어로 정형화되고 단순한 문장 형태를 반복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생략이 가능한주어가 생략되지 않으면 비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박청희, 2013: 43). 이러한 의견을 밝힐 때 1인칭을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은 중국인 학습자들의특징이자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 (2) 기. 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실은 저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보기에는::이것은::자기 가정의 상황에따라, 아니면 부부 사이에 따라, 아니면 부부 성격에 따라 다 달라요. 전는::결혼하지 않아서<웃음>그래서 잘 모르겠어요.<웃음>근데, 지금 내생각에는::부모랑 사는 것은: 괜찮아요. (중략) 근데::내생각에는, 그런 것은::피할 수 없어요.
  - 근데,(2.0)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어보면:: <u>내 생각에는</u>::어~ 중국에서 그 거 알 알아요? 支付宝(2.0) 支付宝는 소비자와, 상자의:: 平台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u>내 상객에는</u>, 장이요. 그래서::이런 실면제는(1.0) 이런 장도 필요해요. (중략) 그~어떻게 믿을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u>내 생각에</u> 는 정부, 그 나라의 정부:: <웃음>왜냐면 다른 사람, 다른 기관보다 정부 는 훨씬 더 믿음적인 것 같아요.
  - 리. 우리 그거 졸업논문도 있잖아요. <u>나</u> 원래 그 주제에 대한, 쓰고 싶은데:: 근데 ㅇㅇㅇ선생님이 이거, 좀 어렵다고::<웃음>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래서 <u>나</u>::이거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어요. (생략)음~<u>나</u>, 저도 식당에서 알바 했어, 해 봤어요.(2.0) 같이 해 보는 아줌마들,(생략)

한국어 1인칭 대명사 단수형식은 평칭 '나'와 겸양칭 '저'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인터뷰 담화 상황에서의 일방적 말하기인 만큼 공식적인 말하기 맥락이므로 겸양 법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2)에서는 학습자들이 겸양칭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으로 '저'를 사용하다가 '나'를 사용하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담화의 일관성을 저해하므로 학습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이 없어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청자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다.

한국어에서는 1인칭대명사 '나'의 복수형은 '우리'가 대표적이며 단순히 '나'의 복수가 아니라 '나'와 '나' 아닌 사람(상대방을 포함할 수도 있다)을 합한 것이 다.28) 황병순(1996: 100)에서 한국어의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나눈다고 서술하 였다. 하나는 '말하는 사람을 포함한 집단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말하는 사람을 포함한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가리키는 경우이 다.29) 다시 말하면 전자는 형식에 담긴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고, 후자는 내용을 담은 형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의견 말하기 담화를 분석하 였을 때 '우리'를 혼잡하게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발화함을 알 수 있다.

- (3) ㄱ. 그것은 안돼요. 어~왜냐하면::왜냐하면 학교 시대에, <u>우리::우리 학업</u>이 많습니다. 음~남녀의 사랑::은(3.0) 남녀의 사랑은 학업을 영향합니다. 두 번째, <u>우리::민족(</u>2.0) 우리는 전통적이 때문에:::한국 많은 사람은:: 기독교, 기독교를 신양합니다.
  - L. 인터넷 쇼핑 할 때, 가격이 아주(1.0) <u>우리 학생한테</u> 아주::받을 수 었어 요. 가격이. 그런데. 음~그 품질이.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 리.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개인 시점으로, 첫 번째는:: 우리들은 조심해야 해요.

     요. 다른 곳에 가면::음~ 옷장에서, 우리들은 이것을:: 카메라를 감사::检查, 해야 해요. 그리고 음~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해요.

     우리들의 자기 비밀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밀도 존경해야 해요:: 다음은 저는 정부시점에서,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정부는:: 법. 법령::법류:: 이것을 해야 해요.

<sup>28)</sup> 황병순(1996: 107-110)은 '우리'와 '우리들'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었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을 포함한 집단의 여러 사람 즉 복수대상을 한 덩어리로 인식하여 표현한 것이다. 29) 오풍연(2012) 재인용.

(3기, 리)과 같이 '우리 민족', '우리 정부'의 사용은 청자를 포함하는 '우리'를 사용함을 알 수 있고 '나'의 복수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 (3기, ㄴ)의 경우에는 '우리 학업', '우리 학생한테'는 청자를 포함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은'이라는 표현이다. 그러나 이때는 '우리 학생들은 학업이 많다'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아니면 '우리'를 생략하고 후행 명사와 공기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은 '우리'라는 단어 자체에 내포된 집단 문화를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3리)을 보면 이 학습자가 '우리는', '우리들은'을 공동 주어로 문장마다 사용하였는데 동일한 형태를 담화에서 반복하는 것은 담화의 응집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므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담화에서 언어 사용의 정확성 측면 양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어의 간섭에 의하여 직역으로 한자어를 과장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인 시제와 높임법에 대한 혼잡한 사용이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밝힐 때 인칭 대명사를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하여 어색한 담화가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확성에 대한 양상을 연구 대상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더 정확하고 유창한 의견 말하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 (3) 기초적인 어휘의 반복 사용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할 때 정확한 어휘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언어 사용의다양성과 풍부성도 말하기를 평가할 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은 어떤 논제나 관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평가할 때 제한된 어휘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S4-3]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이런 경우 있으면, 벌칙으로::음~하면 <u>좋</u> 겠어요.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은::이런 행위는 안 된다고:: 애기하면 <u>좋아, 좋겠어요.</u> 이렇게 하면 불법이라고::말하면 더 <u>좋을 것 같아요.</u> 그리고 사회에서, 음~<u>좋은 사람이</u>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면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들은(2.0)그냥 <u>좋은 행동으로</u>::알려줄 수 있고, 이런 경우 더::적어질 수 있어요. 부모님들도, 음~자기의 아이한테::자주::<u>좋은 자세를</u>::모범으로 음 볼 수 있고:: 아이들은 그건 경험으로, 적어질 수 있어요.

위의 [S4-3]는 미성년자 고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습자의 담화 자료이다. 이 학습자는 서술어 '좋다'라는 어휘가 6번 쓰여 어색하므로 '바람직하다, 필요하다' 등의 어휘로 대체하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좋은 사람', '좋은 행동', '좋은 자세' 라는 관형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제한된 표현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렇게 기초적이고 단순한 기본 어휘를 반복함으로써 사고를 깊이 전개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 말하기와 관련된 표현을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또 다른 담화를 보자.

[S4-1] 사실 제가 보기에는::실명제~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음~개인 정보에 대해서(2.0) 음~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불법률이도::적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서, 중국에서::음 이야기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실명제:::음 실~행하면, (생략) 음~로그인도 해야되고 어떤 돈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조금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략)그냥 빠르게 잡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게임이나 홈쇼핑 이런 거::실명제는 없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공무원 시험 봤잖아요.

[S5P-1] 네 요즘에는 낮아진 것 같에요. 한국 이 나라는, 그 우리보다 우리 그 나라보다는 발달하다고 하지요, 어 그 그것, 이렇게 그, 발달한 국가는;;(생략)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그 대부분이지요. 그리고 그 한국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좀 빠른 편이지요, 어 너무 빨라서, 음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어 애를 키워야 지요, 그럼 어 좀 귀찮을까 그런 생각이 아마 가질 것 같아서, 그 그래서 일부분 여자들이 애를 낳은 건 좀, 싫을, 싫을 거지요.

[S4-1]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담화 내용이고 [S5P-1]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말하는 담화 자료이다. 4번째 학습자의 경우에는 '- 잖아요'를 6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잖아요'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청자의 공감과 동조를 끌어들이기 위한 표현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어체 종결어미이다(원해영, 2011: 21). 그리

고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006)에서는 '-잖아'를 어떤 상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확인하거나 정정해 주듯이 말함을 나 타내는 표현으로 보았으며, 김종록(2006)은 상대방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밝히되 다만 추측해서 표현할 때 사용하거나 좀 더 자신의 뜻을 강조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뜻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면서 상대방의 뜻을 확인할 때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도 학습자들은 듣는 사람에게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조할 수 있는 명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쓴다 고 사후 인터뷰에서 대답하였다. [S5P-1]도'-다고 하지요', '-지요' 등 화자의 의 견을 주장할 때 말투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지요'를 5번이나 사용하였다. 사후 인터뷰에서 왜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만 반복적으로 말하는지를 물어보 니 간단하고 말하기를 할 때 많이 써보았고.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것 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인들도 구어에서도 자 주 말하는 구어 말뭉치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반면 단조롭게 반복 사용하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믿기 어렵게 될 것이 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능동적으로 선택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에서 담화 표지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학습자에 따라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담화 표지가 발견되었다.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담화 표지를 지나치게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말하기의 유창성을 저해하고 말하기 내용의 이해를 방해한다.

[S10-1] (생략) 그~ 안전하고:: 그, 그리고 그~(3.0) 좋은 것은, 안점이에 요.(2.0) 또~ 단점은, 많은:: 음~(3.0) 많은 것은, 실명제 있으면:: 그~(3.0) (???)것은 있고::음~ 就是~(5.0) 만일, 실명제 있어, 있으면:: 그~ 이런 거:: 음~ 그~ 저 먼저 예를 들면:: QQ 실명제, 있어면:: 그~ 몇 년후에:: 잊어버리면 안돼요.

[S5-2] (생략) 음~ 맞벌이 부부는 많잖아요. 그래서, 부부 다, 일 때문에:: 음~ 집에 그런:: 아이를 돌보는 거기 그런 일, 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 부모님이랑 같이 사면,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음~ 부부사이에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하는 건::당연하죠.

위에서 [S10-1]과 [S5-2]의 경우는 '그', '음', '그래서' 등과 같은 불필요한 표지를 자주 사용하여 시간을 끌고 있으며 이는 말하기의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S5-2]에서 '그래서'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 발화가 의미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런 아이', '그런 경우' 등의 주어를 불필요하게 반복 사용하는 비경제적인 표현 양상을 보여 표현의 유창성을 저해하였다. [S10-1]의 경우는 동일한 단어 '그'를 반복하여 불필요한휴지도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여 적절한 발화 속도로 자연스럽게 발화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지나 망설임이 자주 나타나 인터뷰 담화의 흐름을 어색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한 문장에서 담화 표지가 여러 번사용되면 말하기의 내용이 끊기게 되므로 내용 전달과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위하여 적당하게 생략되는 것이 좋다. 특히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의견말하기에서는 지나친 어휘/담화 표지의 사용을 학습자의 논지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청중들이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지나친 간단한 어휘, 담화 표지의 사용을 지양하고 말하기 교육을 시켜야 한다.

# 2) 문법 및 문형 측면

의견 말하기 담화의 언어 사용 위를 분석할 때 또 하나의 측면은 문법 및 문형의 사용이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시제와 높임법의 사용 오류, 단정적인 종결 표현만 과다하게 사용하고 우회적인 표현을 적게 사용하는 양상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 시제 및 높임법의 오용

시제란 일반적으로 절이나 문장이 나타나는 사태가 발생한 시간적 위치를 문법적 수단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이재성, 2000: 125).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어떤 시점에 있는지, 같은 문장 속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나 행위가 나타나 있을 때 그들 사이의 시간상의 앞뒤 관계가 어떠한지를 문법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하다. 한국어의 시제 범주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고 중국인 학습자들은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시제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S9-1] 인터넷 쇼핑은 정말 편해요. 왜냐하면 외출하지 않아도 쇼핑할 수 있어요. 음~마음대로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음~지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음~就是 인터넷에서 사는 것이, 품질이 좋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2.0) 나에게 있어서, 학교에 있어, 있으니까:: 음~인 터넷쇼핑은 많이 했어요.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어요. 음~ 한마디로::<웃음>음~사람에 따라, 선택이 달라요. 백화점에 가,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인터넷쇼핑을 하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음~그리고 가격도 백화점에 비해서, 쌌어요. (생략)

위에서 9번째 학습자가 발화하는 내용은 홈쇼핑에 관한 의견 말하기이다. 담화에서 본인을 예로 들고 과거의 경험을 말하였는데 '나쁜 경우도 있어요.'의 문장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백화점보다 가격이 더 싸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백화점에 비해서 쌌어요'라고 과거시제로 표현하여 시제 사용상의 부정확성 문제를 보여주었다.

[S15-1] (생략) 예를 들면, 우리:: 저의 친구 중 한명은:: 지금 밖에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두 사람은::음~ sex:::<웃음> 음~이런 경우는 <u>자주:: 발생할 거예요.</u> 그래서 저친구는::음~ 큰 병을 걸렸어요:: 음~ 그래서, 스스로 치료할 수 못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음~ 나았었어요.

담화[S15-1]은 혼전 동거에 대한 15번째 학습자의 의견 말하기 내용이다. 이학습자는 우선 반대하는 관점을 밝히고 자신의 친구 한 명을 예시로 들고 있다. 그러나 친구의 과거 일을 서술할 때 과거형으로 기술해야 하는데 '-는 것이다', '-는 거예요' 등 현재형 서술 연결어미를 쓰기도 하고, '-(으)를 것이다'라는 이래의 사건에 대한 추측하는 표현을 잘못 사용하기도 하였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높임법의 사용 오류도 나타났다. 중국어에서도 높임 표현이 있지만 한국어처럼 복잡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한국어 높임법에서 주로 조사나 선어말어미<sup>30)</sup> '-시-'와 종결어미에 의하여

<sup>30)</sup> 선어말 어미란 어간 뒤에 그리고 어말어미 앞에 오는 여러 어미들을 말한다. 선어말 어미는 문법적 기능의 측면에서 주체 높임, 시상, 양태 등의 문법적 범주를 표시한다. 선어말 어미는 어말어미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어말어미가 동사나 형용사, '이다'의 활

실현된다. 한편 중국어는 고립어이므로 대부분은 어휘를 통하여 높임 표현이 실현된다. 그러므로 높임법은 한국어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발화를 할 때 한국어 높임 표현과 관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많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S1-1] 저는 국제결혼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웃음>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결:결합:결합하는 것은 행복해요. (중략) 그래서 음, 국제결혼이 음(1.0) 행복할 수 사람도 있어서::음 아무튼 저는 좀 기대하세요.

[S1-3] 그리고 우리 나라도::수능 시험을 개~혁/해야 해요.(2.0) 중국어의 점수는 영어 점수보다 더:::많은 점수 <u>주::주세요.</u><웃음>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음~중국의 부모, 중국의 학생들은::중국어에 대해서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첫 번째 담화에서의 '저는 좀 기대하세요'는 화자 본인을 높이며, 주어인 '저'를 존대하여 서술어'기대하다'에 '-(으)시'가 결합되어 사용되므로 비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담화[S1-3]에서도 화자가 '많은 점수를 주세요'라고 하며, 적당하지 않은 선어말 어미 '-(으)시'가 결합되어 어색한 문장을 발화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국어보다 영어를 더 중요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담화인 만큼, 점수를 더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점수를 주게 되면...'라는 가정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많은 점수를 주세요'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높임법의 잘못한 사용 양상이었다.

[S5-1] 국제결혼에 대한, 처음에는, 우리 그거 졸업논문도 있잖아요. <u>나</u> 원래 그 주제에 대한, 쓰고 싶은데:: 근데 ㅇㅇㅇ선생님이 이거, 좀 어렵다 고::<웃음>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u>나::</u>이거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어 요. <웃음> <u>저::</u>한국에 있을 때::그거~동신대학은 시골에 있잖아요. 네~그 래서 이런 결혼이 많이 있어요. 특히 베트남, 베트남 사람, 여자::음~<u>나, 저</u> 도 식당에서 알바했어, 해 봤어요.(2.0) 같이 해 보는 아줌마들, 음~베트남

용에 필수적인 반면, 선어말 어미는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기 위해 수의적으로 사용된다 (백봉자, 2002: 11).

사람, 엄청 많아요. 음<u>~저도</u> 그~처음에는 그런 사람한텐 좀 궁금해요. 왜 한국으로 왔냐. 그런 생각이::그 후에. 물어봤어요.

위에서 [S9-1]담화 에서 '나에게 있어서'도 높임법과 관한 적당하지 않은 사용이다. 공식적인 말하기에서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춰야 된다. 5번째 학습자의 [S5-1] 담화에서도 마찬가지로 1인칭 대명사의 오용 형상이 3번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에서 1인칭에는 평칭 '나'와 겸양칭 '저'가 있는데 존대를 나타내야 할청자 앞에서 '나' 대신 '저'를 써야 한다. 특이 본 연구에서 처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는 높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높임법의 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2) 단정적인 표현의 과다 사용

의견 말하기는 다른 기능의 말하기 담화와 달리, 화자 자신의 주장은 상대방의행동, 인식, 태도 등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담화유형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체면을 손상하지 않기 위한 일반적인대화의 원리를 의견 말하기에서도 적용하여(Brown & Levinson, 1987), 청자가화자의 의견을 거부감 없이 동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어에서는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한국어는중국어와 달리 청자에 대한 공손성<sup>31)</sup> 등 때문에 완곡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언어 유형이다.<sup>32)</sup> 완화적인 표현은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기의 방식으로 '불확실한 추측에 근거한 가능성 제시의 말하기'라고 할 수 있으며, 명제 내용의 판단을유보하거나 수행성을 약화시켜 모호성·공손성·양태성을 드러낸다(신명선, 2006:

<sup>31)</sup> 구현정·전정미(2007: 136-180)에 따르면 설득 화법의 원리로는 상호성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상대방의 체면에 손상을 입히지도 않고 욕구수준도 만족시키려는 설득이 되려면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이때 필요한 것이 공손이라고 하였다(이혜정, 2013 재인용).

<sup>32)</sup> 민병곤(2004)에서는 논증 행위에 대한 '필자의 입장 및 논박 표지' 중 하위 범주로 '완곡 표현'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자신의 주장을 단정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진술하지 않고 완곡하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판단의 여지를 주고 신뢰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완곡적인 표현 방식이다.

151). 그러나 실험에서 도출한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학습자들이 이러한 완곡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딱딱하게 단정적인 표현 문형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S5-3] 실면제로 인해, 개인 정보 노출 그런 거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은, <u>해결할 수 없어요.</u> (생략) 그래서::이런 실명제는(1.0) 이런 것이 필요해요.

[S6-3] 대학생으로서, 자기 하::자기, 지식이, 많이 보충해야 돼요::음~ 사회 중에, 받는 <u>지식도 중요해요:</u>: 이런 다양, 다양한 지식이 있으면, 취직하면 더~ 유리해요.

[S9-2] 저는 이런 관점을 찬성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자기의 사업이 <u>있</u>어야 돼요. 우리 여자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결혼해요. 처음에 혹시 사랑 때문에, <u>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u>.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다를 거예요 여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자기 <u>자아 지키는 것입니다.</u> 취업하는 것이, 또는 돈을 벌 수 뿐만 아니라, 자기를 풍부할 수 있어요. 또 많이 돈을 벌 수::벌면 생활이, 또 <u>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2.0)</u>일을 안 하면:: 혹시 밖에 세상에 떠, 떠나죠:: 음~자기 방에<웃음> 있으면, 음~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자기는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위의 [S5-3]과 [S6-3]은 실명제와 취업률에 대한 학습자들의 담화 자료이다. 학습자는 '생기는 문제이다', '해결할 수 없다', '지식이 중요하다' 등과 같이 기본형 형태로 무시제성<sup>33)</sup>으로 쓰여 단정의 의미를 드러낸다. 그러나 의견 말하기에서 화자의 주장을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서술이며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신의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형상을 유의해야 한다. 담화[S9-2]는 여자들이결혼 후에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 말하기 내용이다. 이 학습자는

<sup>33)</sup> 고영근·구본관(2008)에 따르면 시제는 화자가 발화시를 기준축으로 삼아 앞뒤의 시간을 제한하는 문법 범주이다. 그런데 특정 시간 표현 형태소가 포함되지 않은 기본형은 시간 성 외에 보편적인 사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데(고영근·구본관, 2008: 398), 여기서 발화에 쓰인 기본형 서술어들은 학습자들의 판단을 직설적으로 나타낸 것에 해당하므로 '무시제성'이라 할 수 있다(이혜정, 2013).

'-(으)리 수 있다/업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렇게 단언의 의미를 너무 빈번하게 드러낸다면 오히려 청자에게 신뢰하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 단정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진술하지 않고 완곡하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청자에게 판단의 여지를 주고 신뢰감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에게 완곡적인 표현 문형을 교육 내용으로 삼는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12-3]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개인 시점으로, 첫 번째는:: 우리들은 조심해야 해요. 다른 곳에 가면::음~ 옷장에서, 우리들은 이것을:: 카메라를 감사::检查, 해야해요. 그리고 음~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해요. 우리들의 자기 비밀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밀도 존경해야 해요:: 다음은 저는 정부시점에서, 이것을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정부는:: 법, 법령::법류:: 이것을 해야 해요. 사람들은 이것을 사면:: 회사나정부:: 특별한 것을, 출시 해야 해요.出示:: 특별한 조직이, 특별한 것을, 법 亦 해요 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해야 해요. 사람들은 이거, 카메라는 적당한::사용방법을 알아야 해요. 마지막 저는, 상가의 시점을 말하겠어요. 음~(2.0)첫 번째는 우리 상가는, 이런:: 교육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음~ 상가들은, 이것을 손님들에 줄 때::특별한 중 명:: 것을 잘 봐야 해요 그래서 줄일 수 있어요.

[S12-3]은 감시 카메라 설치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말한 담화 자료이다. 이 담화에서 미래에 대한 자신의 건의를 제기하는 '-해야 한다'와 '-어야 된다'라는 의무양태 문형을 각 11번, 5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며, 이와 같은 전형적으로 주장의 맥락에서 쓰이는 의무 양태 문형으로 화자의 단정적 진술 단순한 문장 표현의 사용으로 너무 딱딱하고 비논리적으로 보이게 될 수 있다. 인터뷰 담화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리 것 같아요'라는 약한 추측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타당하나 반복적으로 쓰이면 자신의 입장을 불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고 생각한다, -면 어떨까 싶다,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등 한국어 담화 공동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의견 말하기 표현의사용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나타난 언어적인 다양성 측면의 양상을 정리하자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할 때 너무 제한적인 표현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말하는 내용이 아무리 재미있고 설득력이 있더라도 너무 단조로운 표현 문형을 끝까지 사용하면 청자가 듣는 흥미가 떨어지고, 화자도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파악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주장을 내세울 때 지나치게 직접적인 표현 문형을 사용하면 너무 딱딱하고 청자와의 상호작용이 떨어지고 청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의견 말하기 담화인 만큼 설명하기와 설득하기와 관련된 한국식 문형을 단조롭게 사용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의견을 밝힐 때 한국어에서 정형화된 표현들을 정확하고 잘활용하지 못하고, 말하기 내용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의견 말하기 과제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직접 말해야 하고 돌려서 말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구별하여 두 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하며, 다양한 완곡적인 표현을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 말하기의 교수~학습이 요구된다.

# 3. 담화 구성 층위

담화 구성 측위에서의 의견 말하기 능력 요소는 다시 의견 말하기의 과제 수행과 의견 말하기의 내용 조직으로 나뉠 수 있다. 과제 수행은 최종적으로 의견 말하기 과제를 얼마나 완성도 있게 수행해 냈는지, 인터뷰 질문에서 기대하였던 의도와 같이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며 과제를 완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이며 내용 조직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조리 있게 전달하기 위하여 주제와 관련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을 긴밀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한국어 인터뷰 담화의 의견 말하기 과제에서 학습자들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서술과 내용을 풀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말하기 방법들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의견 말하기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 1) 의견 말하기의 과제 수행

과제 수행은 최종적으로 의견 말하기 과제를 얼마나 완성도 있게 수행해 냈는

지, 인터뷰 질문에서 기대하였던 의도와 같이 주장을 세우며 과제를 완성하였는지, 그리고 질문 내용에 알맞은 주제와 내용으로 자신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즉 담화에서 질문의 의도에 적합하게 수행하는지, 그 수행이 지속적인지, 과제의 완결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여기서는 중심 주장의 명확성과 근거 내용의 합리성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밝히고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자료를 분석하였다.

# (1) 중심 주장의 명확성 부족

의견 말하기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점에 대하여 확고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진숙(1995)에 따르면 주제의 선명성, 즉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지, 상대방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인터뷰 담화를 분석하면 질문에 주어진 과제를 완결성 있게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인터뷰질문을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담화도 있다. 본 절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담화가 말하기 내용의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S7-1] 저는요, 아~ 미성년들은 왜, 왜 학교에 공부 안하고, 회사에 그냥일을 하고, 그 이유는:: 2가지기 있어요:: 첫 번째는::음~그들은, 자기 스스로 공부를 싫어서:: 또:: 그런 지식에 관한, 재미도 없고, 또 다른 거:: 아마어떤 가정은 가난하고, 돈 좀 필요하고:: 아마그런~현상은, 그들에게:: 그냥 회사에 일을 했어요.(2.0)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더 싸게 구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음~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그런 것을:: 아마, 아마 찬성하지 않은 의견은:: 대부분일 것 같아.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은 에기고:: 미성년이고 아마~사상기:: 어떤 일 대한 판단도:: 성숙하지 않고(2.0) 아마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또정부에는, 또 그런 정책을, 음~해야 해요. 또 미성년에 대해, 일을 하는 것을:: 그~ 보호:: 법적으로 어떤, 어떤:: 회사에 관한, 부모도 관한::그들 미성년 자신도 관한:: 정책을 좀~해야 하는지::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S7-1]은 학습자는 미성년자의 노동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담화이다. 우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미성년 노동자의 입장과 그들을 고용한회사의 입장에서 두 부분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현상에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를 분석하고 정부쪽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 평가형 질문은 대답하는 사람이 원인을 분석하고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학습자는 모두 완결성 있게 과제를 수행했다고평가할 수 있다.

[S5-2] 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실은 저도 정확 하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보기에는::이것은::자기 가정의 상황에 따라, 아니면 부부 사이에 따라, 아니면 부부 성격에 따라 다 달라요. 저 는::결혼하지 않아서<웃음>그래서 잘 모르겠어요.<웃음>근데. 지금 내 생 각에는::부모랑 사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면:: 요즘 그~ 마:::맞벌이 부부/ 어 맞아요? 네~맞벌이 부부는 많잖아요. 그래서, 부부 다, 일 때문에::음~ 집에 그런:: 아이를 돌보는 거기 그런 일, 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면, 더 편하잖아요::그러데, 그러것, 그런 경우도 있어 요:: 음~부부사이에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하는 건::당연하죠. 근데::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은, 불편도 있고, 편한 것은도, 있어요. 이것::정방 반대, 찬성하는 말은:: 진짜 어려워요. 중립적인::(또 있어요?)음~요즘 중국에서 드라마 많이 나 오는 것처럼.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사이의::싸움(2.0) 그런거 많이 있어요. 근데::내 생각에는, 그런 것은::피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어~며느라와 시 어머니뿐만 아니라::딸과 엄마랑::또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는::음~우리다. 참으면 돼요. 진짜::다 어른이잖아요.(1.0) 우리 그냥. 다 존 경한 마음으로 대하면 돼요.

[S8-2] 사실은 제가, 그게~ 언니가 있어요:: 언니는, 그 아이가:: 여러 가지 학원에 보내다고, 보내려고 했는데:: 나에게 좀 의견을 물어봤어요. 근데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만 있어요. 아이에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요즘은:::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거 저거 많이 배워야 되고:: 너무 이런~ 놀 시간도 별로 줄일::줄:: 줄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학원에 보내는 게~ 반대예요. 근데, 반대하는데 어렸을 때:: 학원에 보내는 건, 또 많은 좋은 점도 있어 서:: 음 처음에는 많이 고민해요 (2.0) 왜냐하면, 학원에 보내보면, 아이가 여러 가지 능력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요즘에:: 이런 현상이 너무. 심,심해져서 같이 놀아는 친구도 여러 가지 학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 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아이만 학원에 안가 면~ 좀(3.0) 음~ 친구들 앞에서 머리가 들 수 없어서, 좀 창피할 수도 있 어요. (2.0) 그리고::그리고 요즘 사회에서는 이렇게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 필요하지 않고, 여러 재능이, 재능을 사람 인재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재능:: 가지면, 이 사회 더 잘 어울 릴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학원에 보내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담화 자료[S5-2]와 [S8-2]는 두 번째 질문 유형에 속하며 찬반 논의형 질문에 대한 담화이다. [S5-2]는 젊은이들이 결혼 후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에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말할 내용이다. 시작 부분에서는 격식적인 언어로 중립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찬성할 만한 원인과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찬성인지 반대인지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않았지만 학습자의 의견과 생각을 지속적이고 조리 있게 진술함으로써 질문의 의도에 맞게 과제를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S8-2]는 부모들이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는 현상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 내용이다. 이 학습자는 자기의 경험을 예시로 말하기를 시작하여 이 질문에 대하여 고민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그 다음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좋은 점이 무엇인지도 논리 있게 설명하였다. 위에서 2개 담화의 공통점은 찬반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나 충분한 논거로 자기의 입장과 생각을 말한 것으로 완결성 있게 과제를 수행한 담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용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말하여 일관성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S14-1] 저는 그런 상황을, 반대해요. 왜냐하면 이러 상황은:: 그런 미성 년들이, 자기 그~ 시기에게, 완성의 인식을:: 음~아직 양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 그들이, 성격 중에:: 많이 부족한 점이,도 있어요. (2.0)음~ 그리고, 그들이 사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속이, 속임을 받기 쉬

워요.(3.0) 저의 동창 중에, 그런 아이:: 그런 친구 있어요. 음~그 친구의 경험, 경험 중에:: 좀~ 문제를 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들이, 사회 중에 일할 때:: 많이 불, 불공평 점을 받기, 받아요, 받았어요(4.0) 음~그리고 그들이:: 그런 친구 중에, 많이 <웃음> 연자나 남자, 많이 일찍, 결혼했어요. 그 후에:: 그런 친구 이제, 벌써 아이가 낳았어요. 그런데 좀~ 우리 다시만났을 때, 서로 말, 말할, 말 없고:: 공통점이 없고(2.0) 음~그들이 좀 음(4.0) 너무 형식적인, 사람이 생각해요. 매일 말하는 말이, 그냥 돈, 다른 사람의 관(???) ::많이 원수:: 음~ 좀 소극적으로:: 생각헸어요, 그런 친구.

[S10-3] 만약에 부모님, 그 입장, 출발하면:: 그~ 아이를 키우면::그~ 많이 요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4.0)그~**工**资(월급) 네~ 월급이, 조금 받:: 조금 적은 거 받은데요. 그~ 아이를 키우면, 이런 상황을, 많이 걱정해요:: 그리고 음~ 아이를 키우면, 그~ 음~ 한 사람이:::그 한 사람이 또(7.0) 그리고 그~ 아이를 이런 거 저런 거, 그 생활 용비는:: 많이쓰는 거거든요. 음~ 또 하나 문제는 그~ 돌볼 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해요.(4.0) 정부는, 이런 정책을::음~(2.0) 세워야 돼요. 그 격려♪:: 그~이런 부모들이 아이를:: 음~ 가급적으로:: 그 정책을 세우면:: 부모님 대해(3.0)좋은 점이 있어요

[S14-1]과 [S10-3]는 각각 미성년자의 노동과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두 개 담화에서 공통점으로 발견한 것은 주어진과제를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화 [S14-1]는 미성년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한계점 때문에 쉽게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하고 나서,이 학습자의 친구를 예시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예시에서 언급하는 내용과 그 전에 서술한 이유는 서로 일치하지도 않고 상관성이 떨어져 있었다. 즉 말하는 사람의 관점을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담화 [S10-3]은 생활비 부족과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두 가지 원인을 분석하다가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일관성이 없는 대답을 하였다. 즉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여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Ⅱ장에서 학습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에서 의견 말하기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

는 부분이 내용 생성이나 조직 측면이 아니고 언어적인 측면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이 언어적 측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어 의견 말하기 과제를 수행시킨 후에 중국어 의견 말하기 과제도 시켜보아 두 담화의 내용 측면을 비교해 보았다. 같은 과제에 대한 한·중국어의 담화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S6-1] 제 상각하는:: 혼전 동거에 대해:: 찬~성~하지만 자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전동건은 자기 의지이는데 다른 사람은 그 일에 대해 비핀한 관리가 없어요. 음~혼전 동거는::(3.0) 도,도덕 도덕상에는 불~합리예요. 道德上, 네~많은 사람이 받지 못했어요. (3.0)그런데, 혼전 동거는,음~(4.0)哎呀怎么说呢~혼전 동거는,혼인에:: 결혼 전에,혼전 동거는 그남자 아니 配偶,그 남자는 그 여자의 생활을 알 수 있어서::결혼에 대해::有利<웃음> 怎么说呢? 네~없어요.

[S6-중국어] 婚前同居,哦我赞同这个婚前同居但是我个人不会去那么做,因为婚前同居呢属于是每个人就是的权利,他有选择的权利因为国家说婚前同居并不违法, 但是婚前同居的时候呢它并不会保障,国家没有义务去保障你的责任,就哪怕你是财产被骗啦还是被爱人耍了的这种,它都不会去保护你拥有的那个权利,所以说婚前同居,这是婚前同居的短处,但是婚前同居的长处就是可以在婚姻之前检测你的配偶,看你俩适不适合长时间的在一起居住,也就是互相磨合的一个时期,如果要是不行的话然后就避免了婚姻这个枷锁,要是觉得合适的话就是很有利于婚姻的幸福,不过我认为目前这个社会上大多数人选择婚前同居都只是为了自己的一时的那种私欲.我赞同这个是因为我尊重每个人有他选择的权利,然后所以说我不选择它是因为我在我的思想里是比较抗拒这种东西的。

(혼전 동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혼전 동거를 선택하는 것은 사람마다 스스로의 선택이자 권력이다. 그렇게 선택할 권력이 있다는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니니 때문이다. 하지만 혼전 동거를 하면 법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도 문제 이다. 자신의 제산이 손실되거나 애인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다 법률의 보 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은 혼전 동거의 단점이라고 생각한 다. 그런데 혼전 동거는 단점뿐만 아니라 좋은 점도 있다. 예를 들어 결혼 하기 전에 상대방과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정할 수가 있다. 만약에 결 국은 두 사람이 안 맞으면 혼인에 속박하는 게 피할 수가 있고 두 사람에 게 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거 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냥 일시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다. 아무튼 저는 이런 행위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저 스스로의 생각에서 좀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S6-1]은 6번째 학습자가 혼전 동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말하기 담화이다. 이 학습자는 처음부터 명확한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근거를 밝힐 때도일관성이 없고 조리 없이 발화를 짧게 하고 있다. 또한 발화하는 중 휴지도 많고유창성도 떨어져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 부족하였다. 그러나 아래 담화[S6-중국어]를 보면 먼저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혼전 동거의 장점과 단점을 따로 나누어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어 의견 말하기의 내용도 풍부하고 논리성 있게 과제를잘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학습자의 한국어 발화를 중국어 발화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중국어와 비슷한 담화 내용을 발화하고 싶지만 몇 개 단어만 나열하거나유창하지 않게 문장을 만들고 있다는 양상이 보이고 있었다. 즉 내용 생성이나 조직 측면에서는 중국어 담화와 큰 차이가 없지만 언어적인 어려움이 때문에 담화의주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 (2) 근거 내용의 합리성 부족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에 대한 이유를 대기 마련이다. 이렇게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되는 부분이 바로 논거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어떤 주장이 설득력이 있나 없나를 판단할 때 바로 이 논거가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듣고 판단한다. 특히 공식적인 일방적 의견 말하기의 경우에서 중심 주제가 명료하다 하더라도 주제와 근거 내용간의 긴밀한 연관성이 부족하면 설득력이 있는 의견 말하기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들이 충분히 타당하고 적절한 것인지, 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견이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다음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담화를 살펴보자.

[S7-2] 저는, 찬성하고 있어요:: 음~중매 결혼은, 옛날에 구 사회에서:: 남자, 남녀 구별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랑, 자기 의지로 통할 수 없어요. 또~ 음~이제는 시대, 시간이 지나서, 시대도 바뀌서그래서 남자와 여자가::음~ 자유롭게도 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있어요. 또~왜 제가:: 음~제가, 남자와 여자랑 자유롭게 연애결혼이라는 것을 찬성하는 이유는, 또 제 생각에서는, 사랑은 우리 인생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생각하고 있어요. 또 한 남자가, 여자랑 우연히 만나고<웃음> 또~ 사랑에 빠지면서 (???)결혼하는 것:: 제일 낭만하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2.0) 아마~ 중매결혼 좀:: 그런 다른 사람 시키, 시키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생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매결혼보다 자유 연애 결혼,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에서 제시하는 담화[S7-2]는 연애결혼이 중매결혼보다 더 좋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담화이다. 학습자의 입장이 분명하였으며 중매결혼보다 연애결혼이 더 좋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이다. 먼저 중매결혼과 연애결혼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연애를 통하여 아름다운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는 것이 낭만적이고 믿음직한 배우자를 찾을 때 더 좋은 선택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이기 쉽게 뒷받침을 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20-3]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 음~ 정부쪽으로::
지금 대학에 간:: 영어 시험을, 취소한다고 해요.(2.0) 음~이런 측면에서, 음~ 제가 보기에는:: 국가, 전국가적으로, 영어 시험을 취소하는 것 이,(2.0)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2.0) 음~그리고,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던::한자대회가 있어요<웃음>이런 대화가, 이런 대화와 같은:: 국어와 관한 대화를, 많이 진행하면:: 음~학생과 아이들의, 적극성을::길 수 있어 요. 이렇게 점점 하면::더 좋을 것 같아요.(2.0) 음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음~국어, 국 어와 관한 문학, 문화,(2.0) 그리고 이런::국어와 관한 지식을 많이 가르치 면:: 음~학생들의 주의점을<웃음> 음~ 이런 것에:: 바꿀 수, 있는 것 같 아요. 음~(2.0) 그리고 각각 도시가, 도서관.(2.0) 음~ 무료로, 음~ 개방 할 수 있어요. 음~그리고 책을 보면:: 책을 봐도,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책을 볼 수 있어요.(2.0) 음~이렇게 하면, 학생 아니면, 전 사회의 사람들이, 음~(2.0) 책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음~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유산처럼::음~많이 신청해야 돼요. 우리나라 물화가, 오천년을 이어져왔어요.(2.0) 음~ 그리고 신청하면, 민족 자존심을:: 음~줄 수 있어요. 민족자존심이 생기면:: 음~더, 사람이 음~국어를 공부하려고 해요.(2.0)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 이렇게하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위가 <웃음>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제 영향력도, 많이<웃음> 가질 수 있어요. 네 이상이에요.

해결책 제시형 질문에 대한 대답의 경우는 위의 [S20-3]담화와 같다. 이 학습자는 요즘 중국의 학교나 부모님들이 중국어보다 영어를 더 중요시하는 현상을 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섯 개 방법을 정리하였다. 즉 영어 시험의 개혁, 한자대회의 개최, 학교에서 문학 교육의 개혁, 도서관의 개방에 관한 문제와 문화유산에 대한 태도 등 5가지 방안이다. 이 질문의 의도가 학습자들이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뛰어난 수행력을 보이고 완결성을 가지고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말하기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타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담화들도 많이 있었다. 아래 예시들을 보면 알 수 있다.

[S3-2] 음~반대예요. 왜냐하면 중매결혼은:::뭐~상대방의 중교기, 그~그리고::그 학벌기, 이런건::뭐지? 학벌 그리고::<웃음> 뭐 다른 사람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1.0) 어 그런데, 상대방의 그 내::그 마음속에서, 그럼 생각이::자기 자신과:: 말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혼::이렇게 결혼을 하면, 오래, 오래오래::뭐 계속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그래서, 반대했어요.<웃음> 경험이 없어서요.<웃음> 뭐 한국 드라마에서, 본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이요. 나이가 좀 많아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결혼하고 싶어요.(1.0) 뭐~상대방이 돈이 있는지::뭐지? 앞으로, 돈이 많이 많이 벌 수 있는지, 그리고::음~두 가족::그리고 평등기 네~

위에서의 담화는 3번째 학습자가 중매결혼보다 연애결혼이 더 좋다는 관점에 대하여 찬정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밝히는 내용이다. 이 학습자는 시작부터 반대의 관점을 밝혔는데 뒤에서는 중매결혼의 단점만 언급하였다. 즉 질문에서 제시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서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예시로 설명하고 싶은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과제를 수행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요구된 주제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 학습자에 대한 사후 인터뷰 결과, 말하기를 준비할 때 담화 내용의 큰 틀을 아직은 조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담화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하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4-2] 제가 보기에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 X선-방사 때문에, 눈이나:::아무튼 몸을 건강 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자책을 볼 때 그런 느낌이 없어요. 또::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책으로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그 그냥 그런 성의 있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물론 전자책, 좋은 점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소지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다 볼 수 있어서::편해요. 하지만, 제 개인 생각에는::전자책도 중요해요. 하지만, 종이책::도 없어도 안돼요. 어떻게 말해야죠?(1.0)그리고::제가 그 종이책, 냄세 좋아요. 근데 전자책 그냥~딱딱한 그 물건을 보고::읽:읽을 느낌이 없어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S9-2] 저는 이런 관점을 찬성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자기의 사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자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결혼해요. 처음에 혹시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다를 거예요 여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자기 자아 지키는 것입니다. 취업하는 것이, 또는 돈을 벌 수 뿐만 아니라, 음~ 자기를 풍부할 수 있어요. 또 많이 돈을 벌 수<웃음> 벌면 생활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2.0) 일을 안 하면:: 음~ 혹시 밖에 세상에 떠, 떠나죠:: 음~자기 방에

>웃음> 있으면, 가족:: 다 가족에서, 중심으로:: 음~ 이런 혹시, 가족들이음~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자기는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담화 자료[S4-2]는 전자책을 전통적인 종이책을 대체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밝히는 내용이다. 이 학습자는 초반에는 반대하는 관점을 내세웠지만 여섯 개의 논거들 중에는 찬성하는 내용도 있고 반대하는 내용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자책을 사용하는 단점을 이야기하다가 전자책이 편하다는 논거를 제시하였고, 또 종이책이 필요하다는 다른 이유를 제시하다가 전자책이 싸게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조리 없이 서술하는 것이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주고 있어, 내용의 긴밀성이 떨어지고 초점이 흐리게 될 뿐만아니라, 다소 산만하게 자기의 의견을 설명하고 있는 인상을 남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면 학습자가 의견 말하기 내용을 생성할 때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담화 [S9-2]는 여자들이 결혼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9번째 학습자의 의견을 말하는 담화이다. 이 학습자는 명확한 관점을 밝혔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 내용의 긴밀성이 떨어지고 중심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학습자는 중국어로 과제를 수행할 때 이런 근거 내용의 산만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담화를 살펴보자.

[S9-중국어] 赞成,我赞成这个观点,因为我觉得现在就是**男女都是平等的**,每个人都应该独立的,无论男女我们应该有自己的事情做,就是做事情吧可能不是为了单独的做事情,做事情的过程中我们是更加丰富自己的,尤其是对于女性来讲,我感觉女的不应该完全的依靠男的,因为我们就是刚开始跟他在一起的时候可能是因为感情或者因为什么在一起的,但是时间长了的话我感觉这种状况会变,就是我感觉其实女的呢在做事情的这个过程中也是为家庭奉献,而且也是就是希望这个家庭过得更好的一个过程,因为你在做事情的过程中你可能不断地丰富自己,不断的完善自己,你完善自己别人才会越来越喜欢你,所以我觉得女性最应该做的事情就是使自己越来越好.

(찬성해요. 지금 사회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고, 사람다다 다 독립적인 존재여야 해요. 남자든 여자든 나름대로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때는 일을 해도 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풍부하기위해서 하는 것지요. 특히 여자는 남자를 너무 의지하면은 안돼요. 처음에둘이 같이 있었을 때 사랑 때문에 서로 감정이 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바꿀 거예요. 여자들이 일을 하면 가정에 대해서도 보태가 되고 자신에 대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완성도하고 풍부할 수 있어요. 이

대야 상대방이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 기에는 여자기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에요.)

이 학습자는 한국어로 이 주제에 대해 말할 때는 일관성이 없이 서술하였지만 같은 내용을 중국어로 말할 때는 더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발화하였다. 사후 인 터뷰를 실시하여 확인한 것은 학습자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준비된 내용이 많지만 한국어의 언어적인 어려움, 예를 들면 어휘에 대한 불숙(不熟)과 정형화된 표현 문형에 대한 생소함 등 때문에, 언어 표현을 생각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 유창성 도 떨어지고 내용 구성도 산만해졌다고 답하였다.

이상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인터뷰에서 발화된 의견 말하기 담화의 과제수행 양상을 분석하였다. 정리하여 말하면 질문의 유형에 따라 질문을 완결성 있게 수행한 담화는 23개로 38.3%를 차지하고, 주어진 과제를 제한적으로 수행한 담화는 61.7%를 차지하여 37개가 나타났다. 이러한 담화를 중국어 사후 인터뷰에서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한 학습자들이 똑같은 문제를 중국어로 의견을 말하는 담화와 비교하여 알게 된 것은, 학습자들이 준비한 말하기 내용이 비슷하지만 중국어로 발화하면 완결성과 일관성이 있게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점을 볼 때, 또 학습자들에게 진행한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학습자들이 의견 말하기 과제를 수행할 때 어렵게 느낀 것은 내용의 생성 부분보다는 한국어로 머릿속에서 준비하였던 내용을 배열하는 것이고, 정확한 표현을 활용하여 일관성 있게 말하기를 발화하는 것이다.

외국인 학습자는 모어가 아닌 외국어를 사용하여 논리적인 말하기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에 인지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견 말하기 담화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이 발화할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동시에, 어떤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내용을 한국어로 표현할지도생각해야 한다. 이때 '외국어 산출'이라는 인지적 부담이 작용하면서, 머릿속에서조직한 상세한 내용들이 발화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논리적 구성에서 중간의 어떤단계가 누락되어 산출되기 쉽다. 따라서 말하기의 내용을 연결하여 한국어로 더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발화할 수 있도록 한국어의 언어적인 지식과 담화 구성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2) 의견 말하기의 내용 조직

내용 조직 측면은 말하는 내용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한 내용의 구성이 일관성이 있는지, 말하기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과제의 수행이 말할 내용을 생성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면 내용 조직은 말하기 준비 단계에서 생성한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하여하나의 담화를 생산하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질문 내용에 알맞은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정하고 학습자가 산출해 내는 발화의 조직 방법 등이 얼마나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인터뷰 담화에서 의견을 말할 때 바람직한 내용 조직의 기준은 담화의 구성이 짜임새 있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 조직적으로 연결하고 관련지어, 일관성 있게 내용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생각을 나열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의미 있게 통합하고 조직하는 작업이다. 이를 크게 나누면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 연역적 조직, 귀납적 조직, 앞뒤 상응 조직과 순차적 조직 등 네 가지 방법이 있으며<sup>34)</sup>. 학습자들의 담화 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연역적 조직

연역적 조직은 개괄적인 의미를 정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실, 사건 등 세부 사항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분석 평가형과 찬반 논의형 문제에서만 나타났다.

[S8-1] 제 생각에는, 아마 아무것인지:: <u>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u> 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좋은 것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sup>34)</sup> 양현주(1999)는 말하기 준비 단계 활동으로 '사고도'를 주로 내용을 논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사고 모형을 아래 표처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말하기의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 연역적 조직, 귀납적 조직, 앞뒤 상응조직과 순차적 조직으로 부른다.

연역형	귀납형	삼단형	병진형	
3 4 5	1 2 3 4	2 5	1 2 3 4 5	

요. 음~좋은 거는 아마 이 나라의 사람이:: 음~ 죽고 있어서, 사람들의, 그 게~ 환경이나, 복지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좋은 것보다는, 나 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나쁜 것은:: 아래 것,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 부족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발전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2.0) 만약에 이 나라의 인적자원이 부 족하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나오고 이 나라의 발전 속도도 줄이라고 생 각해요:: 두 번째는 노령화문제도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출산율이 줄이면:: 유~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 아이:: 청소년들이 줄 이고 있잖아요. 노인들이, 이 사외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노령화 문제 가. 그냥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노령화 문제가 심하면::음~사회문제나. 이 나라의 경제, 정치, 이런 걸~ 이런 것은 발전하는 것에:: 좀~ 큰 영향 을 미치다고 생각해요.(3.0) <웃음>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에:: 그 출산 율이 너무, 심하게 줄이면:: 이 나라에서 제일 나쁜 것은:: 경제, 국방, 정 치:: 이런 것도<웃음>음~ 이런 것도(4.0) 아마~ 약해지는 것도:: 있을지 도 몰라요. 음~그리고::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면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마, 국가측, 나라측의:: 지배자측의, 아마~ 사람이 출산을:: 시키/ 就是~促进, 추진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네~격려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복지도 많이 주고:: 음~왜 나하면 이런 거, 많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으면, 사람들의 이런 출산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요즘에, 한국에서 아이가 낳고:: 그 나중 에 아이를 키우고 대학교까지 해주는 게:: 제일 돈이 많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출산율에 대해:: 출산율이 줄이는 이유는 이거 하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배층들이:: 이거 복지, 많이 줄 수 있으 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S9-2] 저는 이런 관점을 찬성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자기의 사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자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결혼해요. 처음에 혹시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다를 거예요 여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자기 자아 지키는 것입니다. 취업하는 것이, 돈을 벌 수 뿐만 아니라, 음~ 자기를 풍부할 수 있어요. 또는 많이 돈을 벌 수<웃음> 벌면 생활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2.0) 일을 안 하면:: 음~ 혹시 밖에 세상에 떠, 떠나죠:: 음~자기 방에<웃음> 있으면, 가족:: 다 가족에서, 중심으로:: 음~ 이런 혹시, 가족들이 음~ 행복

하게 살 수 있지만 자기는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위에서 [S8-1]은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의견 말하기 담화 자료이다. 시작 부분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자기의 중립적인 관점을 밝혔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무엇인지 근거를 분류하여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언급하고 있어 연역적 조직의 좋은 예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먼저 자신의 중립적인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한 다음에 양면의 근거를 순서대로 서술하는 내용전개 방식은 분석 평가형 문제에서 적절하다고 알 수 있다. 특히 인터뷰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중요한 결론부터 발화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담화의 완정성에도 중요하다.

담화 [S9-2]와 같은 찬반 논의형 질문에서 연역적 조직인 담화가 제일 많이 나타났다. [S9-2]는 여자들이 결혼 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담화로써 연역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S8-1]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발화자의 찬성하는 관점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연역적인조직 방법은 인터뷰에서 수집한 충 60개 담화 자료 중에 제일 많은 21개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평가적인 인터뷰 담화에서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의견을물어볼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 인터뷰에서 알게 된 것은입장, 의견을 말할 때 먼저 간단하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다.

#### (2) 귀납적 조직

귀납적인 조직은 필요한 내용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관점이나 결론을 제시하고 끝맺음을 하는 방식이다. 수집한 담화 자료 에서 귀납적인 방법을 취한 담화들이 많지 않았다.

[S8-2] 사실은 제가, 그게~ 언니가 있어요:: 언니는, 그 아이가:: 여러 가지 학원에 보내다고, 보내려고 했는데:: 나에게 좀 의견을 물어봤어요. 근데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만 있어요.

아이에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요즘은:::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거 저거 많이 배워야 되고:: 너무 이런~ 놀 시간도 별로 줄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은:: 좋지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학원에 보내는 게~ 반대예요. 근데, 반대하는데 어렸을 때: 학원에 보내는 건, 또 많은 좋은 점도 있어서:: 음 처음에는 많이 고민해요 (2.0) 왜냐하면, 학원에 보내보면, 아이가 여러 가지능력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현상이 너무. 심,심해져서같이 놀아는 친구도 여러 가지 학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 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아이만 학원에 안가면~ 좀(3.0) 친구들앞에서 머리가 들 수 없어서, 좀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그리고 요즘 사회에서는 이렇게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 필요하지 않고, 여러 제능이, 제능을 사람 인제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렸을 때부터여러 제능:: 가지면, 이 사회 더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학원에 보내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S17-3] 개인 정보, 노출이라면:: 그 최근에:: 그 '검색'이라는 영화를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는, 개인 정보 노출 문제에 대한, 그 영화인데요. 그~사실 중국에서:: 그~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너무 심하::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음~통신회사가, 우리 정보를 팔 거나:: 음~학교가 우리정보를 팔거나:: 이런 뉴스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가 심하지만. 제가 특별히, 그~뉴스 기자가 개인정보 노출에,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을, 너무 불만합니다. 기자가 개인정보 노출에,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을, 너무 불만합니다. 기자가::음~그 뉴스가(3.0) 핫이슈가, 되기 위해서, 그~ 이런(2.0) 음~사람의 논을, 끌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음~(2.0) 뉴스로 만드는 것을::: 네~ 그래서 기자의, 도덕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실명제 지금, 중국에서::어~ 기술적인 보안, 보장:: 그~같이 있어야 됩니다. 뭐~그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지요:: 네~ 이정도요.

[S8-2]는 부모들이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히는 담화이다. 이 학습자는 자기의 경험을 예시로 시작을 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먼저 제시하였다. 그 다음 학원에 보내는 것의 좋은 점을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중립적인 태도를 표명하였다.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이 학습

자가 관점 표명으로부터 말하기를 시작하기 보다는 자신의 예시로 시작하는 것이 청자의 눈길을 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안에 준비한 담화 내용 을 완결성 있게 발화할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전개 방식을 권장하지 않는 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개인 정보 노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S17-3]도 귀납적으로 담화 내용을 조직하고 있으며, 말하기가 시작할 때 바로 방안을 말하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그 다음에 해결방 안으로 도덕적인 교육을 시켜야 하고 기술적인 보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담화의 경우에는 내용 전개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만, 질문에서 요구된 과제를 수행하였는지, 즉 방안에 대한 내용이 너무 적은 분량으로 늦게 나타나서 과제에 벗어난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평가할 때 아쉬움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해결책 제시형 문제에서 결혼을 마지막으로만 제시하는 귀납적인 조직을 수행하기 보다는 순차적인 조직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귀납적 조직을 취한 담화 수는 6개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한 담화가 인 터뷰이기 때문에 학습들이 대부분은 보수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귀납적인 조직으로 담화를 구성하려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서술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인상을 주기 쉽고 논리성이 떨어지는 가능성도 높다.

#### (3) 앞뒤 상응 조직

학습자들의 인터뷰 담화 자료에서 연역적 조직과 귀납적 조직을 결합하여 담화의 앞뒤가 상응하도록 내용을 조직한 경우도 있었다. 즉 시작 부분에서 먼저 관점을 표명하고, 중간 부분에서 근거를 제기한 후에 마지막에서 정리하여 다시 한 번자기의 의견을 밝히는 방법이다. 담화 예시를 보자.

[S12-1] 저는 국제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음~ 첫 번째, 저는 부모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서로 구통할 수 없습니다. 음~ 두 번째는::음~ 우리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고,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2.0)음~ 그래서 우리 음~ 같이 살면:: 생활방식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생활 환경이, 달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잘 지내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들은 결혼하면:: 우리 아이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기는:: 어디에 생활::생활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래서 이것은, 고민한 문제입니다. 오::어不처, 다섯 번째, 우리 가족은, 전통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는::어떻게::: 음~ 대하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S19-2 ]인터넷 실명제는, 요즘 그~ 인가가 좀 많은 화제죠. 한국에서 이 미. 실행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또~ 실행하려고 노력중이래요. 네~ 그리 고:: 그~우리 반 친구들 중에, 그~대학 졸업 논문:: 한 친구가, 인터넷 실 명제 대한:: 썼어요. ㅇㅇ이에요:: 예~그래서 그 대학 4학년 때, 또 이 실 명제에 대하여 조금 공부했어요. 수업시간에서는. 이런 장단점 같은 게:: 토론도 좀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에요. 찬성해 요:: 그~(3.0) 제일 첫 번째로는, 그 인터넷:: 지금 인터넷을 잘못 이용해 서. 그 범죄 치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명제:: 그~ 그렇 게 하게 되면:: 그~ 범죄률, 줄이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다~그 이런 인터넷 질서를, 음~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다 좋은 점이 아니예요. 그~ 나쁜 점도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인 터넷에서, 그~ 비밀을 그~ 좀 알려고:: 그~이름 없는 투표, 선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 실명적으로 하면:: 그 국민들이, 걱정이 좀 되 잖아요.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이 돼요. 음~ 얼론 자유 면에서 보면:: 그~방해가 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위에서 [S12-1]은 국제결혼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 말하기 담화이다. 시작 부분에서 국제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원인을 다섯 가지로나누어 서술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자기의 의견을 강조하였다. 전체적으로보면 이 담화는 좀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우나 과제 수행의 입장에서 평가하면 질문에서 요구된 부분을 다 수행하여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완결성 있게 표현한다고우수한 편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대조적으로 [S19-2]는 자연스럽게 이 과제를수행하고 내용 조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예시이다. 먼저 이 학습자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배경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찬성하는 관점을 표명하고 있

다. 논술 부분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나쁜 점을 나눠서 제시하고 있고, 결론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찬성한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찬반 논의형 질문을 수행할 때 시작 부분에서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여, 마무리 부분에서 이 전의 담화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과제 수행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수집한 담화 자료에서 상응 조직 방법을 선택한 담화들이 11개로 18.3%를 차지하고 있다. 앞뒤 부분 상응하는 조직 방법이 연역적인 조직과 귀납적인 조직의 특징을 종합하여, 단도직입적인 시작과 내용을 정리하는 마무리를 포함한다. 인터뷰 담화에서 학습자들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말할 때 바람직한 조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생각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화의 완결성과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게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

#### (4) 순차적 조직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직 방법 외에 정보나 내용의 순서대로, 시간이나 장면의 흐름대로 말하는 순차적 조직 방법도 있다. 수집한 담화 자료를 분석하면 해결책 제시형 질문에서 순차적 조직 방법을 취한 담화들이 아래와 같이 있었다.

[S13-3] 제가 생각하기로는, <u>우선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u>:: 학생들이 재학 때,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배양함, 배양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학 때, 공부하는 것이, 사회에 들어가면::거의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음~ 우리는 재학할 때, 사회를 조금 들어가고:: 다른 경험을, 얻을 수 있어요.(3.0) 그리고 음~ 자기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해요. 나중에는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나중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지:: 그리고 음~ 그 목적을 위해서, 재학 때 그~ 어떤 노력을, 자격을 필요하는지:: 잘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u>두 번째는, 그 회사, 회사의 입장에서:</u> 회사는::음~ 직원들은 고를 때:: 대학생:: 명문 졸업생:: 그런 사상은, 조금<웃음> 심해요. 그래서:: 명문 대학에서 나오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로:: 그 학생은 대단해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아마 대단한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명문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학생도 좀:: 뽑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는, 요즘 내념 졸업생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면:: 음~ 좋겠어요.(4.0) 네이상입니다.

[S4-3] 제가 보기에는, <u>일단은::이런 경우 있으면, 벌칙으로::음~하면 좋겠어요</u>. 그리고 우리::<u>광고를 통해서</u>::사람들은, 사람들은::이런 행위는 안된다고:: 애기하면 좋아, 좋겠어요. 그리고 <u>학교에서 선생님들은</u>:: 음~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경우 할 때 아마 다칠 수도 있다고:애기하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불법이라고::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음~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이런 정면 에너지를 통해서::음~사람들은(2.0)그냥 좋은 행동으로::알려줄 수 있고, 이런 경우 더::적어질 수 있어요. 음~<u>부모님들도</u>, 음~자기의 아이한테::자주::좋은 자세를::모범으로 음 볼 수 있고:: 아이들은 그건 경험으로, 적어질 수 있어요. 네 이상이에요.

담화 [S13-3]은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낮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 내용이다. 이학습자는 개인, 회사, 정부의 입장에서 3가지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작 부분에서 내용을 소개하는 말과 마지막에서 정리하는 말도 없지만, 자신의 관점을 미시적인 측면에서부터 거시적인 측면까지 순차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과제를 잘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차적인 조직으로 해결책을 말하는 것이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S4-3]은 4번째 학습자가불법적인 미성년자 고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말하기 내용이고, 다소 정리되지 않은 내용으로 여러 논거들을 열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법칙으로 하면 좋겠다', '홍보로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한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야 한다',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세워야 한다', '부모님들도모범으로 행동해야 한다' 등 논거를 열거하여 정확하게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어, 내용의 긴밀성이 떨어지고 초점이 흐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Ⅲ-1>와 같다.

	연역적	귀납적	앞뒤상응	순차적	기타	충
	조직	조직	조직	조직	714	8
분석평가형	10	3	4	1	2	20
	50%	15%	20%	5%	10%	100%
찬반논의형	11	1	7	0	1	20
	55%	5%	35%	0%	5%	100%
해결책	0	2	0	16	2	20
제시형	0%	10%	0%	80%	10%	100%
喜。	21	6	11	17	5	60
	35%	10%	18.3%	28.3%	8.3%	100%

<표 Ⅲ-1> 질문 유형별 내용 조직 방법

위에서 <표 III-1>를 보면 연역적 방법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담화수가 제일 많고 21개로 35%를 차지하고 있고, 순차적 조직(17개, 28.3%), 상응 조직(11개, 18.3%), 귀납적 조직(6개, 10%)이 그 뒤에는 따른다. 학습자들의 담화 자료에 대한 분석과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한국어 말하기 인터뷰에서 학습자들이 의견을 말하기 위하여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연역적인 내용 조직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해결책 제시형 질문에서는 자기의 제안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기하기 위하여 항목화 하여 순차적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글씨기의 마무리 단계에서 앞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는 전략이 자주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말하기를 할 때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자기의 관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앞뒤 상응하는 조직도 많이 쓰였다.

질문 유형별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내용 조직 방법을 보면, 분석 평가형 질문과 찬반 논의형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연역적인 방법이 각각 10개, 11개로 50%와 5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학습자들이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 듣는 사람이 더명료하게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제 수행에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해결책 제시형에서는 순차적인조직을 선택하는 담화는 16개(80%)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해결책의 제시는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학습자들은 자기의 방식으로 서술을 전개하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담화의 완결성도 높일 수 있다.

# 4. 전략 사용 층위

커넬과 스웨인(1980)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의사소통에서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은 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떻게 생산적으로 의미를 전달할지와 연결하여 소통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절에서는 인터뷰에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말하기를 준비한 후에 일방적인 의견 말하기를 발화할 때의 전략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코드 전환

코드 전환 전략은 목표어를 말하다가 모국어 또는 다른 외국어로 말하는 전략이다. 즉 학습자가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나 제3언어(영어 등)를 한국어의 음운 현상이나 형태에 맞게 번역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태나 단어의 변형 없이 그대로 발화안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모국어인 중국어로의 전환은 코드 전환 전략 중의 한 가지 방법이다. 타로네와 율(Tarone & Yule, 1983; 진제희, 2000: 10 재인용)은 학습자가 코드 전환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청자와의 사이에 공유된 언어 지식, 언어 상황이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관점은 코드 전환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본연구에서의 인터뷰는 중국어 모어 화자인 연구자가 인터뷰어로서 중국인 학습자를인터뷰한 것이기 때문에, 수집한 담화 자료에서 나타난 코드 전환은 거의 중국어로(영어는 2회만) 이루어지고 지식 결함, 도움 청함, 내용 확인함 등에 의하여 나타났다.

# (1) 지식 결함

한국어 인터뷰 상황에서 학습자는 가지고 있는 한국어 지식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의 벽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언어 자원의 결함 상태에 도달했을 경우 학습자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해결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국어전환이며 제 2언어 학습자가 한국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 언어 능

력의 결함을 메우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 (f) ㄱ. 먼저 부모님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해요.(2.0) 부모는:::이런 관점이 있어야 해요:: 영어는(2.0) 음~工具:: 工具이다.
  - ㄴ. 그리고 단순히:: 단지 그~餠售量을 봐서, 사면 안돼요. 여러 요소를 봐서 평가:: 친구들이,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쇼핑하는 건 좋아요.
  - こ. 그래서::그 사람들은 국제결혼에 대해서 좀::다른~ 어떻게 말해야 돼요?
     其他色彩, 其他的成分::어 우리 생각에는. 결혼, 그런 거는::사랑과, 감정, 둘이:::원래 결혼은, 이런 거잖아요::
  - 리.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쪽으로, 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음~아니면은 아마도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어~이런 상황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나,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거나:: 그 红十字会있잖아요 중국에서도:: 같은 단체에서나::음~돈 아니면 다른, 법률적으로(생략)..
  - ロ.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문자대화 밖이:: 밖에서, 다른 중국::중국 문화에 대해, 대회를 많이:: 실행하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음~ 예를 들 면 중국의 그::음~ 俗谈이 많아요::
- (f¬, ㄴ, ㄷ)는 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인터뷰 담화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모국어 전환을 사용하였다. 공동적인 것은 모국어로 전환하기 전에 주저함의 신호인 '음, 그, 어떻게 말해야 돼요?' 등의 신호가 있으므로 한국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f¬)는 영어는 하나의 '工具'(도구)라고 하면서 영어에 대한 관점을 밝히고, (fㄴ)는 인터넷 쇼핑을 할 때 '销售量(판매량)'만 참고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표현하며, (fㄷ)는 어떤 사람들이 국제결혼에 대하여 '其他色彩, 其他的成分(전통적인 생각과 좀 다른 색체를 띤 생각)'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fㄹ)의 경우에는 '红十字会(적십자회)'로 예시를 들고 미성년자 노동력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관점을 밝히고 있다. (fㅁ)에서는 학습자가 '속담'을 잘 몰라서 중국어로 '俗谈'을 그대로 담화에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담화를 분석했을 때 한국어 단어를 몰라서 중국어로 전환하여 쓰는 경우 외에, 문구나 문장을 한국어로 발화하기 어려워서 한 문장을 그대로 중국어로 발화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g) 기. 왜냐면,대학생이, 증명서뿐만 아니라, 다른::: 제능도 있어요. 그런데 증명서가, 증명서만 보면:: 학생의 본:: <u>嗯就是, 大学生本来的其他的闪光点 就看不到了.</u> (한국어로 하세요.)네~<웃음>증명서만 보면 대학생, 다른 장점이:: 보지 못했어요.

니.이러하면, 就是, 정부:: 정부는 더 관리할 거예요. 그~인터넷에서:: 경찰들이 많이 있으면:: 就是,多安排一点网络警察.

담화 (gㄱ)은 한 단어를 중국어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을 그대로 중국어로 발화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학습자는 한국어로 자신의 의견을 한국어로 발화하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연구자가 한국어로 다시 해 달라고 하였더니 한국어로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로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학습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보다는 확실하지 않아서 한국어를 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gㄴ)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처음에는 학습자가 '인터넷의 안전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을 한국어로 표현하기 위하여 시도를 하였다가 결국은 중국어로 발화를 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학습자들에 대한 중국어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한국어로 말하기할 때 어떤 어휘나 문구를 모르거나 적절한 단어를 못 찾았을 때, 인터뷰 담화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중국어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모국어 전환의 사용은 의사소통의 두 가지 기본 원칙과 관련시켜 볼 때 특히 '경제성'의 원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진제희, 2000: 11). 이는 말하는 사람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처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국어 전환을 사용하려면 상대방도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여야 한다.

#### (2) 도움 요청

수집한 인터뷰 담화 자료를 분석하면, 모국어인 중국어로 도움을 청하거나 이미 말한 한국어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모국어 전환을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 났다.

- (h) ㄱ. 만일, 실명제 있어, 있으면:: 그~ 이런 거::用中文行么?
  - 다. 그런데, 혼전 동거는, 음~(4.0)哎呀怎么说呢~혼전 동거는, 혼인에:: 결혼 전에, 혼전 동거는 그 남자 아니 配偶,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생활을 알 수 있어서:: 결혼에 대해:: 有利<웃음> 怎么说呢? 네~없어요.
  - C. 왜냐하면, 중국으로 예를 들면, 음~ 정부는 전국 교육 보급 작업이:: 음~"做的不 是很好"怎么说呢?
  - □. □~ 부모님은::: 왜냐하면 많은 이런 상황은, 미성년은:: □~ 나쁜 사람에게 괴해::음~시골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점에서, 미성년의 부모는, 자기 아이를 잘 '看护'怎么说?

위에서 (hㄱ, ㄴ, ㄷ, ㄹ)는 학습자들이 중국어로 연구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담화들이다. (hㄱ)는 휴지와 어휘를 반복적으로 더듬거리다가 '用中文行么(중국어로해도 되는지)'를 하며 과제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표현하였다. 담화(hㄴ)도 마찬가지로 긴 휴지를 반복적으로 한 후에 중국어로 '怎么说呢(어떻게 말해야 되죠)' 은근하게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났다. (hㄷ)는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연구자에게 "做的不是很好'怎么说呢?('제대로 실시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라고 질문을 던졌다. 담화(hㄹ)도 "看护'怎么说(한국어로 看护는 뭐예요)"라고 모르는 단어를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다. 학습자에게 실시한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이러한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자 의견을 말할 때 자신의 의견을 순조롭게 펼치기 위하여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인터뷰 같은 말하기의경우에서 학습자가 침착하게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았다.

타로네와 율(1983: 85)에서는 학습자가 코드 전환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과 공유된 언어 지식, 언어 상황이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모국어로 코드 전환이 학습자가 의사소통하는 상대방, 즉 중국인인 연구자와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진제희, 2000: 184). 여기서 학습자들이 중국어로 도움을 청하고 있음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때는 인터뷰가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학습자에게 알려주었다. 여기서 보면 학습자들이 말하기로 자기의 의견을 밝힐 때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3) 내용 확인

크라셴(Krashen, 1977)에서 제시한 의사소통의 두 가지 기본 원칙, 즉 명확성과 경제성과 관련시켜보면 코드 전환의 사용은 특히 '경제성'의 원칙으로 설명할수 있다. 전제희(2000: 185)에서는 '근본적으로 목표가 세워지면 이상적인 화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비용이 덜 드는 언어적 행위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이 처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공식적 인터뷰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견 말하기를 할 때 언어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국어로 다시 반복하여 자신의 뜻을 확인하는 경우도 나 타났다. 학습자 사후 인터뷰 결과 의견 말하기인 만큼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밝 히는 것이 목표로, 말하기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불확 실한 내용을 한국어로 말한 후에 중국어로 다시 확인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아래 담화를 살펴보자.

- (i) ㄱ.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사는 게:: <u>마찰</u>::摩擦:: 아 <u>갈등</u>이:: 이런 거 예요. 그래서 갈등 때문에, 서로가 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 ㄴ.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미성년자 고용을 하고 있는:: 회사나, 사장님이나:: 일단은 그~실제적으로 그~ 이익기 그~ 利益:: 그것 때분에:: 가격이 싸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 C. 첫 번째는 아마, 국가측, 나라측의:: 지배자측의, 아마~ 사람이 <u>출산을::</u> <u>시키</u> <u>\* 就是~促进</u>, 추진하기 위해서::(격려하기?) 네~격려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복지도 많이 주고...
- 리. 이런 경우에 의해:: 사람, 사람들은: <u>나중에:: 음~ 늙으면 보장</u>:: <u>老了有保</u>

   障 음~이런 것 같아요.
- ロ. 음~이런 미성년에게 교육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그들에게 교육기회가 있으면:: 이런 상황을 막힌 데, 도움이 있어. (2.0)음~그 다음에 정부는, 기업에게:: 법률(3.0) 보급:: <u>对企业的法律普及</u>:: 이런 미성년:: 고용 문제에 관한 법률을, 기업들에게 교육을:::그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려주면::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ロ. 그런 전자책:: 편리하지만, 본 후에::음~봤을 때:: 그 중의, 음~내용을 잘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 후에(2.0) 전여도, 이 기억한 점이 없는:: 상황이 많아요:: 음~就是能记住的东西不多::
- (i)는 학습자들이 인터뷰에서 한국어로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불확실한 내용을 다시 중국어로 제시하고 강조하는 담화들이다. (iㄱ)은 '갈등이 생기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갈등'은 중국어 뜻인 '摩擦'의 발음 직역으로 '마찰'로 잘못 말하다가 중국어로 다시 설명하였다. 그 다음에 정확한 어휘가 생각나고 자기 수정을 하였다. (iㄴ)의 경우는 '이익'의 발음이 어려워서 중국어로 '利益'를 다시 말하면서 자기의 뜻을 확인하고 강조하였다. (iㄷ)은 한국어에서 정형화된 어떤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나타난 경우들이다. 학습자가 '출산을 격려하다'를 몰라서 '출산을 시키다'라고 한 후에 중국어로 자기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 (iㄹ, ㅁ, ㅂ)는 한국어로 발화하고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어떤 단어가 아니라 한 문장을 중국어로 다시 발화하는 예문이다. (iㄹ)은 '노후에 생활이 보장하다'를 몰라서 1초의 휴지 후에 직접 중국어로 '老了有保障'이라는 문장으로 전환하고, (iㅁ)도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한 법률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는 문장을 한국어로 유창하지 않게 발화를 한 후에 상대방이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도록 중

국어로 다시 반복하고 있다.

사후 인터뷰에서 학습자들은 말한 내용을 중국어로 다시 말하는 이유로 한 가지만을 대답하였다. 의견 말하기인 만큼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잘못 발화하는 것을 염려하여 중국어로 상대방에게 확인하기위함이 그것이다.

## (4) 무의식적 전환

그러나 모든 코드 전환이 학습자가 의도적으로 행동한 결과는 아니다. 아래 문 장을 보자.

- (j) 기. 우리 선생님도 <u>那个</u>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어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 L. 그런데 음~지금, 그런 경우도 있어요. <u>就是</u> 인터넷에서 사는 것이, 품질 이 좋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 다. 네 번째는, 우리들은 결혼하면:: 우리 아이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기는:: 어디에 생활::생활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민한 문제 입니다. 오::어不저, 다섯 번째. 우리 가족은, 전통 가족입니다.
  - 리. 넷 번째, 남녀 혼전 동거 비용 문제. 어~대대수기 대대수 가족, 가족에게, 가족의 비용:: 反正 많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나는 혼전 동거에 대해 서::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ロ. 다른, 두 사람은, <u>然后是</u> 몇 년에, 몇 년 동안:: 잘 만나고, 잘 상대방을 이해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생황 중에서:: 서로를, 잘 아껴줄 줄 알고:: 상대방을 더, 이해할 거예요.
- (j¬, ь, ь, ь, ь)는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보상적 의미에서 취해진 결과라기보다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언어 전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예

문에서 중국어 '那个(저기, 그)' '就是(즉, 곧)' '不对(아니)', '反正(어쨌든)', '然后是(그 다음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망설임이나 어려움의 표시가 없다. 예를 들면 (ic)는 네 번째를 서술하고 '다섯 번째'라고 5를 고유사로 해야 하는데 잘못 한자사인 '오'를 말하였다. 이것을 깨달았고 나서 바로 본능적으로 '아니'라고 수정하였다. 즉 이때의 '不对(아니)'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의식적으로 사용되었다 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사용된 코드 전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중국어 채운말이나 간투사의 사용은 인터뷰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담화에서 중국어 전화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Ⅲ-2>과 같다.

구분		출현 횟수(회)	백분수
의식적인 전환	지식 결함	15	28.3%
	도움 청함	5	9.4%
	내용 확인함	14	26.4%
	기타(고유명사)	3	5.7%
무의식적인 전환		16	30.2%
초		53	100%

<표 Ⅲ-2> 모국어 전환 현상 빈도표

위의 <표 III-2>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모국어 전환 현상이 총 53회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 무의식적인 전환은 16회로 30.2%를 차지하여 제일 많이 출현하였다. 그 뒤에는 지식 결함에 의한 전환 현상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전환 현상이 각각 15회, 14회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여 2위와 3위에 서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한 경우는 5회가 나타나며 중국어인 고유 명사 등을 모국어 전환을 사용하는 경우는 3회로, 각각 9.4%와 5.7%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빈도의 분석 결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인터뷰에서 의견 말하기를 할 때 겪고 있는 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말하기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하면 습관적으로 중국어로 채우고자 하였으며 이는 한국어 지식의 결함에 의하여 나타난문제이다. 언어적인 지식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말할 내용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아예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 밝혀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2) 바꿔 말하기

바꿔 말하기 전략은 의사소통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제2언어 학습자가 목표언어로 발화를 하는 중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거나 설명함으로써 그어려움을 일으킨 단어나 발화 부분을 대체하여 말하는 것을 뜻한다(Tarone, 1977). 제2언어 의사소통에서는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라도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회피하여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다(Malgazhdarova, 2010).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 중요한 제2언어 의사소통 능력 중의 하나다. 진제희(2000: 189)에서는 제2언어 근거 전략인 바꿔 말하기 전략은 학습자들이이미 소유하고 있는 한국어 지식을 활용하여 제2언어 사용을 유창하게 하는 데에도움이 되며 안정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라고 제시한 바가 있었다. 이 절에서는 바꿔 말하기 전략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과 근접한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1) 풀어서 표현하기

우선 우회적 표현으로 바꿔 말하는 것은 적절한 한국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사물의 특징이나 성분을 풀어서 설명하는 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가 말하고자하는 대상의 특징적인 요소를 자세히 설명하거나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면서의사소통하는 전략으로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으로 나타났다.

[S8-1] 출산율이 줄이면:: 음~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 아이:: <u>청소년들이</u> 줄이고 있잖아요. 노인들이, 이 사외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u>이런 문제</u>가, 그냥 심해지고 있어요.

[S13-3] 그리고 음~ 자기는, <u>그런 의식</u>을, 가져야 해요. <u>나중에는 자기는</u>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나중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지:: 그리고 음~ 그 목적을 위해서, 재학 때 그~ 어떤 노력을, 자격을 필요한 지:: 잘 생각해야 해요.

[S19-2] 만약에 인터넷에서, 그~ 비밀을 그~ <u>어떤 일</u>을 하고:: 그~<u>이름</u> <u>없는 투표, 선고 같은 게</u>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 실명적으로 하면:: 그 국민들이, 걱정이 좀 되잖아요.

위에서 세 가지 담화는 학습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어휘나 대상을 한국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때 그의 기능이나 특징을 설명하여 구체적인 묘사로써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예시들이다. [S8-1]는 '노령화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청소년들이 줄이고 있다,' '노인들이 이 사회에서 제일 많다'고 하면서 '노령화'의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였다. 이 학습자는 사후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하였을 때 '노령화'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몇 문장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였다고 대답을 하고 있다. [S13-3]는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있으며 학생들이학교에 있을 때 나중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미리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여, 추상적인 '그런 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S19-2]는 실명제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라는 사물을 '이름 없는 투표, 선거'라고 말을 풀어서 구체화하게 바꿔 말하였다.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추상적인 내용을 먼저 간단한 표현으로 내세우고, 그 다음에 더 긴 문장을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풀어서 표현하는 것은 한국어 말하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어떤 정확한 어휘, 표현을 몰라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서 바꿔 말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아래와 같이 전문적 개념이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꿔 말하기 전략을 사용하는 담화도 있었다.

[S17-1] 중국에서 그, <u>출산계획이 있는데,</u> 그~ <u>한 부부가 아이 하나밖에 날을 수 없다는, 규칙을 말합니다.</u> 그런데 최근에, 그~ 외동딸, 또는 외동아들은, 그~ 아이 두 개:: 날 수 있다는 규~칙은, 사람의:: 그 관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S4-3] 그리고 사회에서, 음~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이런 정면 에너지를 통해서::음~사람들은(2.0)그냥 좋은 행동으로::알려줄 수 있고, 이런 경우 더::적어질 수 있어요. 부모님들도, 음~자기의 아이한테::자주::좋은 자세를::모범으로 음 볼 수 있고:: 그건 경험으로, 적어질 수 있어요.

[S7-2] 음~중매 결혼은, 옛날에 구 사회에서:: 남자, <u>남녀 구별 의식이</u> 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u>남자와 여자랑, 자기 의지로 통할 수 없어요.</u> 또~ 음~이제는 시대, 시간이 지나서, 시대도 바꿔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음~ 자유롭게도 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있어요.

위에서 담화 예시는 각각 '출산계획', '정면 에너지³5)', '남녀 구별 의식'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말을 풀어서 바꿔 말하기 전략을 활용하였다. [S17-1]의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計劃生育' 정책을 '출산계획'으로 한국어로 표현한 후에, 상대방을 더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 '출산계획'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즉 '한 부부가 아이를 한 명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담화에서는 '적극적인 이미지로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전하다'고 하는 '正能量'을 '사람들이 좋은 행동으로 시범을 해주고', '부모님들도 자기의 아리한테 좋은 자세를 모범으로 하다'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 담화 [S7-2]에서는 중매결혼과 연애결혼에 대하여 '남녀 구별 의식'부터 학습자의 의견을 펼치고 있다. 이학습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랑 자기의 뜻대로 교류할 수 없다'고 부연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풀어서 말하기를 하면 전문적인 개념이나 중국어의 특징한 표현을 상대방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 (2) 예를 들어 설명하기

중국인 학습자들의 담화를 분석하면 말을 풀어서 설명하는 담화도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말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적지 않았다.

[S16-2] 지금 젊은이들이, 되게:: 생활 <u>리듬이 다르잖아요</u>. 그~ 어르신들한 테:: 예를 들면, <u>아침에 늦게 일어나든지:: 아니면, 청소를 안하든지::<웃음> 아니면, 뭐~오늘 무슨 옷을, 입는지</u>:: 뭐 이렇게 되게:: 같이 살면,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sup>35)</sup> 중국어에서는 正能量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이 학습자는 그대로 '정면 에너지'로 직역하였다.

[S17-1] 사실, 어~ 제가 그, 출상계획이 없더라도:: 현대, 현대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대학생::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은 것을:: 많이 낳은 것을. 사실은 싫어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S16-2]와 [S17-1]는 모두 예시를 들어 말하고 싶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담화들이다. [S16-2]의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부모들과의 생활 습관이 다르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아침에 늦게 일어나든 지:: 아니면, 청소를 안 하든지'와 같은 생동적인 예를 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 설명하고 싶은 장면은 더 강조되고 설득력이 있는 의견 말하기 담화가 될 수 있다. [S17-1]에서도 마찬가지로 '현대인'을 '저 같은 대학생'과 '저 같은 젊은 사람'으로 말을 바꿔서 발화하여 묘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는 위에서 제시한 담화처럼 '예를 들어서'라고 명시적으로 신호를 보낸 경우도 있지만, 아래 담화와 같이 암시적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다음 담화를 살펴보자.

[S16-3]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미성년자 고용을 하고 있는:: 회사나, 사장 님이나:: 일단은 그~실제적으로 그~ <u>이익</u> 그~ 利益:: 그것 때문에:: <u>가격</u> 이 싸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S19-3]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국민쪽으로는, 이런 의식, 강화시켜야 해요. 그~머릿속에서, 이런 의식이 있어야:: 그~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그 CCTV에 대해서 국민들은도, 특별히:: 그~신경쓰고, 그~ 좋은 CCTV인지 나쁜 CCTV인지, 그거대해서:: 그~길을, 길에서 걸어다보면:: 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게:: 그게도 낫다고 생각해요.

[S20-2] 그리고, 여자가 취직을 하면, 부부간에, 두 사람:: 교류할 수 있는 애기같은 것은 있어요.(2.0) 음~취직::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교유할 수 있어요:: 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음~ 사회에서, 겪고 있는::그런 인간관계 ^ 음~그리고(3.0)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렇게:: 다 같이 교류할 수 있어요.

위에서 살펴본 담화들은 모두 '예를 들어서'라는 표지가 없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담화들이다. 담화 [S16-3]에서는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떤 회사가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익' 중의 하나는 '가격이 싸다'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S19-3]는 19번째 학습자가 감시 카메라의 설치 방안에 대한 의견 말하기 담화이다. 정부, 회사, 정부, 개인 등 차원에서 해결법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는데 '스스로 자신의 원리를 지키고', '국민들의 감독이 필요하다' 등의 예를 들었다. [S20-2]의 경우에는 부부간에 '교류할 수 있는 얘기'를 더 상세하게 풀어서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해결할 수 없는 난점' 등으로 예시를 들고 있다. 학습자들에게 실시한 사후 인터뷰를 분석하면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의견 말하기의 내용을 더 신뢰도가 있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3) 근접한 표현으로 바꿔 말하기

중국인 학습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바꿔 말하기 전략은 근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필요한 한국어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정확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미적 특징이 유사한 어휘나 구조를 사 용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근접한 표현으로 바꿔 말하기 전략을 활용하는 담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7-3] 음~그런데, 현대는 사람, <u>경쟁은 심하고</u>:: 사람들은 <u>살기 위해서 너</u> <u>무 힘들어요.</u>(2.0)음~ 다른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부모님한테, 또 아니면 동료한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S20-2]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지금 사회:: 고압 때문에, 단지 한 사람을, 한 사람이:: 돈을 벌면, 음~힘들어요. 두 사람이 같이, 음~돈을 벌면, 혹시 더~ 쉬워요. 경제적으로::

위에서 담화 [S7-3]에서는 '경쟁이 심하다'를 '살기 위해서 힘들다'와 '스트레스

를 받다'이라는 근접한 표현을 대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유사한 표현인 '경쟁이 심하다', '살기 위해서 힘들다'와 '스트레스가 많다'를 재구성하여 같은 의미를다시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S20-2]는 여자들이 결혼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원인을 먼저 밝히고 있다. 두 사람이 모두 취직하고 돈을 벌면 경제적인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 내용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서술한 후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꿔서 다시 서술함으로써 표명하고자 하는 관점을더 설득력이 있게 전달하였다.

[S16-2] 왜냐면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서:: 뭐 어떤, 신체나 아니면 몸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u>긴급 상황에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u> / 음~그 거리를:: 잘 유지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이 식은 거리:: <u>죽이 식기 전</u> 에, 부모님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 네~

[S9-3] 제 생각에서, 먼저 학생들이::음~ <u>자기의 상황을</u> 확인해야 돼요. 움~ <u>자기는 뭐 할 수 있고, 뭐 하고 싶은 일을 알아야 돼요</u>:: 많이 학생들은 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저거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돼요.

위에서 제시한 [S16-2]와 [S9-3]도 마찬가지로 근접한 표현과 문장으로 바꿔말하기 전략을 활용하는 담화들이다. 여기서 두 개의 담화는 '대구법'처럼 비슷한뜻인 문장을 배열하여 발화한 공통점이 있다. [S16-2]의 경우에는 '긴급 상황에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와 '죽기 식기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문장을 연이어 나열하여 '멀지 않은 적당한 거리'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담화 [S9-3]에서는 이 학습자가 '자기의 상황을 확인해야 되고', '자기가 뭐 할 수 있고, 뭐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된다'고 대학생의 저(低)취업률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비슷한내용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반복하여 표현하는 전략은 말하기 내용의 다양성뿐만아니라 설득력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중국인 대학생 20명이 발화한 담화를 분석한 결과 바뀌 말하기 전략은 73회 사용되었으며, 풀어서 표현하기를 사용한 빈도는 20회이고 예시를 들어 설명하기는 25회이다. 근접한 표현을 바꿔 말하기 전략을 활용한 빈도는 28회이고 가장 많이 나타났다. 말하기 과제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62회, 즉 84.9%의 경우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말하기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해

결하였다. 또한 바꿔 말하기 전략을 사용한 학습자 9명 중에 8명의 담화 과제를 잘 수행하였고, 표현 측면에서 보면 담화의 유창성과 내용의 구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에게 의견 말하기를 교육할 때 바꿔 말하기 전략은 바람직한 전략 교육 내용 중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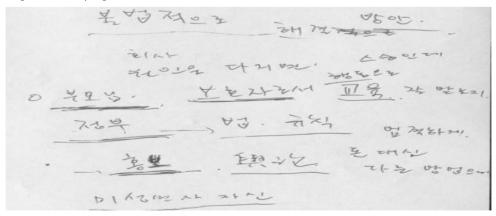
# 3) 준비 메모 활용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대답하기 전에 질문마다 1~2분 정도의 준비 시간을 주고, 말하기를 준비할 때 생각하는 과정, 사고의 맥락 등을 메모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다. 따라서 인터뷰 발화를 할 때 작성하였던 메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말하기를 준비하면서 작성된 메모를 말하기 준비 과정의 결과물로삼고 메모 내용을 분석하여, 말하기를 할 때 메모를 활용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 (1) 키워드 나열하기

'키워드 나열하기'는 학습자들이 말하기 준비 단계에서 말할 중요한 단어/문구 등을 써내고 기록하는 것이다. 즉 생각하는 관점을 완성되는 문장이 아니라 중요한 어휘나 문구를 나열해서 메모하는 방식이다.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대로 단순히 아이디어를 나열하는 메모 조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S16-3 메모]



위에서 [S16-3 메모]는 현실에서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는 방안에 관한 메모 내용이다. 16번째 학습자는 이 질문의 해결 방안을 회사, 부모님, 정부, 사회 드리고 미성년자 본인 등 5가지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학습자는 각 부분에서 완성되는 문장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주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만 나열하였다. 예를 들면 '정부'를 쓰고 나서 명사인 '법', '규칙'을 쓰며, 그 뒤에는 '엄격하게'를 썼다. 실제 인터뷰 담화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S16-3]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어떤 법, 법률, 아니면:: 규칙/ 아니면 돈내라::<웃음> 이렇게 대신::그~ 교과서에서 뭐 그렇다든지:: 뭐~ 이런 방안을, 엄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습자는 나중에 말하고 싶은 담화에서 언급할 중요한 명사, 부사 등만을 미리 메모한 다음에 실제 발화를 할 때 그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다. 중국어 사후 인터뷰에서 학습자가 이렇게 명사, 부사 등의 키워드만 기록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자기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S19-2 메모]

실명 인기 화재 병죄를 이용없은 투표, 선거 연온 자유

[S19-2 메모]는 19번째 학습자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정리하는 메모이다. 이 학습자도 키워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노트를 작성하였다. '인기'와 '화제(화제를 화재로 잘못 썼다)'를 관형어와 명사를 썼고, 명사와 같은 내용인 '범죄률', '이름없는 투표', '선거'와 '언론 자유'를 기록하였다. 이 부분이 실제 말하기에서 대응하는 담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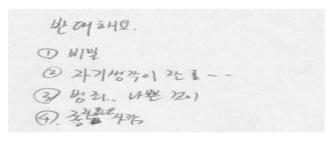
[S19-2] 인터넷 실명제는, 요즘 인가가 좀 많은 화제죠. (중략) 그~ 그렇게 하게 되면:: 범죄률, 줄이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중략) 이름 없는 투표, 선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 실명적으로 하면:: 그 국민들이, 걱정이 좀 되잖아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이돼요. 음~ 얼론 자유 면에서 보면:: 그~방해가 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학습자가 기록한 메모와 실제 담화를 분석하면, 메모에서 중요한 명사를 나열한 후에 발화할 때 문장에서 필요한 다른 성분을 추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후인터뷰에서는 학습자가 키워드만 기록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힌트만 쓰면 말하기를 할 때 발휘할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제적인 말하기에서 그 주제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을 확장할 수 있고 풍부성도 높일 수 있다.

# (2) 의견 말하기 내용 구성에 따라 문장으로 정리하기

말하기 내용 구성에 따라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학습자가 말하기 전에 준비할때, 필요한 내용을 말하기 내용 구조에 따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각 구성 부분의 중요한 문장만 기록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의 의견에 대한 논거를 어떤 기준에 따라 나열한 다음에 사고를 정리하는 메모 방법이다. 우선 주장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주장을 뒷받침을 하는 근거를 1, 2, 3...식이나 큰 괄호({)로 생각을 정리하는 메모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질문을 분석하는 몇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것이나, 어떤 질문을 더 깊어지게 분석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S12-2 메모]



위에서 [S12-2 메모]는 인터넷에서 모든 행위를 실명제로 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메모이다. 이 학습자는 자기의 관점을 먼저 분명하게 지적한 후에 네 가지를 나눠서 기록하였다. 논거를 제시하기 전에 본인의 개괄적인 관점을 표시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연역적인 내용 조직 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발화에서도 4번째까지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서술하였다. 아래는 이 학습자의 실제 담화 내용이다.

[S12-2] 저는 반대해요::음- 왜냐하면, 저에게 비밀:: 좀 많이 해요. 우리들은 자기 공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실명제는::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저는 실명제 이렇게 하면, 우리들은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없어요. 의견이 있으면, 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인터넷에서는, 많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인터넷에서, 놀고 이야기할 때:: 음~ 나쁜 사람을 만나고, 좋지 않은일::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실명제는 반대해요.

이렇게 자기의 관점을 몇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것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쉬게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화 내용의 설득력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발화시에 기록한 부분에 덧붙여 내용을 확충할 경우 더완전하고 풍부한 내용을 말할 수 있다.

[S15-3 메모]

到 1分析每件如 21号的改立 31以为满分的麻炒还 3试: 改府上降實工部 好限对分部的,托目一种有3的有种条

#### [S7-2 메모]

위에서 [S15-3 메모]와 [S7-2 메모]는 모두 학습자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점진적으로 정리하면서 메모를 작성하는 예들이다. [S15-3 메모]는 최근 출산율이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메모이고, [S7-2 메모]는 중매결혼보다 연애결혼이 더 좋다는 관점에 대하여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관한준비 메모이다. 15번째 학습자는 중국어로 메모를 작성하면서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방안을 나눠서 기록하였다. 즉 원인을 먼저 3가지(1. 경제적인 원인, 2. 사고하는 방식이 바꾼다는 것, 3.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귀찮다는 것.)를 나누어 서술한 다음에, 대응하는 방안을 다시 2가지(1.정부의 도움. 2.부부들이 아이가 같이지내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어떤 활동을 만드는 것.)로 제시하였다. 이 메모를보면 15번째 학습자가 이 질문을 원인부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방안을 제시하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7-2] 저는, 찬성하고 있어요:: 음~중매 결혼은, 옛날에 구 사회에서:: 남자, 남녀 구별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랑, 자기 의지로 통할 수 없어요. 또~이제는 시대, 시간이 지나서, 시대도 바뀌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음~ 자유롭게도 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있어요.(중략)음~제가, 남자와 여자랑 자유롭게 연애결혼이라는 것을 찬성하는 이유는, 또 제 생각에서는, 사랑은 우리 인생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생각하고 있어요. 또 한 남자가, 여자랑 우연히 만나고<웃음> 또~ 사랑에 빠지면서 (???)결혼하는 것:: 제일 낭만하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에서는 7번째 학습자가 발화하는 담화 내용이다. [S7-2 메모]를 보면 중매결혼이 좋다는 관점이 존재하는 이유를 먼저 분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메모에서 기록하는 대로 본인이 왜 찬성하는지 3가지 이유를 조리 있게 말을 하였다. 이렇게 원인 분석과 자기의 의견을 나눠서 메모에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큰 분류에서 다시 몇 가지 내용을 세분화하는 메모 방식은 논리적인 내용 조직방법으로 발화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3) 담화의 한 부분을 완전하게 기록하기

학습자들이 인터뷰에서 말하기 전에 작성하는 메모를 분석하였을 때, 작문 초고를 쓰는 것처럼 말하기 담화의 어떤 부분을 완전한 문장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즉 키워드를 나열하거나 어떤 기준에 따라 몇 가지 내용을 나눠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을 정리하고 쓰는 메모 방식이다. 여기서는 보통 말하기 시작하는 문장, 내용과 상관없이 격식적인 문장,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는 문장 등이 있다.

### [S9-2 메모]

이런 간통한 첫저해요.

코버덕하면 아카들이 자기의 활동자시를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사업하는 사업과 경본하지만 시간이 중기에서
상황이 따라라요 어지는 해야하는 것이 자기 좋아뿐은
지키는 것이라나 얼친 당하는 것이 들은 면수 뿐만 아니다. 자기는 끝난 수 있다! 집 생활로 더 좋은 것
같다

#### [S10-2 메모]

 위에서 [S9-2 메모]와 [S10-2 메모]는 전형적인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메모를 하는 예들이다. [S9-2 메모]는 학습자가 여자들이 결혼 후에도 일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정리하는 메모이며 [S10-2 메모]는 전자책을 전통적인 종이 책을 대체해야 한다는 관점에 학습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메모 내용이다. 여기서 두 개 메모의 공통점은, 다 작문을 쓰는 것처럼 문장을 완전하게 쓰면서 메모를 작성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실제 인터뷰 말하기에서 발화한 내용을보면 다음과 같다.

[S9-2] 저는 이런 관점을 찬성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자기의 사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자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결혼해요. 처음에 혹시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다를 거예요 여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자기 자아 지키는 것입니다. 취업하는 것이, 또는 돈을 벌 수 뿐만 아니라, 음~ 자기를 풍부할 수 있어요. 또 많이돈을 벌 수<웃음> 벌면 생활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2.0) 일을 안하면:: 음~ 혹시 밖에 세상에 떠, 떠나죠:: 음~자기 방에<웃음> 있으면, 가족:: 다 가족에서, 중심으로:: 음~ 이런 혹시, 가족들이 음~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자기는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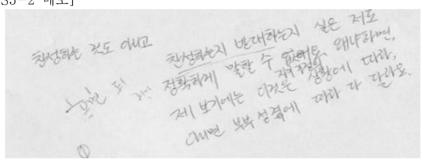
[S10-2] 저는 반대해요. 그~ 전통적인 책이 없으면, 우리 원래 그~ 고유 문화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통책이,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원래, 그~ 선배들이:: 그~전달, 전하는:: 점은, 우릴 볼 수 없어요. 그~ 책 에서 우리, 원하고 싶은 것을:: 그~ 찾을 수 있어요. 아무데나, 우리 볼 수, 보고 싶을 때:: 책을 찾아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통적인:: 그 전형 적인, 그 제한:: 다른 과학기술은, 많이 빠르게 발달해요::: 전형적인 책에서, 그 전자책에서 보는, 이런:: 읽는 것은 없어요.

[S9-2]와 [S10-2]의 실제 담화 자료를 분석하면, 밑줄을 친 부분은 메모와 똑같은 내용이며 말하기의 대부분 내용을 차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발화를 시작할 때에는 순조로우나 발화의 후반부에서는 유창성도 떨어지고 내용적인 조직도산만해졌다. 왜냐하면 학습자가 말하기를 준비할 때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앞부분만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내에 자신의 생각을 다 정리하고 말

하기를 계획하려면 큰 틀을 작성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말하기를 할 때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게 되기 쉬우므로 본인의 의견이 분명하지 않고 설득력이 약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메모를 할 때 문장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S5-2 메모]와 같이 말하기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말하기 구성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문장이 필요하다.

#### [S5-2 메모]



[S5-2 메모]는 젊은이들이 결혼 후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관점에 대해 학습자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 작성한 메모이다. 이 학습자도 메모에서 한 문장을 완전하게 썼지만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실은 저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처럼 담화 측면에서 더 유창하게, 논리 있게 말할 수 있게 연결하는 문장을 썼다. 다시말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이다. 말하기를 할 때 이러한 격식적인 말이 너무 많으면 내용이 없는 말하기가 될 수 있으나 너무 없으면말하기의 구성이 딱딱하고 일관성이 부족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말하기를 준비할때 내용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문장과 문장사이에 적당히 연결하는 문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한 20명 학습자의 메모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음 <표 Ⅲ-3>, <표 Ⅲ-4>과 같다.

_					
	메모 유형	키워드	말하기 구성에 따라	말하기 담화를	총
	메도 ㅠ엉	나열하기	문장으로 정리하기	완전하게 기록하기	\$
	개수	20	30	10	60
	백분율(%)	33.3	50	16.6	100

<표 Ⅲ-3> 메모 유형별 구성비

<표 Ⅲ-3>을 보면 '말하기 구성에 따라 문장으로 정리하기'로 메모를 하는 담화는 제일 많고 30개로 50%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에는 33.3%의 메모는 '키워드나열하기'로 선택하고 20개 담화가 있으면, 제일 적은 수의 메모는 '말하기 담화를 완전하게 기록하기'로 메모를 작성하고 10명으로 16.6에 불과하였다.

연구 대상과 방법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한 학습자가 3개 담화를 발화하였다. 수집한 60개 메모를 분석하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메모 내용은 아래 <표 Ⅲ -4>와 같다.

메모 유형	(1)*	(2)	(3)	(1)+(2)	(1)+(3)	(2)+(3)	총
학습자 수(명)	4	7	2	4	1	2	20
백분율(%)	20	35	10	20	5	10	100

\* (1)은 키워드 나열하기, (2)는 말하기 구성에 따라 문장으로 정리하기, (3)은 말하기 담화를 완전하게 기록하기.

<표 Ⅲ-4> 메모 유형별 학습자 분포

위의 표를 분석하면 한 명 학습자가 작성하는 3개 메모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말하기 구성에 따라 문장으로 정리하기'만 사용하는 학습자 수는 7명으로 35%를 차지하며 제일 많았다. '키워드 나열하기'만 선택하는 학습자와 '키워드+말하기 구성에 따라 문장으로 정리하기'를 섞어서 선택하는 학습자 수는 동일하게 네 명으로 20%를 차지하였다. '말하기 담화를 완전하게 기록하기'만 사용하는 학습자와 '말하기 구성에 따라 문장으로 정리하기+담화를 완전하게 기록하기'를 같이 사용하는 학습자는 모두 2명으로 10%에 불과하고, '키워드+ 담화를 완전하게 기록하기'로 메모를 하는 학습자는 1명밖에 없고 5%로 마지막순위에 있었다.

<표 Ⅲ-3>과 <표 Ⅲ-4>의 내용을 정리하면 '키워드 나열하기'와 '말하기 구성에 따라 문장으로 정리하기'를 따로 사용하거나 같이 사용하는 학습자가 제일 많았다. 그러나 '말하기 담화를 완전하게 기록하기'만 사용하는 학습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가지 방법과 같이 사용하는 학습자도 적은 편이었다. 학습자들의 사후 인터뷰에서 말하기의 준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완결성이 있는 의견을 말하고 싶으면 중요한 내용만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자기의 의견과생각을 더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서술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나눠서 키워드를 적어두는 것이 제일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 5. 논의

이상으로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고급 학습자들이 인터뷰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견 말하기 담화를 분석하였다. II 장에서 학습자들에게 의견 말하기의 난점 조사 결과와, 수집한 담화 자료를 언어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전략 활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그리고 20명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국어 인터뷰를 통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에서 나타난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말하기의 생성 단계에서 어떤 주제나 현상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적당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언어적인 지식의 미숙함과 시간적인 압박감 때문에 전달하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유창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중국어 사후인터뷰에서 같은 질문에 대하여 중국어로 의견을 말하는 과제를 학습자에게 주었는데, 중국어로 과제를 수행하는 결과를 보면 논리성이 있는 담화가 한국어의 담화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중국어로 언급한 내용의 선정은 한국어로 과제를 수행하였을 때와 큰 차이가 없었다. 즉 같은 내용이라도 한국어로 자기의 생각을 전환하여 표현할 때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습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하다. 이러한 이유를 따지자면 제일 큰 문제는 머릿속에서의 생각을 한국어로 전환할 때 한국어로 여러 가지 내용을 일관성이 있게 연결하는 언어적인 지식이 결여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말하기의 응집성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설득력이 없는 비약적인 발화가 도출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음성언어로 발화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어휘, 문법, 표현 문형 등이 잘못 사용되거나 단조롭게 반복되면서 의견 말하기가 방해를 받는다.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할 때 제한적인 표현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말하는 내용이 흥미롭고 설득력이 있더라도 너무 단조로운 표현 문형을 끝까지 사용하면 청자가 듣는흥미가 떨어지고, 화자도 스스로의 의견을 확실히 파악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기쉽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 말하기의 교수-학습이 요구된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양상을 분석하여 알게 된 세 번째 문제점은 말하기 준비 단계와 수행 단계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활용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말하기를 준비할 때 작성한 메모는 화자의 생각을 정리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하기를 할 때 말하기의 유창성도 높일 수 있다. 학습자들이 내용을 구조하는 단계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유창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준비 메모를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모국어로 전환하는 현상과 바꿔 말하기 현상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의견 말하기를 발화하면서 준비 전략과 발화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전략을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의견 말하기를 더 논리적이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습자들이 의견 말하기에서 어렵게 생각한 난점과 의견 말하기 양상을 분석하여 담화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 리하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중국인 고 급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 다.

# Ⅳ.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의견 말하기 교육

앞의 Ⅱ장에서는 이론적인 접근을 정리하였고, Ⅲ장에서는 한국어를 전공으로 학습하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발화한 의견 말하기 담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위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과 말 하기 담화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내용으로 삼아 실제 의견 말 하기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의견 말하기 교육의 목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대학생들에게 말하기 능력은 단순한 생활속에서의 정보 전달이나 친교적인 대화를 하는 능력에서부터,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하여 완결성 있는 담화를 발화하는 능력까지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학습자의 의견을 말하는 의견 말하기 능력은 특히 학습자들에게 절실하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정공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졸업한 후에한국에 유학을 가거나 한국계 회사에서 취직을 하려면,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자신의 주장, 관점, 의견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의견 말하기 교육을 일반 목표와 하위목표로 세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고급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때 평가 목표 및 범주는 말하기 교육의 목표 설정과 교육 내용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한국어 고급 말하기 평가의 목표와 내용을 다음 <표 IV-1>과 같이 살펴보자.

분류		내용
		-고유 업무 영역이나 전문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의
평 기. ó	] 목표	사소통을 할 수 있다.
3/10	一寸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전 영역과 관련된 깊
		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다.
2.2.2	2 -31]	-정치, 경제적 상황, 사회적 미담이나 쟁점, 문화 현상의 주요
평가의	소재	특징, 시대적 흐름과 같은 사회의 전문적인 영역
범주	기능	-교육받은 모국어 화자 수준에 준하는 자연스러운 역양과 발음

		으로 발화 수행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언어를 유창하고 표현하기
		-전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표현이나 다양한 담화 양식에 적
		절한 발화 수행(예: 인터뷰, 토론, 발표 등)
		-논리적으로 적절하며하고 내용 연결이 긴밀한 발화 수행
		-사회 현상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추상적인 어휘
	어휘 및 문법	-직장에서의 특정 영역과 관련된 어휘
		-세부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어휘
		-널리 알려진 방언, 자주 쓰이는 약어, 은어, 속어
		-대부분의 시사용어
		-사회의 특징 영역에서 쓰이는 외래서(이데올로기, 매스컴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문법 표현
		-다양한 텍스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법 표현
	텍스트	-인터뷰
		-발표(조사 발표, 연구 발표 등)
	유형	-공식적 상황에서의 대화와 토론

<표 IV-1>고급 말하기 평가의 목표 및 내용(강승혜, 2006)

이상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말하기 능력 평가의 내용에서 담화의 표현과 관련된 언어적인 측면과 특정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말하기 내용을 생성하고 연결하는 내용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고급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특정한 담화 양식에 적절한 발화 수행 능력의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의견 말하기에 대한 풍부한 언어 지식과 더불어 말하기 내용을 생성하고 구성할 때필요한 지식 즉, 말하기 준비 단계와 내용 생성 단계에 대한 이해를 포괄하는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

의견 말하기 교육의 하위 목표의 선정은 의견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를 통하여 추론해 볼 수 있고, 학습자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실제 담화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의견 말하기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종합하자면, 한국어 의견 말하기 교육은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중국인 대학생들이 일대일 인터뷰에서 한국어로 어떤 이슈나 현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말할 때, 언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적인 언어

습득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학습한 언어 지식을 실제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의 단계로 확장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범주를 넘어서, 특정한 기능의 담화 상황에서 메모를 활용하여 말하기 내용을 생성하고 구성하는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하여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실제 소통 맥락에서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문형을 바탕으로 적절한 언어 지식을 갖추는 것이고, 두번째로 의견 말하기 담화 구성에 따라 고정화된 언어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생성하고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전략 사용 측면에서 말하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메모를 어떻게 더효율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말하기 수행 단계에서 이러한 메모를 잘 활용하여 말하기를 더 원활하게 수행하고, 발화 단계에서 효율적인 말하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의견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목표  당으로, 특정한 담화 상황에서 말하기 내용을 생성하여 논리적으로 완결성 있게 조직하여, 다양한 전략과 적절한 표현 문형을 사용함 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길게 말할 수 있다.  1) 의견 말하기 담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2)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명료한 관점을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생성하고, 논리적으로 구조한다. 3) 적절하고 다양한 의견 말하기의 표현 문형을 사용하여 유창하고	교육 목표	<u> </u>		
일반 목표  당으로, 특정한 담화 상황에서 말하기 내용을 생성하여 논리적으로 완결성 있게 조직하여, 다양한 전략과 적절한 표현 문형을 사용함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길게 말할 수 있다.  1) 의견 말하기 담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2)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명료한 관점을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생성하고, 논리적으로 구조한다. 3) 적절하고 다양한 의견 말하기의 표현 문형을 사용하여 유창하고				
2)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명료한 관점을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생성하고, 논리적으로 구조한다. 3) 적절하고 다양한 의견 말하기의 표현 문형을 사용하여 유창하고	일반 목표	한국어를 제2언어로 의견 말하기 담화에 대한 언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한 담화 상황에서 말하기 내용을 생성하여 논리적으로, 완결성 있게 조직하여, 다양한 전략과 적절한 표현 문형을 사용함 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길게 말할 수 있다.		
2)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명료한 관점을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생성하고, 논리적으로 구조한다. 3) 적절하고 다양한 의견 말하기의 표현 문형을 사용하여 유창하고				
완설성 있는 의견 말하기 담화를 수행한다. 4) 말하기 준비 단계와 발화 단계에서 적합한 전략을 활용한다.	하위 목표	<ul><li>2)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명료한 관점을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생성하고, 논리적으로 구조한다.</li><li>3) 적절하고 다양한 의견 말하기의 표현 문형을 사용하여 유창하고 완결성 있는 의견 말하기 담화를 수행한다.</li></ul>		

<표 Ⅳ-2> 의견 말하기의 교육 목표

## 2. 의견 말하기 교육의 내용

교육이란 설정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된 계획 아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전은주, 2009: 336). 교육의 내용은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학습 자들에게 학습시키고자 하는 교육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설정된 교육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중국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의견 말하기의 교육 목표에 비추어 효과적인 교육 내용을 밝혀 보고자 한다.

리어던(Reardon, 1987)은 말하기 유형을 상대방과의 친밀한 정도와 익숙한 정 도, 그리고 의사소통의 습관에 따라 '무의식적 말하기', '의례적 말하기', '의식적 말하기'로 나누었다(김지연, 2003 재인용). '무의식적 말하기'는 의미가 없는 음성 이나 반응하는 소리 등 비언어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 다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한 내적인 감정이나 즉각적인 반응도 포함된다. '의례적인 말하기'는 어떤 상황이나 전달하는 내용이 매우 익숙하여 거의 습관이 되고 자동 적으로 발화되는 유형이므로 말하기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일상생활 말하 기에 많이 해당된다(최수현, 2011). '의식적 말하기'는 화자가 생성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아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거나 내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고민이 수반되는 유형이며 외국어 학습자들의 많은 담화는 여기서 해 당된다. 또한 주의하여야 할 것은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모국어로 하면 '의례 적인 말하기'가 될 수 있지만 외국어인 한국어로 서술하게 되면 언어 표현의 방식 이 익숙하지 않아 '의식적인 말하기'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중국어 표현을 적절한 한국어 표 현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결 국은 Ⅲ장 3절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중국어로 의견을 말할 때 풍부한 내용으로 논리적인 구성으로 말하기를 수행할 수 있는데, 한국어 언어적 지식을 많이 학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기능 말하기 상황에서 자기의 관점을 말할 때 누락한 정보도 많고 설득력도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과 Ⅲ장에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담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절에서 한국어 의견 말하기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말하기 교수·학습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은 음성 언어 의사소통에 관한 일반적 지식, 담화의 목적과 유형에 맞게 의사소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수적인지식으로 나뉠 수 있다(서영진, 2010). 한국어 의견 말하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효과적이고 타당한 교육 내용을 Ⅱ장에서의 학습자들의 요구분석 결과와 Ⅲ장에서의 의견 말하기 양상의 문제점으로부터 도출한다. Ⅲ장에서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

기 양상을 언어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전략 사용 측면과 같은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의견 말하기 교육 내용의 설정도 이러한 틀에 대응하여 검토할 것 이다.

언어 사용 층위에서는 다시 말하기 활동을 수행하면서 어휘·문법 수정을 통하여 언어 정확성을 향상시켜, 설명하기와 설득하기를 포함한 의견 말하기 담화와 관련된 표현 문형을 숙달시킨다. 담화 구성 측면에서는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말하기 주제를 이해하며, 공식적이며 일방적인 의견 말하기인 만큼 특정한 담화유형을 고려하여 의견 말하기의 내용을 더 명료하게 생성하도록 지도하고 질문 주제의 유형에 따라 내용 구조 형식을 이해시킨다. 전략 사용 층위에는 실제 발화단계에서 전환 말하기 전략을 숙달 시키는 것이다. 아래 <표 IV-3>을 통하여 의견말하기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자.

의견 말하기 능력 구성	교육 내용		
언어 사용 층위	다시 말하기 활동을 통한 어휘·문법의 수정		
한의 사용 등위	의견 말하기 관련 표현문형의 숙달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		
담화 구성 층위	준비 메모를 바탕으로 한 내용 생성 활동		
	주제 유형에 따른 의견 말하기 내용 전개 방식의 이해		
발화 단계의	기취 마그리 기과시 가 ()		
전략 사용 층위	전환 말하기 전략의 사용		

<표 IV-3> 의견 말하기의 교육 내용

본 논문에서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담화를 분석하는 틀에 따라 제시한 교육 내용을 기존의 교육 내용 범주 체계<sup>36)</sup>에 대입해 보면 아래와 같다. 언어 사용 층위에서 어휘·문법의 수정과 한국어로 의견을 말할 때 관련 문형을 정리·연습하는 내용은 '언어 지식'이고, 담화 구성 측면에서의 다양한 주제의 이해와 메모를 활용한 내용 생성 및 주제 유형에 따른 내용 구조는 '기능'이며 표현 단계에서의 전환말하기 전략의 사용은 '실제'와 연관된다.

<sup>36)</sup>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의 표준 모형(2012)에서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범주로 '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등)', '언어 기술', '문화'를 설정하여,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 정에서는 '지식', '기능', '태도', '실제'를 내용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민병곤(2004)에서는 '텍스트', '언어·구조적 자질', '인지·기능적 전략', '사회·문화적 맥략'을 교육 내용 범주로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는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목표와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교육 내용 범주를 '언어 지식', '기능', '실제' 및 '태도'로 검토할 것이다.

### 1) 언어 사용 측면:

### (1) 다시 말하기 활동을 통한 어휘·문법의 수정

이상적인 한국어 학습자는 실제적인 언어 상황에서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말하기 교육에서 추구하는 실제성은 언어 사용의 상황이 실제 세계에서 접해야 하는 다양한 담화 상황과 주제를 경험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말하기 상황과 담화의 언어적인 형식은 체계적이고기능적인 관계를 가지면, 담화의 의미는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 언어로 실현된다. 37) 다시 말하자면 한국어 의견 말하기의 특성이 언어적인 형태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의견 말하기의 유형 특성에 부합하는 언어표현을 사용하여 발화해야 바람직한 의견 말하기 담화를 발화하는 것이다.

의견 말하기의 언어적인 사용 측면의 문제가 형태적으로는 주로 잘못된 어휘·문법 사용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말하기 교육은 어떤 말하기 활동을 한 후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그 특정한 담화에서 이루어진 말하기의 내용, 예를 들어 어휘·문법의 사용을 분석해 보고 잘한 부분을 함께 배우고 잘못된 부분은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한다. 또한 이때의 어휘·문법은 담화 맥락에 따른 의미 실현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에서 어휘·문법 그 자체만을 교육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박태호, 2000: 90). 그러므로 학습자가 잘못된 언어적인 사용을 스스로 찾아보고 해당 부분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인식하여, 정확한 어휘·문법으로 고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의견 말하기 과제를 다시 발화하는 교육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의견 말하기를 발화하여 녹음한 후 정확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Ⅱ장 2절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어휘 측면에서 한자어, 인칭대명사, 시제와 높임법 등을 사용하는 데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이러

<sup>37)</sup> 이러한 논술은 체계기능 언어학의 관점에서 본 박태호(2000: 90)의 '텍스트의 의미는 맥락과 언어적 형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언어고 실현된다'는 논의를 참고하여 말하기에 적용한다.

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아래 <표 IV-4>에서 제시한 예시 항목에 따라 자신의 의견 말하기 담화를 검토한다.

- 직역으로 한자어를 잘못 사용하는가?
- 불필요한 인칭대명사를 지나치게 사용하는가?
- 기초적인 어휘를 단조롭게 사용하는가?
- 시제와 높임법의 사용이 통일하고 맞는가?
- 단정적인 표현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가?

<표 IV-4> 부적절한 어휘·문법 사용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 항목 예시

학습자들은 이러한 검토 항목을 가지고 자신이 생성한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찾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활동은 학습자가 의견 말하기를 발화할 때 유의해야 할 언어 사용 측면상의 특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인식할 수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렇게 고쳐야 할 언어적인 내용을 찾은 다음에 학습자들은 같은 과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의견 말하기를 발화하여 잘못된 언어사용을 직접 수정하는 활동을 한다.

### (2) 의견 말하기 관련 표현문형의 숙달

표현 문형38)이 한국어 교육의 경제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문법항목임은 부인할 수 없다. 서희정(2008)에 따르면 표현문형은 어휘적 차원에서 긴밀하고 제한적인 결합 관계를 가지는 관용구나 연어와 달리 문법적 차원에서 규칙적인 통사 관계에 의하여 구성되며, 이것이 학습자의 발화 생성과 해석에 하나의 의미 단위 또는 기능 단위가 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가치가 있다.

위에서 Ⅱ장 3.2절에서 중국 학습자들에 대한 의견 말하기 난점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의견 말하기를 할 때, 언어적인 측면에서 문장 단위로서의 정형화된 표현들이 제일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Ⅲ장 1절에서 학

<sup>38)</sup> 한국어 교육에서 표현문형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용어를 통해 이루어졌다. 통어적 구문 (백봉자, 1999), 관용구문(김정은, 2002), 구문표현(최윤곤, 2004), 문형표현(이윤진, 2004), 표현문형(민현식, 2005; 강현화, 2007), 관용구(이희자·이종희, 2006) 등을 본 연구에서 언급한 표현문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사용측면에 조목하고 있으므로 '표현문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서희정, 2008 재인용).

습자들이 발화한 담화를 분석한 결과, 어휘나 표현을 단조롭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의견 말하기의 언어 다양성과 유창성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은 의견 말하기의 설득력도 떨어지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의견 말하기와 관련한 표현 문형의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말하기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적인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학습자들이 실제 언어 세계에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 맥락에서,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전은주, 2010). 따라서 말하기 교육은 언어 사용의 맥락·상황에 중점을 두고,한국어 언어 공동체에서 실제성을 갖추는 담화 상황과 유형을 구분하여,한국어의 표현 문형을 자연스럽게 교육시켜야 한다. 특히 고급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나 관점에 대한 자기의 생각,주장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담화에서,다양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발화하면 청자의 내용 이해와 말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의견을 말할 때 다양한 표현을 담화 기능별로 구별하여 집중적으로 습득하고 연습시킬 필요가 있다.

Ⅱ장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의견 말하기에 관한 질문 유형은 3가지가 있으며 분석 평가형, 찬반 논의형 그리고 해결책 제시형이 그것이다. 분석 평가형은 주어진 자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요약하거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논제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것을 요구한다. 찬반 논의형 질문은 어떤 주장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므로 질문에서 내세운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결책 제시형은 자료를통하여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질문 유형인데 문제를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들을 검토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즉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질문의 유형에 따라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말하기 기능은 어떤 주장을 평가하기, 논의하기와 의견을 제시하기 등이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의견 말하기 교육을 하면 이러한 담화 내용의 기능별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표현 문형들을 정리하여 집중적으로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9) 학습자들이 초·중급에서 공부한 내용을 나선형으로 배정하고, 의견 말하기의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정하면 '언어 사용'의

<sup>39)</sup> 서희정(2008)에서는 표현문형은 선행성분의 형태에 따라 조사 결합형, 어미 결합형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담화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종결어미 결합형에 초점하여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자 한다.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더 실용적인 말하기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의견 말하기를 할 때 더 유창하고 단조롭지 않은 표현 문형을 자연스럽게 출력할 수 있다.

세부 기능	기능에 따른 표현 문형 예시		
	에 대해서다고/라고 생각합니다.		
	에 대해서다고/라고 봅니다.		
평가 기능	에 대해서 찬성/반대합니다.		
3/1/10	-제가 보기에는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것 같습니다.		
	면 (안)됩니다.		
	잖아요,		
	거든요.		
논의 기능	은데요.		
근의 기능	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을 수밖에 없습니다.		
	을 지도 모른다.		
	아/어/여야 합니다.		
	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결책 기능	면 어떨까 싶습니다.		
애결색 기능	좋지 않을까요?		
	지 않을까 싶다.		
	을 것 같습니다.		

<표 Ⅳ-5> 의견 말하기 기능별로 문형의 교육 내용

의견 말하기는 다른 기능의 말하기 담화와 달리 화자의 생각을 더 명료하게 논리 있게 밝혀야 하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말하기 유형이다.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제시할 때 특정한 문법 표현들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 그런 '형식'의 표현들이 내용을 생성하거나 이해할 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방적인 의견말하기 담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주장이다. 즉 어떤 주제에 대한화자의 생각이고 의견이며 '…에 대해서…생각하다/보다', '…면 안 되다' 등과 같은평가 기능의 표현 문형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 중심 주장을 먼저 명확하게 밝힌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부분이 이어서 발화한다. 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거든요', '...을 수밖에 없다' 등의 표현 문형을 교육 내용으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해결책 기능의 표현 문형의 숙달이다. 중국어에서는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한국어는 중국어와 달리 청자에 대한 공손성 등의 사항 때문에 완곡하게 자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내세우는 문장이 더 많이 있다. 특히 어떤 방안을 제시할 때 너무 강제적인 진술을 피하여 '...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와 같은 완곡적인 표현 문형으로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것이 좋다.

### 2) 담화 구성 측면

#### (1)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

라도(Lado, 1972: 451)에서는 읽기를 배우지 않고 말하기를 배우는 것은 가능 하지만 읽기와 함께 말하기를 배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읽기는 한국어를 학습할 때 모든 단계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실제적인 언어가 담긴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 말하기 학습과 병행하여 다양한 학습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힐퍼티(Hilferty, 2005)에서는 성인 학습자에게 있어 읽기와 말하기는 중요 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기능을 나선형 구조로 서로 연관이 있어 말하기 처리 모델은 읽기 처리 모델과 유사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완기 (1996)에서는 문자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호기심, 앎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음성언어를 강조하고 문자 언어 교육을 지연시키는 것은 음성 언어에 노출 되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인 EFL 환경에서는 비경제적이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문자 언어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학습 욕구의 분 석을 통한 적절한 양의 문자 교육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는 향상되고 이를 통한 학습 효과도 높아질 것이다(김정님, 2009: 15). 크라셴(1983)에서는 독서와 언어 능력 향상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 연구 결과를 기초로 책을 읽는 것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였다. 중국 대학에서는 구두 언 어에의 노출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한국어 습득 환경이 마련되기 어렵다. 따라서 말하기 교육에서 읽기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한국어 성인 학습자에게 효 과적인 교육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의견 말하기는 인터뷰 담화에서 한정된 질문 유형에 대한 담화 내용이지만,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이보다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의견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인 읽기 자료를 통하여 정보의 비판적인 습득과 말하기 내용의 생성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단순히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인지적 지식, 정서, 가치관, 규범 등을 고정된 실체로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활과 삶의 방식,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지식의 생산 능력 및 활용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풍부한 상상력, 올바른 언어 사용 등을 획득하는 것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읽기활동을 통하여 의견 말하기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창의적 내용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읽기 자료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은 말하기를 위한 배경지식을 쌓는 활동이 되며, 말하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

김중섭(2010: 143)에서는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목표와 내용 기술하기를 위한 영역 설정은 한국어의 사용역과 이해역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상정하였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 중에서 주제 영역에는 화제와 과제를 하위 요소로 설계하였으며 고급의 주제 영역의 목표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0)

- 1. 전반적인 주제들로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2. 자신의 전문 분야(직업적, 학문적 영역 등)와 관련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 3.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소재(정치, 경제, 국제관계와 같은)들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표준 교육과정'의 고급 단계 주제 내용 기술을 기초로 하여, 친숙

<sup>40)</sup>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설정은 초급 1-2급, 중급 3-4급, 고급 5-6급, 최상급 7급으로 설계하였다. 이러한 단계화의 목적은 현재 한국어 교육의 준거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6등급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어 학습의 목적(한국 사회로의 정착, 학문 목적, 직업 목적, 취미 등), 한국어 학습 수요층의 변화(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등 요인을 고려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5, 6, 7급을 다 고급으로 삼는다.

하지 않은 사회적 소재와 각 전문 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중점적으로 의견 말하기의 읽기 자료로 다루고자 한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시대차이, 시사문제, 사회제도, 교육제도, 언어 예절, 풍습, 사고방식, 환경문제, 기후와 생활 방식, 인터넷과 통신, 소비생활, 저축, 사회복지, 과학 기술의 양면성, 이래 사회, 공공 사안, 전문 분야 관련 화제 등

<표 IV-6> 의견 말하기 교육을 위한 읽기 자료 주제의 예시

이렇게 다양한 주제의 읽기 자료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를 올바르게 수집하고 선택하며, 이러한 정보를 일반화 하여 나중에 말하기를 할 때 해당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창출하여 다양한 말하기 담화 내용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김경일, 1980: 58). 다시 말하자면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경험, 정보, 주요 문제, 등을 분석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읽기 자료에 제시된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기존 지식 및 경험과 연결 직고, 자료의 형식, 배열, 진술 수준 등 담화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준비 메모를 바탕으로 한 내용 생성 활동

말하기 과정은 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생성에서부터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점검하고 교정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고도의 인지적인 활동 과정이다(김지연, 2003: 19). 이러한 복잡한 의사소통 과정을 크게 나누면 계획하기 단계와 표현하기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박영목 외, 2008).41) 학습자는 청자의 지적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바탕을 두어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지를 먼저 계획하고, 그런 다음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음절, 단어, 구절, 문장 등의 발화를 표출하게 된다. 조수진(2007: 14)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일상적 대화를 수행할 때 깊이 있는 사고 활동의 결과로 말할 내용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으로 발화하여 오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비판하면서 말하기를 위한 '생각할 시간'

<sup>41)</sup> 처음에는 말하기의 과정을 준비하게-계획하기-표현하기(박영목 외, 2001)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였으나, 뒤에 준비하기와 계획하기 단계를 계획하기 단계로 통합한 후, 계획 하기 단계를 다시 담화 수준, 문장 수준, 구성 요소 수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과 '생각할 방법'을 고려한 교수활동을 제안하였다. 이희순(2011: 11)은 말하기가 말을 하는 물리적 행위와 말을 하는 행위 뒤에 있는 사고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에 주목하여 학습자의 발화를 분석하고 이를 말하기 교육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가 있다. 말하기는 문자 언어에 비하여 결속 구조의 측면에서는 담화의 완결성에 대한 요구가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보통은 말할 내용을 계획하면서 말하고, 그리고 말하면서 계획해야 하는 과정과 말을 하는 일에 긴밀성이 강하기때문에, 말하기에서 준비하는 과정과 말하는 동안 사고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말하기는 사고과정을 겪으며 말하기 유형에 따라 그 과정이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수행된다(최수현, 2012). 언어의 사용자는 상황에 대한 지식을 직접적, 간접적인 경험과 체험, 교육을 통하여 획득한다.

말하기의 계획하기 단계를 내용 생성과 내용 조직으로 나누고, 표현하기는 내용 표현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해진, 2009). 그런데 조 직이나 표현은 내용 생성이 있은 다음의 문제로서 내용 생성 또는 선정된 내용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후 과정이다(배수찬, 2009:179). 그러나 중국인 고 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데 어 떻게 할 지 모르겠다'든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한국어로는 못한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학습자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의견 말하기 교육에서 내용 생성 보다 이미 생성된 내용을 한국어로 전환하는 것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쉽게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이 모국어인 중국어로 똑같은 질문에 대한 의견 말하 기 담화는 풍부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때 큰 문제가 없으나. 한국어로 자신 의 관점을 말할 때 누락한 정보도 많고 설득력도 떨어졌다. 언어적인 불숙(不熟) 과 한국어로 일관성 있게 논술하는 능력의 부족함으로써 말하기를 준비할 때 계획 하였던 내용을 부득이하게 바꾸거나 생략하고, 심지어 의도하였던 관점과 대립되 는 견해까지 제시함을 확인하였다. Ⅱ장에서 50명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보면 의견 말하기 내용 생성 부분보다, 표현 담화와 어휘, 문법 사용 부분 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으로써, 전공 학습자들에게 의견 말하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한국어로 머릿속에서 기존한 내용을 적당하게 조직하여, 다양한 표현 문형을 활용하여 발화하는 것이다.

위에서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어 학습자에게 내용 생성은 학습자의 인지적 과정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 조직 및 표현과 혼용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자기의 의견을 펼칠 때, 자신이 인지 속에서 없는 내용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지 외부에 존재하는 사실들로부터 내용이될 만한 것을 추려내고(배수찬, 2009: 181),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어휘·문법·표현문형 등을 고려하여 말 할 수 있는 내용만 발화를 한다. 따라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의견 말하기 내용 생성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단순히 말할 화제를생성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한국어 언어 지식과 결합하여 말하기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말하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메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화하기 전에 미리 말할 내용을 생성하여 어떤 형식에 맞추어야 논리적으로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음으로, 계획성 없이 말하면 생각은 도중에 어긋나거나 모순되고 비논리적이 되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따라서 말하기 내용을 생성하고 계획하는 단계에 따라 메모를 써놓고 이야기할 순서와 표현을 정해두면, 그 다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다. 특히 외국어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때 더 그렇다. 그러나 비장 3절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메모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 관점만 정리하고,체계적이지 않은 메모를 작성한다면 결국은 발화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게된다. 따라서 의견 말하기 내용 생성을 위하여 준비 단계에서 메모를 작성하는 방법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준비 메모를 활용하여 의견 말하기 내용을 생성하는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의견 말하기 주제에 대한 화자의 중심 주장을 기록하여, 마인드맵42)처럼 말하기 담화의 구성43)을 위계적으로 내세운다. 그 다음각 구성 부분에서 주요 내용이나 문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여기서는 담화 내용을 뒷받침할 소재를 찾기 위하여 일상생활의 체험이나 생각, 느낌에서 주제에 맞는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는 의견 말하기인 담화 유형과관련한 표현 문형, 구성 부분을 연결하는 문장 단위인 담화 표지나, 말하기 시작과마무리 부분에서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는 부분 등은 완전한 문장으로 적어놓으면, 말하기를 할 때 유창하게 발화를 진행하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각 부분간의 응

<sup>42)</sup> 카스트(Kast, 1999; 안미란 외 공역, 2007: 68)는 학습자가 담화를 통해 전달할 내용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 연상표, 마인드맵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마인드맵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사고와 중심 개념을 위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해당 주제를 한 가운데 놓고 이 주제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을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sup>43)</sup> 담화의 구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 절 참고

집성과 담화의 일관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주장: 찬성

근거: <u>배경 소개:</u> 시대 바꿈, 스트레스. "요즘 많은 여자들이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죠. c

전 형상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u>작점:</u> 경계적인 부당을 줄임. "게가 여자둫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독립적인 인격. 3가지가 있어요. 사회생활에 참여. "그런데 동전은 정면과 반면이 있는 것처럼

여: 친구의 언니~ 모든 일은 좋은 검만 있는 게 아니다.

<u> 단점:</u> 바쁨...

결론: 그래도 여자가 결혼한 후에 일을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한다.

#### [그림] 준비 메모를 활용한 의견 말하기 내용의 생성

[그림]는 준비 메모 작성을 통하여 학습자가 발화할 의견 말하기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의 예시이다. 학습자는 '여자들이 결혼을 한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위하여 먼저 찬성하는 주장을 밝히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 부분에서 배경 소개, 장점, 단점 부분으로 구성하여 각각 구체적인 키워드로 기록한다.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준비 메모를 작성할 때 머릿속에 떠오른 정보를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문장까지 정리하는 점이다. 또한 결론 부분에서 학습자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함으로써 담화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는 준비 메모 작성을 통하여 주제와 관련하여 나열한 하위 내용 가운데 실제 담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를 정리하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핵심 정보의 누락 없이 의견 말하기를 생성할 수 있다.

### (3) 주제 유형에 따른 의견 말하기 내용 전개 방식의 이해

전통적인 말하기 구성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이고, 서론 부분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가이드를 하는 것이며 주의를 환기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 본론은 하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설명이나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고, 결론은 앞의 내용을 요약하며 정리하는 것이다. Ⅱ장에서 정리한 의견 말하기의 구성 요소에서 두 번째인 담화 측면에서 내용 조직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주로 말하기 내용을 조직하는 네 가지 방법을 서술하여 의견 말하기 과제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조직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견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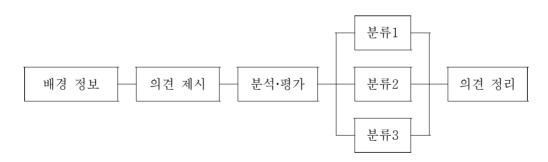
하기는 주장하기와 설득하기의 말하기 유형이므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구성 요소는 전제, 주장, 근거이며. 전제의 경우 대부분은 관념이나 상식, 배경 지식 등에 관한 사람들이 공감하는 일반적인 얘기들이고 전제가 말이 되어야 주장에 설득력이 생긴다(이시한, 2012: 49). 주장은 화자가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으로 자신의 관점이며, 근거는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되는 부분이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의견 말하기는 일대일 인터뷰 담화에서 일방적인 말하기인만큼 귀납적인 조직보다는 주장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그에 따르는 설명과 이유를 덧붙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먼저 밝히면 제한적인 시간 동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말하려고 하였던 이야기 중 몇 가지가 빠졌더라도 결론이 분명하므로 발화의 완결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 또한 자기의관점을 표명한 후에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종합하여 자신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말하기의 일관성을 확실하게 한다. 따라서 의견 말하기의 공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IV-1] 의견 말하기의 내용 구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 구조를 의견 말하기의 3가지 질문 유형별로 적용되어 구조 형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분석 평가형 질문에 대한 의견 말하기를 준비할 때, 말하기의 생성 단계에서 따라야 할 사고 구조 형식을 살펴보자.



[그림 IV-2] 질문 유형에 따른 구조 형식: 분석 평가형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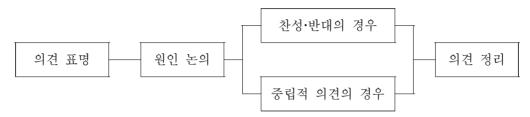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라는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는 우선 배경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적인 지식을 전제로 제시한 후에 관점을 표명한다. 그 다음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연역적인 구조 방법으로 자기의 관점을 조리 있게 분류하여 제시한 후에, 결론 부분에서의견을 다시 정리하여 말해야 한다. 이처럼 의견 말하기 담화를 조직하는 형식에서 각 구조 기능별로의 표현 문형은 아래 <표 IV-7>와 같다.

형식 단계별 기능	기능별 표현 문형
	-요즘은발전에 따라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의 문제는 화제가 된다.
메커 지니	다 아시다시피
배경 정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원래란것이다.
	-나는다고 생각한다.
의견 제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나는편이다.
	-나는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의 원인으로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분석·평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면
	좋은 점이 아래와 같이가지가 있다.
분류	-우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七五	-첫 번째는두 번째는세 번째는
	-이런 이유로생각한다.
의견 정리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래서 나는다고 본다.

<표 IV-7>형식 기능별 문형의 교육 내용: 분석 평가형 질문

위의 <표 IV-7>는 분석 평가형 의견 말하기의 내용 구조에 적용되는 표현 문형의 예시들이다. 학습자들이 분석 평가형 말하기 내용을 조직할 때 위에서 제시된 구조 형식에 따라 각 문형을 잘 활용하면 더 논리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기대한다.

두 번째 찬반 논의형 의견 말하기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내용 구조의 형식에 따라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IV-3] 질문 유형에 따른 구조 형식: 찬반 논의형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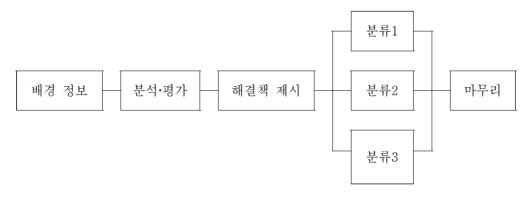
찬반 논의형 질문에서는 우선 자신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의 관점을 표명해야 한다. 이때는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보다 중립적인 주장을 가질 수도 있으나 우선 말하는 사람의 관점을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단계는 본론으로 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관점을 합리화하는 과정이다. 찬성하거나 반대

형식 단계별 기능		기능별 표현 문형
		-나는 이런 현상에 대하서 찬성·반대한다.
		에 대해서 찬성해야 하는지 반대해야 하는지 쉽
의	견 표명	게 말할 수가 없다.
		-동전이 정면도 있고 반면도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은 좋
		은 점이 있다고 하면 안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찬성·반대 의견	-왜냐하면
		-왜 찬성·반대하냐면
원인		의 원인으로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논의		-이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면
	중립적인 의견	-확실히그러나
		사실이다. 그런데 반면에
		-하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에 대하서 찬성·반대한다.
의견	정리	-따라서 나는다고 본다.
		-이상의 이유로생각한다.

<표 IV-8>형식 기능별 문형의 교육 내용: 찬반 논의형 질문

하는 관점이라면 정면적인 논증과 반증을 제시하면 더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 될 것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면 양면의 의견을 서술한 다음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내용을 조직하는 마지막 부분은 분석 평가형과 같이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이므로 담화가 완결성과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게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표 IV-8>은 찬반 논의형 의견 말하기를 할 때 내용 구조의 형식에따른 기능별 표현 문형들이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아래와 같이 배경 정보를 제시하기, 현상을 분석·평가하기, 해결책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기와 마무리하기 등 네 단계로 내용을 조직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림 IV-4] 질문 유형에 따른 구조 형식: 해결책 제시형 질문

Ⅲ장에서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담화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학습자는 해결책제시형 질문을 대답할 때 순차적 조직 방법을 채택하여, 시작 부분에서 배경적인 내용을 소개하지 않고 바로 해결책을 열거하여 발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에서 언급한 현상이나 사건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거나, 배경 지식을 전제로 서술하면 논리성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분석 평가형 내용을 조직하는 것과 같이 배경 정보를 소개하는 것을 권장한다. 구조 단계의 기능별로 학습자들이 습득해야 할 표현 문형의 예시는 <표 Ⅳ-9>과 같다.

형식 단계별 기능	기능별 표현 문형
	-요즘은발전에 따라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의 문제는 화제가 된다.
배경 정보	다 아시다시피
매경 정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분석하자면
분석·평가	왜 이런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군격 청가	-왜냐하면
	의 원인으로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해결책 제시	-내가 보기에는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하자면
	-우선면 좋지 않을까 싶다.
분류	-그리고하면 어떨까 싶다.
ਦਸ	-그 다음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면 바람직할 것 같다.
	해결하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마무리	-이대로 가다가면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표 IV-9>형식 기능별 문형의 교육 내용: 해결책 제시형 질문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담화를 조직하는 '형식'을 지나치게 준수하면 몰개성적 발화가 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개성적으로 사고하다보면 아무래도 논리를 일탈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고 주관적으로 흐르기 쉽다. 특히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일관성이 있는 담화를 도출해야 하는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더 그렇다. 따라서 구조 형식을 지키고 그러한 형식에 따라 전형적인 한국어 표현

문형을 중시하면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안심하고 개성적인 생각을 전개할 수도 있고, 그 사고는 객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위와 같은 한국어의 정형화된 표현들을 활용하여 말하면 발화의 방향이 어긋나는 위험에 빠져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이런 '형식'을 바탕으로 말하기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더 자유롭게 생각을 개진할 수 있게 되면 '형식'을 깨뜨려도 상관없을 것이다.

### 3) 발화 단계의 전략 사용 측면: 전환 말하기 전략의 사용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학과 학습자들은 비한국어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만큼 한국어로 발화할 기회가 적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기회도 많지 않다. 따라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자들은 어떤 주제에 대한 자시의 논리적인 생각이 있어도 실제 말하기를 할 때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아예 메시지 전달을 표기하거나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의도와는 다른 내용을 전달하기도한다. 장미숙(2005)에서는 의사소통 전략은 자동으로 형성되지 않고 훈련을 통하여 계발되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견 말하기발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서는 언어적인 지식의 숙달과 말하기 준비할때 활용되는 전략을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실제 발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사용할 만한 전략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제2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언어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 수행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수행 과정 중의 전략적인 능력은 의사소통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므로 제2언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필요하고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이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어떤 이슈나 현상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길게 서술할 때, 학습자들의 부족한 언어 지식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바꾸거나 누락하고, 심지어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Ⅱ 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난점 조사의 결과와 Ⅲ 장에서 양상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말하기를 수행할 때 제일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발화 단계에서의 표현과 문형 사용이다. 말하

기 준비 단계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지만 실제 발화에서는 언어적인 미숙성 때문에 의견 말하기의 수행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의견 말하기 발화 단계의서 의사소통 전략의 하나로서 전환 전략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한어휘의 중국어 전환 전략, 예시 들기 전략, 풀어서 설명하기 전략과 마지막으로 근접한 표현 대체하기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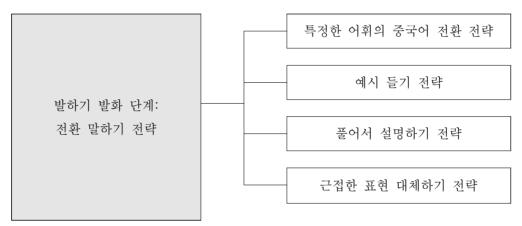
우선 중국어 전환 전략은 발화 안에서 중국어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 제한을 제일 많이 받는 전략이다. 즉 언제나, 아무 때나 사용하면 안 되고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중국과 관한 어떤 고유 명사, 특별한 사건, 아니면 중국에서 어떤 현상을 예를 들어 언급할 때, 굳이 한국어로 직역할 필요가 없고 중국어 발음대로 말해도 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중국어를 완전 모른다면 간단하게 한국어로 그 고유 명사를 해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시 들기 전략과 풀어서 설명하기 전략도 의견 말하기 발화를 수행할 때 바람 직한 전략이고 학습자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예시 들기 전략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예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관점을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다. 어떤 관점을 밝히기 위하여 적절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상대방이 더 실감 있게 받아들일 것이고,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도 설득력이 있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담화 내용 측면에서 보면 풍부성과 적절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화를 수행할 때 언어적인 어려움에 의하여 유창성을 떨어뜨리거나 발화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풀어서 설명하기 전략은 학습자들이 언어 자원으로부터 어휘를 이끌어낼 수 없거나, 중국어로는 아는 개념이지만 한국어로 해단 개념을 의미하는 어휘나 표현을 모를 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특징이나 성질을 설명·묘사하는 전략이다. 학습자들이 어떤 이슈나현상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모르는 어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표현을 말을 풀어서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듣는 상대방이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견 말하기 수행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학습자에게 상당히 유용한 전략이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에게 의견 말하기를 수행할 때 가르쳐야 할 마지막 전략으로는 근접한 표현을 대체하는 전략이다. 말 그대로 근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고 한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적

특질을 공유하고 있는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중국인 대학생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길게 말할 때 미숙한 표현 문형의 사용을 만나면 준비하였던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고 말하기 유창성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과제 수행의 효과에 영향을 끼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그 문제가 되는 단어나 표현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말을 바꾸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각오를 가져야 하도록 교육적인 내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IV-5]와 같다.



[그림 IV-5] 전환 전략의 교육 내용

# 3. 의견 말하기 교육의 실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의견 말하기 교육의 목적은 한국어 의견 말하기 담화에 대한 언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한 담화에서 말하기 내용을 완결성 있게 조직하여, 다양한 전략과 표현 문형을 사용함으로서 의견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중국 고급 학습자들의 담화를 분석하였을 때, 학습자들이 언어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 지식을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의 원인은 학습자들이 언어 지식을 습득하기만 하고 언어 사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수행'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목표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실제와 유사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활동'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

는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의견 말하기와 관련한 선행 지식과, 수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합시켜서, 더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한국어 의견 말하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실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말하기 교수에 원리에 관하여 조수진(2007)에서는 과정의 설계, 내용의 선정, 교수 방법의 구안이라는 세 가지 큰 측면에서 말하기 교수의 원리와 여섯 개의 하위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리들을 한국어 교육의 특성과 말하기라는 영역에 맞게 변형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논의를 하였다.

과정 설계	학습자 중심의 원리 경험 중심의 원리	
내용 선정	담화 중심의 원리 실제성의 원리	
교수 방법 구안	메타 언어적 사고 활성화의 사회·문화적 지식의 활용의	

[그림 IV-6] 한국어 말하기 교수의 워리(조수진, 2007)

즉 과정 설계의 원리를 학습자 중심의 원리와 경험 중심의 원리로 나누어 구분 하였고, 교육의 내용을 선정할 때의 원리로서 담화 중심의 원리와 실제성의 원리는 학습자의 말하기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 방법을 구안하기 위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메타 언어적 사고 활성화의 원리와 사회·문화적 지식의 활용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반성적 경험<sup>44</sup>)을 통한 말하기 교수의 실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말하기 교육 원리가 적용되는 실제의 양상을 참고하여 IV 장 2절에서 선정한 교육 내용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견 말하기 교육의 실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IV장 2절에서 제시한 의견 말하기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 말하기 교육은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 전략 사용의 습득과 종합적인 연습으로 크게 3단계로 나누고 진행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기초적인 지

<sup>44)</sup> 조수진(2007)에 의하면 반성적 경험(reflective experience)은 Dewey의 경험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고의 과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일차적이고 우발적인 경험이 아니라 정제된 반성과 탐구의 결과인 경험을 말한다.

식과 전략 사용의 습득 단계는 또 각각 다시 3부분, 즉 수업 지도, 말하기 활동, 반성적 평가<sup>45)</sup>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이고, 마지막 종합적인 연습 단계는 실제적으 로 의견 말하기 과제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구체적 인 교육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IV-7] 한국어 의견 말하기 교육 모형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의견 말하기 교육 내용의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재한 중국 교환학생 5명46)을 대상으로 삼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검증실험은 위에서 제시한 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의견 말하기 교육을 실행하였는데, 동일한 실험 대상에 대하여 사전 의견 말하기 담화 자료47)와 교육을 받은 후의의견 말하기 담화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교육 효과를 확인하였다. 의견 말하기 교육은 2014년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12시간을 하였고, 구체적인 수업 실제는 위에서 제시한 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다.

<sup>46)</sup> 검증실험에서는 중국의 대학교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최대한 맞춰 교환학생 5명을 선 별하였다. 참가한 학습자들의 신상정보는 다음과 같다.

	성별	나이	학습과정	학습기간	TOPIK등급
1	여	24	학사4학년	4	6
2	남	23	학사4학년	4	5
3	여	23	학사4학년	4	5
4	여	25	석가2학년	6	6
5	남	24	석사1학견	5	6

<sup>47)</sup> 의견 말하기 교육 전 인터뷰 실험은 2014년 5월 18일에 실행하였다. 인터뷰 방식과 질 문 유형은 본 실험과 같다.

<sup>45)</sup> 김지은(2002)에서는 말하기 화자가 말하기의 전 과정에서, 말할 내용을 생성, 조직하여 표현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점검과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반성적 평가'라고 고안하고, 학습자들이 자기 말하기를 보는 기회를 갖고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실제적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 (1)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

첫 번째 단계인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은 '수업 지도1', '활동1'과 '평가1'로 구분한다. 수업 지도1는 IV장 2절에서 마련한 교육 내용의 언어 사용 측면과 담화구성 측면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이며, 언어 지식에 관한 의견 말하기 문형의 숙달과 주제 유형에 따른 내용 구조 형식의 이해에 그 목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의견말하기의 기능별로 언어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의견말하기 주제 유형에 따라 구조 형식과 표현 문형을 교육 내용으로 가르쳐 준다. 이러한 의견말하기에 관한기초적인 지식을 숙달한 후에 활동 단계에 들어가고, 기존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장 만들기 연습과 의견말하기 구조 연습을 수업활동으로 진행한다. 이는학습자들이 의견말하기 담화에 관한 표현, 구조 등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 다음 평가1 단계에서는 활동1의 연습후에 학습자들이자기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는 자신의 발화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평가한 후에, 문제점을 어떻게 수정할수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해결한다.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 단계는 학습자들이 의견 말하기를 대기하기 위한 지식 측면의 습득인 만큼 먼저 교육 내용으로 계획해야 한다. 의견을 말할 때 관련한 문형을 정리·연습하는 내용과, 주제 유형에 따른 의견 말하기 내용 구조 형식을 숙달하는 내용은 학습자들이 의견 말하기를 대기하기 위한 전제 지식이다. 따라서 고급 단계에서 이전에 공부하였던 지식을 기능별로 다시 정리하여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연습을 시키는 단계를 제일 먼저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내용 선정과 내용 조직 부분은 어렵지 않다고 답하였으나 실제 한국어 의견 말하기 담화에서 산만하고 논리적이지 않은 담화도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계획하던 내용을 한국어로 효율적으로 발화를 할 수 있도록 주제의 유형에 따라 의견 말하기 내용을 조직하는 내용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첫 번째 단계 수업에서이러한 두 가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한 후에 학습자들로 하여금 연습과 자기 평가를 시켜야 한다. 이것은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실제 말하기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수행하는지를 연습하고 확인하는 단계이다.

의견 말하기 수업에서 이 부분의 실제 교수·학습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단계	교수·학습 내용
	□ 의견 말하기와 관련한 언어 지식, 즉 기능별로의 표현 문형과
	주제 유형에 따른 내용 구조 형식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   교수·학습 내용의 예시:
	  - 논의 기능의 표현 문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적당한 문장을 만들어서 설명해준다.
	작성인 단경을 단글에서 글장에만다. 
수업 지도1	잖아요,
	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든요.
	논의 기능은데요.
	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 모른다. - 분석 평가형 주제인 의견 말하기 담화의 구성 형식을 설명해
	주고 예시 질문을 통하여 구체적인 구조 형식과 내용을 학습
, д ,—-	자들이 이해하도록 가르쳐 준다. 각 구조 부분에서 자주 쓰는
	문형도 같이 보여주고, 언어 지식에 그치지 않고 사용 방법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
	1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분석 평가
	형 주제의 배경 정보 의견 제시 분석 평가 분류2 의견 정리
	내용 구조
	형식:
	-요즘은발전에 따라사람들의 눈길을 모으
	배경 정보 고 있다.
	부분에서의 문제는 화제가 된다.
	활용할 수  다 아시다시피
	있는 문형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예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원래란것이다.
활동1	□ 의견 말하기의 기능별로 언어적인 지식과 담화 구성 측면에서

의 지식을 숙달한 후에,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 록 문장 만들기 연습과 의견 말하기 구조 연습을 수업 활동으로 진행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의견 말하기 담화에 관한 표현. 구조 등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 교수·학습 내용의 예시: - 학습자에게 어떤 주제를 제공하여 논의 기능과 관련한 문형들 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든다. 질문: 혼전 동 학습자들로 하여금 '...면 얼마나 좋을까요? ', '.... 거에 대해서 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등 문형을 활용하 어떻게 생각 여 혼전 동거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간단하게 몇 마 디만 논의를 하여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다. 하세요? - 어떤 의견 말하기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내용을 구성하는 형식과 방법을 생각하라고 내용 구성 연습을 시킨다. 이러한 담화 내용을 조직하는 연습을 하면 학습자들이 저절로 머릿속 에서 어떤 고정적인 형식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예:> '여자들이 결혼 후에도 일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 찬성 하세요? 반대하세요? 의견을 말해 주세요.'에 대하여 의견 말하 기를 할 때, 담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가? □ 활동1에서 문형을 사용하여 문장 만들기 연습과 의견 말하기 내용 구조 연습이 끝난 후에, 학습자들이 자기 평가를 수행할 것 평가1 이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는 자신이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생겼 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평가한 후에, 문제점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한다.

<표 Ⅳ-10> 1단계 수업: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

#### (2) 전략 사용의 습득

두 번째 전략 사용의 습득 단계에서 우선 교사들이 학습자에게 의견 말하기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의견 말 하기를 준비하고 발화할 때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었던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강 조하여, 준비 메모를 작성하는 전략과 말하기의 전환 전략의 활용 방법을 학습자 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 전략에 대한 지도가 끝난 다음에 전략 사용에 관한 연습 단계로 넘어간다. 이 활동2에서는 메모 작성 연습과 전략 사용 연습을 적당한 과제를 통하여 연습시킨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의견 말하기 전략을 숙지하고, 더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준다. 첫번째 단계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활동2 후에 학습자들이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를 수행한다. 학습자 간의 상호 평가를 통하여 의견 말하기에 대한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학습자들이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의 문제점도 발견하고, 의견 말하기 담화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다.

전략 사용의 습득 단계는 학습자들이 의견 말하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에 실제 담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식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이다. 실제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다양한 미지의 요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단계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적인 지식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말하기의 수행 순서에 따르면 준비 단계의 전략과 말하기 수행 단계의 전략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인터뷰 담화에서는 준비 메모를 활용하는 전략과 전환 말하기 전략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수업 모형을 만들고자 한다.

교수· 학습 단계	교수·학습 내용						
	□ 의견 말하기를 준비	하고, 실제 수행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만한 전략에 관					
	한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해 준다. 특히 말하기를 준비하고 발화할 때						
	어려움을 느끼곤 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강조하여, 준비 메모를 작성하는						
	방법·전략과 발화할 때 만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전환 전략을 적당한						
	예시를 통하여 제시한다.						
수업	□ 교수·학습 내용의 예시:						
지도	해결책 제시형 의견	- 배경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하여 기록한다.					
2	말하기를 준비할 때	- 해결책 제시형 담화의 구조 형식에 따라 각 부분					
	메모의 작성 전략과	의 중요한 내용을 키워드로 메모한다.					
	발화할 때의 전환	- 각 부분에서 구체적인 설명 예시나 사례 등의 키					
	전략을 예시로 전략	워드를 나열하여 빠르게 기록한다.					
	사용에 관한 지식을	- 비슷한 뜻인 문장을 다른 문형으로 바꿔서 연습					
	제시한다.	한다.					

- □ 활동2에서는 메모 작성 연습과 전략 사용 연습을 적당한 과제를 통하여 연습시킨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의견 말하기 전략을 숙지하고, 더 자연스 럽게 이러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된다.
- □ 말하기 내용 생성을 위한 준비 메모 작성 연습 예시:
- 학습자들에게 준비 메모를 작성하는 시간을 2분 정도를 제공하여, 배웠던 메모 기록 전략을 활용하여 '여자들이 결혼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 '미성 년자의 노동 문제에 대한 의견을 생각하고 준비 메모 작성 연습을 시킨 다.

#### 주장: 찬성

근거: 배경 소개: 시대 바꿈, 스트레스, \*오름 많은 여자들이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죠. 이 런 형상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3717171 91010.

장점: 경제적인 부당을 줄임. \*체가 여자들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독립적인 인격,

사회생활에 참여. \*그런데 동전은 정면과 반면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은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다.

예: 친구의 얼니~ <u>단점:</u> 바쁨...

2

활동

결론: 그래도 여자가 결혼한 후에 일을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한다.

## 미성년 노동??

배경: 경계적인 어려움, 교육 보급률 낮음. 문계점: ①불번 행위 ②아이에게 잔인 ③위험

정부쪽에서 강하게 막혀야 한다! 보장 정책이 있어야 해요! 미성년을 보호하는 일은 무리의 책임이다!

이처럼 학습자는 준비 메모 작성을 통하여 주제와 관련하여 나열한 하위 내용 가운데 실제 담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를 정리하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핵심 정보의 누락 없이 의견 말하기를 생성할 수 있다.

평가

□ 활동2 후에 학습자들이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를 수행한다. 학습자 간 의 상호 평가를 통하여 의견 말하기에 대하여 더 깊게 이해를 하게 되고, 학습자들이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의 문제도 발견하고, 효율 적인 교수·학습의 방법 중의 하나이다.

<예:> 준비 메모를 작성한 후에, 학습자는 자신의 메모를 보면서 상대방에 게 서로 준비한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말하기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 스스로 '내가 준비한 내용을 다표현하는가?' 등 부분에 대하여 평가한다.

<표 Ⅳ-11> 2단계 수업: 전략 사용의 습득

## (3) 종합적인 연습

의견 말하기 교육 모형의 마지막 단계는 종합적인 연습 단계로 의견 말하기 과제 수행과 평가 목적인 의견 말하기 과제 수행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수업에서의 의견 말하기 과제 수행은 활동1, 활동2와 비슷하게 수업에서 진행된 연습 활동이다. 즉 학습자끼리 짝을 지어, 주어진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 말하기 과제를 준비하고 발화 단계까지 수행하는 것이다. 과제 수행이 끝날 때마다 학습자들이 짝별로 평가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몇 번의 연습을 마친 후에 본격적인 과제를 학습자 한 명에게 주고 의견 말하기 담화를 수행하도록 한 후 교사와 학우들, 그리고자기의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게 된다. 교육적인 측면에서교사가 학습자의 모든 것을 직접 고쳐주기보다는 학습자 자신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오류를 통하여 깨닫는 것이더 바람직하다.

한국어 교수·학습은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지식을 전수하고 한국어의 응용기능을 습득시키는 과정이다(김순녀, 2011). 종합적인 연습은 앞에서 진행한 모든 수업내용의 종합응용으로 새로 배운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류 환경이 없는 만큼 말하기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된다, 과제 수행을 수행하고 자기 평가와 상대방의 평가를 주고받으면학습자는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수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는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알맞은 교수·학습 방법과 내용을 다시 재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수업 모형의 예시로 다음 내용을 살펴보자.

교수학습 단계	교수·학습 내용				
	□ 활동1과 활동2에서 부분적인 내용만 연습하는 것과 달리, 종합적				
	인 연습 단계에서의 과제 수행은 학습자들은 짝을 만들어, 주어진 어				
	떤 주제에 대하여 메모를 작성하면서 준비한 후에 의견 말하기 과제				
	를 완전하게 수행하는 단계이다.				
기계 스케	< 예:>				
과제 수행	- 짝별로 학습자 A에게 '요즘은 중국의 학교나 부모님들이 중국어보				
	다 영어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과				
	현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라는 주				
	제에 대하여 의견 말하기를 준비하고 발화를 시킨다.				
	- 학습자 A는 말하기를 한 후에 B에게 다른 제목을 준다.				
	□ 학습자 A와 B는 상대방의 담화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주고받				
평가3	는다. 그리고 서로에게 자기 평가도 나누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토론한다.				
	□ 종합 활동 단계는 한 명 학습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인터뷰 과제				
종합 활동	를 주고 말하기 담화를 수행하도록 한 후, 교사와 학우들, 그리고 자				
	기의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게 된다.				

<표 IV-12> 3단계 수업: 종합적인 연습

이렇게 3단계의 의견 말하기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의견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수업이 끝난 후에 즉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1주 후인 2014년 5월 31일에 사후 인터뷰 검사를 진행하였다. 48) 학습자들의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의견 말하기 담화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한 의견 말하기 교육 방안을 수업에 적용한 후에 효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전 담화 자료	교육 후 담화 자료		
<s-5전> 저는 <u>반대합니다</u>. <u>그</u></s-5전>	<s-5후> 저는 부모랑 같이 사는 게, <u>반대합</u></s-5후>		
이유는, 우선::생활습관이, 완전	<u>니다</u> . 음~ <u>첫 번째 이유가:: 음~ 생활습관이</u>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u>아예 다르다고 생각해요.</u> 일단::부모님들은::		

<sup>48)</sup> 본 실험의 목표는 학습자가 교육을 받은 후 의견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후 검사에서는 사전 검사와 동일한 질문에 관한 의견 말하기 담화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학습자 개인의 학습 차이 변인을 제외하기 위하여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후 검사를 하겠다는 사실을 학습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2.0)왜냐하면::우리는, 우리 젊을 세대의:: 습관이 있고:: 부모님 은:: 음~그 세대의 습관이 있어 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아침 에. 일찍 일어났는데::일어났습니 다. 우리는::음~ 늦게 일어나::일 어납니다. 그리고::음~ 저, 제 생 각은, 우리는 서로:: 생각도 완전 히 다, <u>다릅니다.</u> 음~ 왜냐하면 (2.0) 부모님들은:: 오래 살았으 니까, 생각이 조금 더(3.0) 깊고:: 그런데 우리는 좀~ 새로운 생각 들이 많아서, 새로운 거를 도전하 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3.0) 음~물론, 같 이 사를 게 장점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울 때::음~우리가, 젊은이들이 편해:: 많이 많이 편해집니다.(2.0) 그리 고, 아침도 해주는 사람도 있어 요::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서로 생각도 다르고, 생활습관도 다르면:: 같이 살면::음~ 충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결혼 후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 입니다.

그~ 조금, 삶에 대해서:: 좀 절약하고:: 물도 아껴 쓰고:: 이런 스타일이:: 부모님 좀 많은데, 그런데 젊은이들이 좀~ 편안함/음~ 편한 생 활을 좋아해서:: 그것은 충돌이 날 수가 있어 요.(2.0) 또는::: 어쨌든 부모님과, 다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양족 부모 다 같이요.(1.0) 어 떻게 보면:: 한쪽 부모랑 같이 있으면, 다른 한 쪽은 좀 적응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1.0) 예 를 들면:: 남자 쪽 부모가 오면, 여자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오히려 가정생활 에:: 좀~ 해치지 않을까 싶어요.(2.0) 그리고 셋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게, 생각이 아예 다르 고::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까 생활 습관이랑 연관이 있는데:: 부모 님들이 보통 어렸을 때, 좀~ 어려운 상황을 겪 고. 그냥 그 시대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 있는 데, 아이들이 완정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는 부모님들은:: 뭐~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아이들에게 잘해준 그 런 마음도 있는데::: 근데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장점도 있 죠.(1.0) 모든 면에서 좀 편해지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 와서 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집밥이 있는 것↗ 그리고 얘들을 돌볼 때도:: 키울 때도 편해지고:: 또는 좀~ 큰 차원에서, 돈은~ 부모님 관리하면::음~좀 절약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2.0) 그래도 저는 각자의 삶을 즐기면서, 서로 방애를 하지 않고, 음~따로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학습자 사전·사후 담화 비교<S-5>

위에서는 한 학습자가 '젊은이들이 결혼 후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에 대한 사전과 사후의 의견 말하기 담화 자료이다. 담화<S-5후>는 <S-5전>보다 발화양

이 많아지고, 휴지나 반복 현상이 적어지면서 내용 생성과 유창성의 측면에서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담화<S-5후>에서는 결혼 후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단점을 '생활습관이 다르다', '양쪽 부모를 다 만족할 수 없다', '생각 방식이 다르다' 등 3가지로 나누어, 담화<S-5전>보다 더 충분하고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중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다. 또한 <S-5전>에서는 '-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단조로운 표현 문형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담화<S-5후>에서는 '-지 않을까 싶다'등과 같은 의견을 밝힐 때 정형화된 문형들을 활용하고 있다. 전환 말하기 전략 측면에서는 예를 들기 전략과 근접한 표현 대체하기 전략을 사용하면서 화자의 뜻을 더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 학습자는 본 연구에서 제의한 교육을 받고 의견 말하기 능력은 언어, 내용과 전략 사용 측면에서 향상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명 학습자의 담화 자료를 살펴보자. 미성년자의 노동에 대하여 이 학습자 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사전 인터뷰와 사후 인터뷰에서 비슷한 내용을 발화하였다. 그 중에서 반대하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 '불법이다', '진인하다', '위엄하 다'라고 하여 똑같은 키워드가 나타났다. 그러나 사전 담화 <S-2전>에서 각 논 거를 제시한 후에 더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좀 설득력이 부족 한 인상이 남아있다. 반대로 담화<S-2후>에서는 학습자가 발화양도 많아지고 설 명하는 문장도 보였다. 사후 중국어 인터뷰 결과, 학습자가 말하기를 준비할 때 준 비 메모를 잘 활용하였기 때문에 말할 내용이 더 다양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또 한 내용 구조 측면에서 <S-2후>는 우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후에, 반대하는 이유를 3가지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앞 에 내용을 상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반다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논리적 이고 일관성이 있는 의견 말하기를 완성하였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S-2 후>에서 다양한 완곡적인 표현 문형을 활용하는 것과 전환 말하기 전략을 활용하 였다는 것이다. 미성년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에 있다'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다'고 풀어서 설명하기 전 략을 사용함으로 화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려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사후 검사에서 학습자들의 담화 자료를 사전 담화 자료와 서로 비교하여 분석함 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견 말하기 교육의 모형을 수업에 적용한 결과 학습

## 교육 전 담화 자료

<S-2전> 저는 미성년자 노 동:: 반대합니다, 반대해요.(2.0) 왜냐하면:: 첫 번째, 그것이 위법이 에요. 음~ 국가에서 안 된다고, 해 요.(2.0) 음~그리고, 두 번째는:: 음~아이들 일을 하면, 그들한테 너무, 잔인해요.(1.0) 미성년자~들 이:: 음~노동을 하면:: 성인처럼:: 이렇게, 음~ 성인보다 힘들어 요.(2.0) 세 번째는::좀~ 위험해 요::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 있으 면:: 성인은::음~ 처리할 수 있는 데:: 미성년자는, 못하:: 잘 못할 것 같아요.(2.0) 그래서 저는, 음~ 국가에서, 음~ 강하게 이런 현상 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 요.(2.0)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장방법:: 보장 제도도, 있어야 해 요.(1.0) 이렇게, 하면~ 미성년자 노동문제를, 보고하고:: 음~해결할 수 있어요.(2.0) 네~ 이상입니다.

## 교육 후 담화 자료

<S-2후> 미성년자 노동에 대해서는, 저 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국 가의 법에 따라서 이게 불법 행위이라고, 정하 는 것이::음~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 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저 개인적인 입 장에서는 좀 잔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니까 어린이:: 어린이나 미성년자가::음~ 아직도 자 라가는 과정 중인데::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 에서.(1.0) 좋은 교육을 받고:: 영양 같은 것 도 주고 그러야 되는데::어렸을 때부터 벌써 일하는 것도:: 마음고생이니까:: 마음부터 몸 고생을 같이 하면, 어린이한테 좀~ 잔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셋 번째는:: 사실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음~ 선생님, 보모님들의 보호 안에서:: 건강하 게 자라야 되는데, 일찍 일하게 되면:: 일하면 서 부딪치고,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 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완전이 제 도적으로부터::음~완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그래서 저는 미성년자 노동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학습자 사전·사후 담화 비교<S-2>

자들의 의견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준비 메모를 활용하면서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측면과 표현 문형의 사용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Ⅴ. 결론

본 연구는 중국 4년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인 터뷰 담화에서 한국어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양상을 분석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의견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 방안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 로 삼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일차적인 학습 목적은 한국어를 통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며,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학습 목표는 모국어 화자처럼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의사소통이며, 여기에서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중 말하기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말하기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말하기 교육 현황은 음성언어보다는 문자언어에 더욱 집중하고 있고, 대부분은 문법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회화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본연구의 대상인 중국인 한국어학과의 고급 학습자들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면 대부분 한국어를 웬만큼 구사할 수 있지만, 격식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 즉 간단한 대화의 수준에 한하여 어떤 주제나 사회 문제 등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실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의견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4년제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와 구별하여야 한다. 대학 과정에서 한국어를 학문 목적으로 배우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학습자들이 처한 환경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학문 활동의 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향실(2006)에 따르면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학과의고급 단계는 특정한 전문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자가 직접 자신이 생각한바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단계이고 이는 해당 전문 분야의 표현 방법, 구성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갖춘 말하기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어 의견 말하기란 사회 문제나 어떤 주제에 관하여 화자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한국에 유학을 가거나 한국계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 한국어로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능력과 한국어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의사 표현 능력이 함께 요구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 육해야 하는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대부분 문법 중심의 단편적 언 어 지식 정리 및 간단한 수업에서의 대화 연습의 말하기에 치중하여 왔다. 이러한 말하기 지도 방법은 정확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지도로서의 말하기 능력과는 연결되기 어렵다. 말하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 장시키기 위해서는 언어 지식의 숙달도 중요하지만, 말하기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발화에 이르는 과정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Ⅱ장에서 말하기의 목적을 기준으로 말하기 유형을 분류하여, 의견 말하기의 개념과 한국어 교육적인 위상을 제시하였다. 의견 말하기의 효율적 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의견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정리하였다.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 현황과 학습자들이 의견 말하기에서의 난점을 분석하여 이론적인 지식을 전제로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인터뷰 담화에서 수행한 의견 말하기 담화 자료와 준비 메모를 수집하여,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만든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인터뷰 담화에서의 의견 말하기 양상의 문제점을 세 가지 찾아냈다. 첫째, 어떤 주제나 현상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적당한 관점을 가지 고 있을 때, 언어적인 지식의 미숙함과 시간적인 압박감 때문에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연결하여, 유창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둘째, 음성언어로 발화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어휘, 문법, 표현 문형 등이 잘못 사용되 거나 단조롭게 반복되면서 의견 말하기가 방해를 받는다. 셋째, 말하기 준비 단계 와 수행 단계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활용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IV장에서는 의견 말하기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마련한 후에,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언어 사용 측면, 담화 구성 측면, 전략 사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정 하였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 방안을 3단계 교육을 제안하 여, 즉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 단계, 전략 사용의 습득 단계와 종합적인 연습 단계 로 나누어 구체적인 교육 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4년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담화인 만큼 특정한 담화 유형에서의 일방적인 의견 말하기에 초점을 맞춰, 의견 말

하기의 일정한 형식, 주어진 상황, 내용적인 구조, 관용적 표현, 활용한 전략 등의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말하기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에서 언어 지식만을 강조하지 않고 학습자들이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말하기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실제 발화 단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교육 내용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인터뷰 담화 자료를 수집하였을 때 제한된 양의 자료만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누락한 의견 말하기 요소와 실제 발화 양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의견 말하기 발화 과정 중에서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 수준에서의 개인차가 가져올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내 논저

- 강승혜·강명순·이영식·이원경·장은아(2006), 한국어 평가론, 태학사.
- 강승혜(2005), 한국어 고급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 기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21.
- 강현화(2007), 한국어 표현문형 담화기능과의 상관성 분석 연구 지시적 화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1-26.
- 구현정·전정미(2011), 화법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 김미소(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고도구어 등급 표준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2000),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과제 종류 및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연구, 연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수(2008), 한국어 학습자 발화의 유창성 판단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 19(2),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1-16.
- 김상희·김상희·김영심·이지양·이현재·최선경(2007),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발표와 토론,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김소영(2006), 연설의 담화 유형적 특성과 평가의 방향, 화법연구 9, 한국화법학회, 173-202.
- 김수형·전희숙·권도하(2012), 학령전 아동의 담화유형에 따른 비유창성 특성, 언어치료 연구 21-3, 한국언어치료학회, 53-68.
- 김순녀(2006), 중국학습자를 위한 한국어말하기 교육 방법론, 국어교육연구 18, 서울 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87-215.
- 김순녀(2011),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말하기 교수-학습에 대한 소견, 국어교 육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07-133.
- 김정남(2008), 텍스트 유형과 담화 표지의 상관관계, 유학생의 한국어 쓰기 교육에 서의 활용을 위하여, 텍스트언어학 24,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26.
- 김정수·원진숙(1993),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이중언어학 11(1), 이중언어학회, 24-33.
- 김정숙·이동은·이유경·최은지(2007), 한국어 표준 말하기 시험 측정 도구를 위한 기초 연구 모의 인터뷰 평가와 학습자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1,

- 한민족어문학회, 229-258.
- 김정숙(2000),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 교육 11-2.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1-19.
- 김정태(2008a), 말하기 평가 시행 도구 기술과 문항 유형간의 관계성 연구, 멀티미디 어언어교육 12.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177-206.
- 김정태(2008b), 한국어 말하기 평가 개발 모형 및 시험타당도 검사 절차, 언어와 문화 4-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47-76.
- 김종록(2008),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 문법, 박이정,
- 김중섭·김정숙·이해영·김선정·이정희(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김지은(2002), 반성적 평가를 활용한 말하기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미(2011), 장르 기반 텍스트, 문법 통합 모형에 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41, 우리 어문학회, 167-195.
- 노아실(2007), 주제에 대한 관심과 숙달도가 한국어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성기(1998), 국어과 교육의 실제화 연구 -말하기 듣기 언어영역, 교육과학사.
- 마성식(1996), 언어·사고·생활, 한남대학교출판부.
- 문선희(2005), 초등학생의 설득적 말하기 능력 발달 실태 연구, 제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병곤(2004), 논증적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서 논증 도식의 운용 양상에 대한 분석 및 교육적 시사, 국어교육학연구 18, 국어교육학회, 184-222.
- 민병곤(2006 기), 말하기, 듣기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5-38.
- 민병곤(2006ㄴ), 텍스트 중심 말하기 교육 내용 구성의 전제와 함축, 어문학교육 33, 한국어문교육학회, 7-28.
- 민현식(2009), 언어 습득 및 문화 관련 이론의 동향, 국어교육연구 24, 서울대학교 국 어교육연구소, 71-118.
- 박광진(2010),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대상 교실 말하기 평가 방안 연구, 배재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선(200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말하기 능력 배양 모형과 적용 사례 연구,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논문집,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311-326.

- 박성원(2002), 인터뷰 담화 분석을 이용한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애양(200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토론능력 향상을 위한 말하기 교육방안, 비교 문화연구 12-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32-71.
- 박영순(2007), 한국어 화용론, 박이정,
- 박종란(2000), 사고력 신장을 위한 말하기 학습 방법 연구,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훈(2005), 지식 중심의 국어교육 내용 범주 설정 시론, 국어교육(117), 한국어 교육학회, 469-492.
- 백봉자(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도서출판 하우.
- 서영진(2010), 담화 유형별 위계 설정, 새국어교육 85, 한국어 교육학회, 141-166.
- 서혁(1995), 담화의 기능 및 유형, 국어교육학여구 5-1, 국어교육학회, 121-140.
- 성인모(1998),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을 위한 총체적 언어 학습 적용 방안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세모돌(2007), 성인화자의 말하기 평가 방법, 화법연구 11, 한국화법학회, 67-108.
- 송향근(2012),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 교육 연구에 대한 회고와 과제,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p.372-405.
- 신득력(2002), 위대한 대화-Robert M. Hutchins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안미란(2008), 능력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쓰기 평가 문형 유형 개발,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5-1, 한국외국어교육학회, 521-544.
- 안미란·최정순(2007),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언어 능력 기술, 한국어 교육 18-1,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207-234.
- 안병길(2003), 유형별 텍스트의 구성 비교, 영어영문학연구 29-1, 대한영어영문학회, 263-288.
- 원희영(2001), 설득적 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에 관한 연구-모델상황 적용을 중심으로,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해준(2012), 유학생을 위한 말하기 담화 교육 방안,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105-115.
- 윤희원(2002), 말하기 듣기 교수 학습의 지향과 과제, 국어교과교육연구 3, 국어교과 교육학회, 1-11.
- 윤희원(2007), 비한국학 분야의 한국어 교육, 국어교육연구 2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63-88.

- 이도영(2006), 말하기·듣기 교수 방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253-276.
- 이도영(2010), 말하기 평가 목표와 평가 기준 설정 방안, 교육논총 30, 경인교육대학 교 교육연구원.
- 이민아(2013), 학문 목적 중국 학습자의 발표를 위한 교육 방안 연구 설명하기와 설 득하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한(2012), 논리로 설득하고 스토리로 공감하라, 경향미디어.
- 이창덕·임칠성·심영택·원진숙·박재현(2010), 화법교육론, 역락.
- 이창덕(2008), 화법 능력과 화법(듣기·말하기) 교과서 개발 원리, 화법연구 12, 한국화 법학회, 113-148.
- 이해영(2005), 한국어-한국학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사례, 한국언어문 화학 4,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63-188.
- 임지룡·송창선·이문규·정수진·홍미주·송현주(2013), 삶을 위한 화법, 정림사.
- 장하영(2012), 어떻게 마음을 얻는가, 스마트북.
- 장향실(2006), 중국 대학의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325-347.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 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연구 4, 한국화법학회, 113-145.
- 전영옥(2009), 구어와 담화 연구,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45-93.
- 전은주(1997), 한국어 능력 평가 말하기 능력 평가범주 설정을 위하여, 한국어학 6, 한국어학회, 153-174.
- 전은주(1999), 말하기·듣기 교육론, 박이정.
- 전은주(2008), 말하기 듣기 교육에 대한 개념적 접근, 새국어교육 56-1, 한국국어교육 학회, 111-132.
- 전은주(2009), 한국어 교육 내용으로서의 국어 화법 특성의 의미, 이중언어학 39, 이 중언어학회, 317-344.
- 전은주(2010), 한국어 말하기 듣기교육에서 '실제성 원리'의 적용 층위와 내용, 새국어 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553-575.
- 정화영(1999),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평가 방안 FSI Oral Proficiency Test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자(2002), 담화와 추론, 한국문화사.
- 조수진(2007), 한국어 말하기 교수의 원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수진(2010),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소통.
- 조재윤(2011), 대학 "사고와 표현" 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조사 연구, 새국어교 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247-271.
- 조항록(2004d),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전망, 국제 학술대회 2004-1, 국제한 국언어문화학회, 9-25.
- 지현숙(2005). 인터뷰 시험 담화 분석을 통한 한국어 구어 능력 평가의 구인 연구, 국 어교육연구 1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79-104.
- 지현숙(2007), 한국어 구어 문법 교육을 위한 과제 기반 교수법, 국어교육연구 2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54-255.
- 진제희(2003), 사회언어학적 및 전략적 말하기 능력 배양을 위한 담화분석 방법의 적용, 한국어 교육 14-1,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299-321.
- 최수진(2008), 효율적인 한국어 회화 수업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중국 대학의 교수와 학생의 학습 방법 선호도 비교를 중심으로, 人文科學研究 14, p.51-70.
- 최수현(2011), 외국인 대학생의 말하기 준비 단계를 위한 대화일지 활용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2012), 중국 내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현황과 효율적인 교육 방안 연구, 새국어 교육 93, 한국국어교육학회, 565-594.
- 최영란(2012), 담화 문법 과점의 구어 종결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순(2006),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과정과 평가, 이중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277-313.
- 한상미(2006),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문제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윤호(2011), 과제 수행 중심의 말하기 지도 방안 <말이 트이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511-531.
- 한은숙(2009), 영어 이야기 만들기와 다시 말하기 활용이 초등학생의 어휘력 향상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실(2014),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발표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외 논저

- Bachman, F. L.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chman, F. L., & Palmer, A. S. (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Designing and Developing Useful Language Tex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G., & Yule, G. (1998).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H. D. (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3rd ed). New York: Longman[권오량·김영숙 공역 (2008), 원리에 의한 교수 -언어 교육에의 상호작용 접근법, 피어슨에듀케이션 코리아].
- Brumfit, C. (1984). Communicative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The Roles of Fluency and Accu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nale, M. (1983). From Communicative Competence to Communicative Language Pedagogy. In J. C. Richards & R. W. Schmidt (Ed.), *Language and communication*. London: Longman.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Ellis, R. (1994).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iestad, M., & Wright, P. (1994). The Persuasion Knowledge Model: How People Cope with Persuasion Attemp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1, 1–31.
- Fulcher, G. (2005). Second Language Testing. Harlow: Pearson Education Limited.
- Halliday, M. A. K. (1976). Explorations in the Functions of Language. London: Arnold.
- Heyde, A. (1979).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the Oral Production of a Second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University of Michigan, MI.
- Hughes, R. (2002). Teaching and Researching Speaking. London: Longman.
- Kim, J. T. (2006). The Effectiveness of Test-takers'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of an Innovative Web-based Speaking Test for International Teaching Assistants at American Colleg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Krashen, S. D. (198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Oxford: Pergamon.
- Lennon, P. (1990b). Investigating Fluency in EFL: A Quantitative Approach. Language Learning, 40(3), 387-417.
- Levelt, W. J. M. (1989). Speaking: From Intention to Articulation. Cambridge: MIT Press[김지홍 역(2008), 말하기 1·2: 그 의도에서 조음까지, 나남].
- Knapp, P., & Watkins, M. (2005). *Genre, Text, Grammar.* Australia: The UNSW press[주세형·김은성·남가영 공역(2007), 장르, 텍스트, 문법. 박이정].
- Renkema, J. (1992). *Discourse Studies: an Introductory Textbook.* John Benjamins Pub Co[이원표 역(1996), 담화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 Swales, J. M. (2004). Research Genres: Exploration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Dijk, T. A., & Kintsch, W.(1983). Strategies of Discourse Comprehension.

  New York: Academic Press.
- Wood, D. (2001). In search of fluency: what is it and how can we teach it?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7(4), 573-588.
- Wray, A., & Perkins, M. R. (2000). The Functions of Formulaic Language: An Intergrated Model. *Language and Communication*, 20, 1-28.
- Yang, Hei-Soon (1992). The ACTFL English Oral Proficiency Interview: Its Background and Application. *English Education*, 43(1), 147-172.
- Young, R., & Milanovic, M. (1992). Discourse Variation in Oral Proficiency Interview.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4, 403-424.
- 李美霞(2006), 話語類型概念探疑, 外語教學 27-1, 1-5.
- 何曉勤(2004), 講演·勸說·訴諸·語篇, 外語與外語教學 11, 7-10.
- 樋口裕一(2000), ホンモノの文章力: 自分を売り込む技術. 集英社[히구치 유이치(2006), 진짜 사고력, 논리와상상].

# **ABSTRACT**

# A Study on Education Methods of Korean Opinion—speaking

- Focusing on the Advanced Learners from Universities in China

Liang, Shuang

This study analyzes how Chinese advanced learners from universities who have learned Korean as a major give their opinions on some topics in one-way interview situation, in order to develop an education method that can enhance Chinese leaners' opinion speaking competence.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was necessary to first clarity the essential nature of the Korean opinion-speaking. The Korean opinion-speaking is not a mere oral activity for foreign learners, like giving one's opinion on something in an interview test, or state one's views about some hot issues in the discussion with other students. However, most Chinese learners have difficulties in giving their own opinions in the one-way discourse situations. That is because there are linguistic and soci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re is less opportunity to practice Korean apart from their lesson hours. In addition, Korean speaking classes in universities in China adopt teacher-focused and grammar-oriented education. Therefore, Chinese learners are accustomed to repeating and imitating independent short sentences without considering context and situations reflected in conversations, which cause a lot of difficulties in actual communications.

In chapter 2, the basic theory which is a premise of discussion, is presented. Firstly, the study defined the concept and the characteristics of opinion-speaking. It was made clear that opinion-speaking, in which

Chinese advanced learners who speak Korean as a second language, is an oral communication typ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informing speaking and the entertaining speaking. With understanding concepts and properties of opinion-speaking, functions and processes of opinion-speaking, this chapter will be the theoretical base about the essence of opinion-speaking education.

Based on these theoretical discussions in previous chapter, in chapter 3, the language competence aspect including accuracy, fluency and diversity, the structure of content and the strategic competence aspect were designed as an analytical frame. By the frame, learners' discourse data and Chinese interview material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learners used inappropriate grammar and vocabulary, monotonous pattern expressions in the language competence aspect, incomplete structure and illogical composition in th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nd in the strategic competence aspect, The students were found inadequate in using diverse strategies in either the preparatory stage or the speaking stage.

In chapter 4, the study designed the educational goals,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by giving an opinion on some topics in the one-way interview situation, which was based on the results of opinion-speaking discourse of Chinese advanced learners identified in chapter 3. The education goals were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opinion-speaking', 'use appropriate and diverse expressions', 'create logical structures and content', and 'use appropriate strategies in both preparatory and delivery stage.' On this basis, the actual classroom course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following 3 progression: acquirement of basic pattern expressions, acquirement of strategic using ability, and the last stage-comprehensive practice. As a result, this education method was materialized as an education material for enhancing ability to construct Korean opinion-speaking discours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unlike one-dimensional education that focuses on repeated exercise of typical speaking phrases, it designed a specific contents and method to improve an ability to construct opinion-speaking discourse that is basically required for the actual communication in both preparatory and delivery stage.

**Key Words:** Korean Education, Speaking Education, Opinion-speaking, Interview Discourse, One-way Speaking, Pattern Expression, Structure of Content, Speaking Strategy.

**Student Number**: 2012-22644